



세계 도시에 설립되어 그 나라 수가 76개국, 클럽 수가 4023개, 회원수가 17여 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에는 경성, 부산 두 도시에 있는데, 실업가, 교육자, 의사, 신문 기자 등의 대표적 인물을 망라한 유력한 클럽이 되었으나, 그 목적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봉사를 함으로써 만반(萬般)의 활동을 제일주의로 하는 것으로, 봉사는 현 사회 및 개인의 진보·발전에 대한 일대 요소임을 제창하며 또한 실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선 반도에서 동포의 생활 안정,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충실히 도모함과 동시에, 서로 함께 협력 봉사의 정신과 실행에 힘써야 합니다. 이로써 자력 갱생도 비로소 실제 가치를 발휘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인류 사이에 문화의 정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잠행적(潛行的) 또는 표현적으로 작용하여 개인 및 사회를 감화시키고 교육하여 생명과 희망을 제공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애(恩愛)입니다. 이 은애(恩愛)라는 것은 사(私)를 이롭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타(他)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며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필요한 재화(財貨)까지도 바치며, 때로는 그 생명을 바치며 타인을 위해 다하는 활동입니다. 공평한 견지에서 볼 때, 이 우주는 은애(恩愛)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며 만물이 나고 자랍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서로 은애를 베풀어 가정이 빛나고 사회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평안해 집니다. 인은애가 따뜻함이 있고 빛이 있음으로써 인류도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데 이 은애에 감동하고 이에 보답하는 정성스런 마음과 실천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성스런 마음과 실천이 있어 비로소 인간은 사심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맑고 바른 존경스런 존재가 되어, 이러한 사회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감은(感恩)의 염(念)과 그 실행은 조선 아니 세계 사람들이 찾아야 할 필요한 일이며 심전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움은 젊은 부인이 나이 든 사람을 친절하게 돌보고, 길에서 만나면 손을 잡아주고, 차에 오를 때에는 그 노인을 안아 주려는 듯 주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실로 허영으로 흐르고 의상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는 일반 젊은 부인 가운데에서, 노인을 돌보고 약자를 돕는 착한 소녀의 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입니다. 전 총독 우가키 대장이 항상 병약한 부인을 위로하고 부인 병원에 있는 날에는 바쁜 가운데에도 병문안을 가서 위로하고, 기차에 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 부인의 손을 잡고 도와주는 모습은 우가키 대장 재임 중 빛나는 많은 공적 중에 묻힌 우리가 존경하는 미담입니다. 또한 일찍이 총독의 비서관으로 훗날 도지사(道知事)로서 이름을 알리고 지금은 큰 회사의 주뇌(主腦) 지위에 있는 한 신사가 우리에게, 이번에 자신의 선생이 일본에서 이곳으로 와 조선과 만주 시찰 길에 오르려고 하고 있어, 이곳 체재 중에 가능하다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 선생이 누군지 물으니, 현재 일본의 한 도시에 교회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신사와 이 목사의 관계는 고향의 중학교 시절에 그곳 교회 목사의 지도를 받은 적이 있어, 지금까지 그 교회의 감화를 받았다고 하며, 경성에 도착하는 그 목사를 직접 역에서 마중하여 그를 자택으로 초대해 부부가 함께 선생을 대접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자 교회와 연계하였고, 그를 위해 우리는 조출한 환영회도 열었으며, 만주에 있는 신사의 친구에게 그를 선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보기 어려운 사제 간에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미담입니다. 이처럼 은애로 가득한 실행은 심전개발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일단 생각하고 배우고 싶은 것은 심전개발 최대 요소로서 우리가 조상에 대해, 조국에 대해, 알아야 할, 알기 어려운 은혜·애호(愛護)를 깊이 사고하여 깊이 있게 고찰하고, 이에 대한 사은보국(謝恩報國)의 염(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숭경애국(崇敬愛國)의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이 마음, 이 환경, 이 나라 모든 조상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결코 우리 혼자서 스스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를 생각하면, 조상에 대한 보은의 정성이 솟아 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가 여행을 하여 외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양어깨에 지고 있는 조국, 우리가 높이 걸어 놓은 일장기,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며 우리를 자임자중(自任自重)하게 하는 지, 만주에 이민간 우리 국민이 얼마나 가슴 깊이 자임자중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일본에 있을 때 가졌던 느낌, 태만의 기운은 홀연히 사라지고 근면하게 정진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 자국(自國)을 대표하는 기개로 불타며 자영자제(自營自制)하여 동료들 사이에 규율정연(規律整然)함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예전부터 조상을 존경하고 조상의 대은(大恩)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미풍양속이 있어, 연중 달마다 조상에게 제례를 올렸으며, 그리고 이 미풍양속은 결국 그 정도를 지나치고 말아 허례허식으로 흘렀기 때문에 진정한 조상숭배의 예(禮)는 허례(虛禮)가 되어 그 진정한 의미가 크게 퇴색하였으며, 마침내 이를 대대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초래됨과 동시에, 한편으로 서양 문명의 진의를 오해하고 또한 시대의 유행인 부화경졸(浮華輕卒)에 압도된 대중은 엄숙한 것, 신성한 것을 경시하기에 이르러, 조상 숭배는 점차 줄고 선대의 업을 잇는 사람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온 선교사의 눈에는 화려하고 허례로 흐르는 외형만이 보여 이를 고치는 것은 사회의 폐해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그들은 이렇게 타락한 조상숭배는 최고지성(最高至聖)인 신을 경배하는 대신에 저급하고 비속한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보고, 기독교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조선 반도 동포 중에는 조상숭배의 염(念)과 실행은 빛을 잃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아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통탄할 일이며, 우리는 조선인 제군(諸君)과 함께 조상숭배, 조상을 숭경하는 의의를 알리고 그 재흥진기(再興振起)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견지를 더욱 높이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관(大觀)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세계에 비할 바가 없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실을 받드는 충군애국(忠君愛國) 정신의 표현(表顯)이며, 즉 무사도(武士道)이자 대화혼(大和魂)입니다. 이 정신은 아주 옛날부터 길러져 온 우리 국민의 아름다운 특성이며, 그리고 70여 년 전에 봉건제도의 철폐와 함께 대정(大政)을 봉환하여 오랫동안 봉건제도에 길러져 온, 충군(忠君)의 성(誠)은 합류대성(合流大成)하여 일천만상(一天萬上)의 폐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충군애국의 정신 궁행(躬行)과 실천이야말로 심전개발의 최대 요체(要諦)라고 확신합니다.

### 3. 종교 신앙의 필요

인간이든 사회이든 진정한 진보·발달은 평온한 안정이라는 기초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인심(人心)





에 안정이 없고 국가에 치안(治安)이 없다면, 진보·발달은 어렵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없고, 사회에 안정이 없으면 스스로 취하고 용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둥근 명월(明月)도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수면에만 머물습니다. 하코네(箱根)의 호수에 흰 그림자를 드리운 후지(富士)의 영악(靈嶽)이 비치는 것은 바람 한 점 없이 호수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울 때 뿐입니다. 인심(人心)이 평화롭고 안녕할 때에만 진보·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예부터 지금까지 진심으로 평화와 안녕을 얻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을 안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사람이든 국가든 그 사이에 분규가 있고, 또한 가슴 속에 항상 약동하는 이욕(利慾)이 있어,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인류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계가 개혁한 이래 인간의 지(知)가 발전함과 동시에 이러한 인심(人心)에 불안과 안정 결여는 그 근본에 인간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재능을 스스로 멈출 수 없으며 인생은 불과 수십 년, 70년은 예부터 드문 일이어서 죽음이 엄습해 오고 동시에 만사가 끝이 납니다. 지능뿐만 아니라 정치(情致)에서 진보·발달에 상관없이, 고묘심원(高妙深遠)한 음악, 조각·회화 등 실로 귀신을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갑자기 이들 천재를 쓰러뜨리고 달인을 앗아갑니다. 특히 부부친자(夫婦親子)의 존엄, 아름다운 인정(人情)도 죽음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불쑥 찾아와 영원한 이별을 고하게 합니다. 이에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탄식과 슬픔을 안고 불안과 불안정한 느낌은 인간 마음의 깊은 저변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으로써 만사가 끝나는가라고 인생의 운명 문제는 인간 탄생 이래의 현안이고 이에 그 바닥을 알지 못하는 불안정과 불안은 의식하거 의식하지 못하건 인류를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깊이 자리한 인심(人心)의 불안정과 불안을 구원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 전혀 없을까? 이 길은 종교의 신념입니다. 종교란 무슨 파이든 하나의 커다란 지주(支柱)는 인간의 운명은 결코 죽음으로 만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생(往生)하는 것이 그 실명(實名)입니다. 일찍이 선배인 우치무라(內村鑑三) 씨는 자신의 외동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을 무렵에 죽음을 맞았을 때, 그 딸이 부모에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실로 영혼의 불멸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글을 당시 세계 보내 왔습니다. 영국의 시성(詩聖) 테니슨은 어느 죽음을 조문하고 죽음이란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 오르는 것이야 말로 그 이름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종교는 종교적 대성위인(大聖偉人)을 통해 인간의 운명이 영원불멸한다는 것을 인류에게 확신시켜주며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이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로소 가슴 깊이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얻어 대왕생(大往生), 크게 돌아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에 종교적 신념은 심전개발의 기초 공작임을 믿습니다.

이어서 심전개발의 또 다른 기초적 공작으로서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심(人心)의 안정은 심전개발의 기초적 공작이라고 해도, 희망이라는 빛이 빛나고 인심이 위로 오르지 못하면 심전도 마르고 황폐해져 버리든지, 가라앉아 썩어버릴 것입니다. 희망은 인심을 항상 젊게 약동하게 합니다. 시인 브라우닝은 이루어 낸 것보다 이루려고 하는 데에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 라고 실로 희망의 광명(光明)이 가진 고귀함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떤지, 사는 데 쫓기는 가난함 없이는 과거의 세상이어서 지금은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은 뒤를 쫓아 옵니다. 세상은 대부분의 경우 불공평하고 의인(義人)이 반드시 보답





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성공을 하고, 선인(善人)은 대부분 내쳐지고 악인(惡人)이 발호합니다. 호넨(法然), 신란(親鸞), 니치렌(日蓮)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소크라테스의 독배(毒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심이 의지하기에 부족하며 여론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만 의지할 만한 곳을 찾는다면 인간의 희망은 그저 이 세상에만 한정되어 버립니다. 즉 인간은 무한한 시간 속에 끝없이 넓은 우주에 있어, 너무나 가련하게 너무나 슬프게도,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 하루살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군사를 동원하여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몸이 먼저 죽은 영웅으로 하여금 눈물로 소매를 적시게 하는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만인을 이 비통장한(悲痛長恨) 속에서 구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영혼의 불멸을 말하고, 인간은 사후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결코 죽음으로 만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을 주며, 엄정충실(嚴正忠實)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희망과 신앙을 품은 위인걸사(偉人傑士)는 결코 적지 않으며, 유태교의 예언자이든, 대정치가이든 당시 경이로운 세력을 갖고 감화를 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교훈을 전파하였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 (이사야서)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영원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경험하는 능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열렬한 희망을 품은 시성(詩聖) 브라우닝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하였습니다만, 그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열렬한 희망을 품고 이를 기억하여 일심불란(一心不亂)하게 공부·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가깝고 친절한 사람들은 그에게 휴양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이 있다. 영원을 생각하며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현세(現世)는 개나 원숭이에게 던져 줘라. 내세가 없는 그들 짐승들은 현세만을 생명이라고 한다. 인간인 자는 영원을 활동구역으로 해야 한다 고 대답한 그의 명구(名句)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현세는 개나 원숭이에게 줘라! 인간은 영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는 영원히 절대적인 희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를 통해 그는 결코 현세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숨의 근원을 멈추는 죽음과 싸우면서 문전(文典)의 강의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미 죽음이 눈 앞에 와 있고 숨소리는 꺼져꺼억 소리내며 고통스런 소리를 냈지만 문전을 강의하였고 다리는 식어갔지만 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브라우닝의 생애였습니다. 종교적 신앙은 이처럼 강하며 사멸하지 않으며 고귀한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희망을 심전 개발 기초적 공작의 두 번 때 요소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전개발 기초 공작의 세 번째 요소는 경건(敬虔)과 지성(至誠)입니다. 정신적·영적 수양이라고 하고 실천궁행(實踐躬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초적 공작에 성심(誠心)과 경건이 없다면 결코 충분한 활동과 효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인류 일반이 사심사욕(私心私慾)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수라장(修羅場)에서 구원받고 단지 인간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성의와 경건의 염(念)으로 심전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진리를 가장 잘 깨닫고 간파한 분이 바로 위대한 성인(偉聖) 메이지 대제입니다. 또한 대제가 황송하게도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있는 다음의 어제(御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神)의 마음과 같은 것이야 말로  
인간 마음의 성(誠)일 것이다.

경건과 성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마음과 통할 때 비로소 이를 실험하고 또한 이를 수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신 명구(名句)이며, 즉 성의와 경건은 숭경의 신념에 따라 생기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이렇게 심전개발의 일대 기초 공작인 경건과 성의는 종교 신앙에 의해 성취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오는 가운데 갑자기 제 기억에 떠오르는 참으로 경복감명(敬服感銘)할 수 밖에 없는 일은 지금부터 3년 전에 황송하게도 황태후 폐하가 교토(京都) 도시샤 여학교(同志社 女學校)에 납시었던 일입니다.

폐하가 납신 주지(主旨)는 기독교주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여학교를 평소에 둘러보고 싶어 하셔서 당시 에비나 단조(海老名彈正) 씨가 도시샤 여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자, 총장은 여러 교사를 이끌고 폐하를 영접하였으며 매일 있는 행사인 강당 조례에 폐하를 안내해 평상시와 다름없이 1,000명의 학생 앞에서 성서의 일부를 읽고 기도를 올리며 조례를 주관하였는데, 이때 황송하게도 폐하는 특별히 준비된 단상에 서 계셨으며, 식(式)이 끝나고 나서 각 교실을 둘러보시기 위해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는 이미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폐하가 이처럼 종교에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심을 알았고, 지금도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천학박신(淺學薄信)하여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비천한 의견을 말씀드려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심전개발의 기초적 공작으로서 적어도 먼저 안심, 이어서 희망, 마지막으로 경건, 이 세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종교 신앙임을 절절히 느낍니다. 다행히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출전 : 丹羽清次郎 「心田開發이란 무엇인가?」, 京城基督教 青年會 理事,  
1937년 1월부터 라디오 방송한 내용〉



### 3) 김태흡, 『심전개발 및 시국에 관한 순회강연집』(1938)

강사 김태흡(金泰洽)

#### 목차

1. 심전개발과 종교 신앙의 필요  
〈1936년 7월 28일 원주읍내에서〉
2. 보국감사와 자립정신  
〈1936년 7월 21일 영월읍내에서〉
3. 심전개발과 전미개오(轉迷開悟)  
〈1937년 2월 28일 양구읍내에서〉
4. 종교신앙과 인류의 행복  
〈1937년 6월 11일 평창읍내에서〉
5. 심전개발과 생업보국(生業報國)  
〈1937년 10월 4일 통천군 흡곡에서〉
6. 심전개척(心田開拓)과 의용봉공  
〈1937년 10월 5일 통천읍내에서〉
7. 희생봉공(犧牲奉公)과 안심입명(安心立命)  
〈1937년 10월 24일 횡성읍내에서〉
8. 충후부인(統後夫人)의 책임  
1937년 11월 26일 평강군 문산리에서
9. 비상시국과 화경(和敬)의 이상  
〈1937년 11월 27일 평강군 옥봉에서〉
10. 신앙생활과 거화취실(去華就實)  
〈1937년 12월 6일 김화군 금성에서〉
11. 심전개발과 국민지구전(指久戰)  
〈1937년 12월 6일 김화군 창도에서〉

#### 1. 심전개발과 종교 신앙의 필요(1936년 7월 28일, 원주읍내에서)

지금부터 여러분을 모시고 심전개발(心田開發)이라는 연제(演題)하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도 매우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수회동(多數會同)하여 주심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도의 촉탁으로 인하여 본도(本道) 북도5군(北道五郡)을 순회 강연하옵고 이번에 또다시 남부4군을 순회강연하게 되었음을 실로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심전개발과 종교 신앙의 필요'라는 연제(演題)로 약 한 시간쯤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정청(靜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심전개발'이라 함은 무엇인가? 이는 무슨 연고로 근대에 이르러



성왕하나 하면 신앙심을 세우고 종교심을 환기(喚起)시킴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무슨 연고인가하면, 수 천 년이래 말이 없던 이것이 어찌하여 새로이 이에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겠습니까?

수천년래에 극도로 피폐한 이 조선(朝鮮)에 난국을 타개함에는 자력을 갱생하여 농촌을 진흥함에 있다고 해서 모범 부락(模範部落)이니 청년회(青年會)이니 부인회(婦人會)이니 갱생부락(更生部落)이니 하는 등 조선 각지에 매거(枚擧)<sup>1)</sup>키 어려울 만큼 제반(諸般)운동이 봉기하였습니다.

제일(第一) 경제상(經濟上)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조선동포를 어찌 구원하려 하면 늦었지만 이것은 경제적으로 구제치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목표하에 당국에서는 '자력갱생농촌진흥운동(自力更生農村振興運動)'을 일으켜서, 극력(極力)으로 보도(補導)하여 오기를 지금까지 벌써 5개년(五個年)이라는 성상(星霜)이 되었사운데 피폐(疲弊)로 변화한 농촌을 다만 '자력갱생 농촌진흥운동'으로 업적(業績)을 일으키도록 하여, 물질적 방안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방면에도 치중하여 물질양방면으로 극력(極力)이 운동에 초지(初志)를 관철(觀徹)하고자 자력갱생을 고창(高唱)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효과(效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많은 반면(反面)에 여러 가지 피폐(疲弊)가 적지 않습니다. 그는 갱생운동을 시작함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질적 방면(物質的方面)으로만 추행(追行)하고 정신적 방면은 전혀 자연적 몰각(沒却)하게 되었으므로 정신상으로는 실로 여러 가지로 피해가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만 편중(偏重)하게 되어 개인주의(個人主義)와 물질주의(物質主義)에 만 분치(奔馳)하게 되어서 동양고유인 미덕(美德)에 근본적 정신을 전혀 몰각하여 온 고로 그의 피해를 말씀드리면 여간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물심에 관계(關係)는 수레(車)에 양 바퀴(兩輪)와 새(鳥)에 양 날개(兩翼)와 흡사(恰似)하여 어떤 편(便)이든지 결여(缺如)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로 정신적 생활과 물질적 생활은 동시동양(同時同樣)으로 일시에 환기(喚起)치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금(昨今)에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이 일어난 원인(原因)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력갱생운동에 대하여서는 직접 목전(目前)에 보이는 것인 고로 지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마는 심전개발이라 함은 종교적인 것인 만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설교도 하고 포교도 하고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이런 설교와 포교는 사찰(寺刹)에 대하여 본시 우리의 의무인 고로 남에 요망(要望)에 의하여 할 것이 아니고 자신으로 당연히 할 것인데 수면상태(睡眠狀態)에 있었음은 참괴막심(慘愧莫甚)한 일이오며 천재일시(千載一時)에 호기회(好機會)이온 고로 즉, 발분망식(發憤忘食)으로 일 년 열두 달 365일을 13도에 방방곡곡으로 다니며 순회(巡廻) 지도(指導)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면 무릇 심전(心田)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하오면 그는 세상에서 석전(石田)·수전(水田)·사전(砂田)이라고 함은 많이 들었고 또한 일반(一般)이 모두 목도(目睹)하는 것이지만은 하필 심전이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심전개발(心田開發)은 금시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위(各位)는 신문, 잡지 등에 많은 선전(宣傳)이 있었던 고로 지금은 안방에 들어 앉아 있는 부인, 아동들까지라도 자세히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출처는 어디인가, 그의 의의, 골자(骨子)와 정신취지(精神趣旨)가 어디에 있나?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자세히 설명하여 여러분께 올리하고자 합니다.

1) 일일이 열거함.





심전(心田)이라 함은 불경(佛經)에서 나온 것인데 불경에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합천(陝川) 해인사(海印寺)에 비장(秘藏)한 것인데, 목각(木刻)으로 아마 이 공회당(公會堂)에 한 이십 배 되는 집으로 목태(木台)가 꼭 차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목각(木刻)이 팔만여가 되어서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하고, 혹은 하도 많은 고로 그렇다하기도 합니다. 인도(印度)에서는 이를 수량(數量)이 오만매(五萬枚)가 있다 하는 등에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수량이 다수라 함은 사실입니다.

그런 고로 수량이 많음을 지적하여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이 난듯합니다. 그런데 대장경 중에 잡아함경(雜阿含經)이라는 경(經)의 제 4권에 심전경작(心田耕作)이라는 언구(言句)가 있습니다. 즉, 심전개밭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 네 자를 부녀자나 아동이라도 능히 알만큼 오늘날은 이를 통속적으로 자세하게 해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삼천 년 전에 석가세존(釋迦世尊)이라는 어른이 계시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박학다조(博學多助)한 분이 십대제자가 있었는데, 십대제자 중에도 아난(阿難)이라는 현철(賢哲)한 분이 계시어서 유독이 석가세존에 충애를 독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철한 분이 많으시지만, 석가세존에게서는 아난과 같이 방방곡곡으로 순회하시며 이 세상에 모든 물욕(物慾)에 충만한 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사 극락(極樂)으로 인도하고자 진심(盡心) 갈력(竭力) 중에 그 어느 전답(田畝)들이 많은 원야(原野)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농번기인 고로 일반 농민들이 온 들(野) 사방에 산재하여 모든 백곡(百穀)을 경운(耕耘)하며 배양함에 구가(驅歌)를 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니 땀을 흘려 가면서 일을 하던 농부들은 모두 전답휴반(田畝畦畔)으로 혹은 수림(樹林) 아래에 나와서 잠시 휴양(休養)을 할 새에 부녀자와 노약한 사람들은 점심밥을 혹은 지고 혹은 이는 등 하면서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농부들은 밥을 나눈다, 간을 나눈다 하면서 모여서 먹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석가세존이 한 농부에 나가 온공(溫恭)<sup>2)</sup>히 합장 배례를 하고 말씀하시기를,

“석가세존 : 나는 부모처자도 없고 집도 없는 무의무탁(無依無托)한 사람으로 천하를 집을 삼고 순회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잡숫는 밥을 한술씩이라도 모아주신다면 배고픈 저는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점심 요기를 시켜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 모인 농부 중에 혈기 건장한 청년 농부 한사람이 썩 나서며 하는 말이,

“농부(農夫) 왈(曰) : 당신에게는 이 귀중한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단연 거절하였습니다.

“석가세존(釋迦世尊) 왈(曰) : 어찌하여 그 같이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까.” 한즉,

“청년농부 왈 : 이 밥은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피땀을 흘려가며 한톨 한톨에 곡식을 힘들여서 지은 것이니 당신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유도일(優遊渡日)하는 자는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난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阿難) : 그러면 만약 농사를 짓지 않은 자는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까?” 하였습니다.

“농부 :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거절 하였습니다.

2) 온화하고 공손함.







“석가세존 : 그런즉 오늘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였습니다. 그런즉 대답하여 말하기를,

“농부 : 그렇습니다”라고 하는지라,

“석가세존 : 그런즉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그렇거니와 나도 농사를 짓는 농부이니까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한즉 일반농부들이 정색하여 말하기를,

“일반농부 : 아무리 보아도 농부 같지 않고 농사지은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손도 부드러운데 무슨 농부라고 하느냐! 수도를 한다는 사람이 어찌 허언(虛言)을 하여 사람을 기만코자 하느냐.”고 하는지라 이에 고성대언(高聲大言)으로,

“석가세존 : 나는 여러분과 같이 계절적 농사를 하는 자가 아니요. 춘하추동 사시(四時)를 막론하고 받을 경작하는 자이다.” 등 하면서 고란(詭亂)들을 할 즈음에 인근(隣近)에 있는 자들은 싸움이 나지 않나 하고 전부 몰려와서 무려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석가세존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석가세존 : 내가 농부가 아닌가. 농부인가의 이유를 말할 터이니 원하건대 여러분은 내가 말한 후에 스스로 판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석가세존 :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구조가 물질에 속한 육체와 영(靈)에 속한 정신 양자가 구비(具備)치 아니하면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것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1) 육체에 생활이라 함은 산천(山川)·전답(田畠)등을 이용하여 오곡(五穀)에 종자를 뿌리며 중경배토(中耕培土)를 하고 결실이 되면 누구나 수확하여 자유롭게 식량에 충당시키는 등 육체로 말미암은 노동적 무의(無意)한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여러분에 농사라 함은 의·식·주에 대한 물질적 방면에만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하면 만물의 영장인 만큼 다만 이 물질적 생활로는 도저히 만족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적 생활을 하는 이외에 마음으로는 정신적 생활을 요구하는 고로 여느 동물과는 달라서 영물이라 이르겠습니다.

(2) 심(心)이라 함은 무엇인지 이것을 해부하면 지(知)·정(情)·의(意),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 지(知)라 하면 진(眞)을 구하는 것인데, 즉 알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제일 알기 쉽게 말씀하면 아이(兒孩)들이 점차 장성할수록 무엇을 물을 때에는 반문적으로 이것은 무엇이요, 저것은 무엇이야 하며 지적 지혜가 발달되어 오는 것이며 어머니, 할머니 하면서,

아해 : 아버지는 누가 낳았어.

어른 : 아버지에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낳았다.

아해 :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소.

어른 : 할아버지 아버지가 낳았단다.

아해 : 처음에는 누가 낳았소.

하는 등 근본적으로 추구할 시에 내종(乃終)에는 지적 만족을 취하여 미울 만큼 질문함으로 혹 창세기를 이용하여,

어른 :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에 천만물(千萬物)을 창조하실 때 6일간에 모든 만물을 창조





하시고, 내종(乃終)에 흠으로 사람을 만들었더니 거기에서 의식이 들고 혈액이 통하여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다. 혹은 저 공중에서 황우(黃牛) 한 마리가 똥똥 떨어져 어느 숲 사이에 내렸다 간 뒤에 본즉 큰 알을 낳아 놓고 갔는데, 그 알 속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나왔다.”

라는 등 사람이란 앞에 만족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心)이 있습니다. 즉 앎(知)이라 함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진리를 기어이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런즉 이에 한 건(件)으로 본다 하더라도 물질적 생활로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나) 정(情)이라 함은 미(美)를 구하는 감정인데 미를 구함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때때로나 혹은 설(정월 1일), 단오(5월 5일), 추석(8월 15일), 등 가진길일(佳辰吉日)을 맞아 무엇을 보면 저것은 나를 하여주오, 며칠 밤 있으면 입을 수 있수(着衣)하는 것이며, 모두 미를 구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물론하고 밥 이외에 떡이나 적이나 만두나 국수나 모두 맛있고 보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혹은 가무음률을 좋아한다든지 기예술(技藝術)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것이 모두 정(情)에서 나온 심적 욕망입니다.

예를 보건대, 그 떡을 그냥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을 혹은 둥글게, 세모지게, 네모지게 혹은 청홍(靑紅)·백(百)등으로 착색을 하여 먹는 것이 모두 귀와 눈과 입에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좋아하는 물건을 요구하며 방정(方正)<sup>3)</sup>을 구한다든지 곡선미를 구한다든지 하는 등에 이유는 정적 요구입니다.

(다) 의(意)라 함은 선(善)을 구하는 의식인데, 다만 인간이 저 무림산천(無隣山川)에서 단독으로 외로운 생활을 한다면 도덕관념 즉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이 없어서 발가벗고 산다 하더라도 하등에 관계가 없겠지만 세 사람 이상이 산다 하면 규칙이 있는 바입니다. 자연히 앞을 가리여야 한다, 옷을 입어야 한다든지 하며 불의부지(不意不知)중에 악(惡)과 추(醜)를 버리고 선과 미를 취하게 됨에 마침내, 자연의 준칙(準則)이 발생하게 되니 적어도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를 구성하여 전체생활을 하자면 그에 준칙(準則)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가정에는 가규(家規)가 있고 사회에는 법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가규율령(家規律令)은 인간이 정한 것이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천성(天性)으로 자연히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고로 보기 좋은 것과 듣기 좋은 것은 선(善)에 속함이고,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은 악에 속한 것인 등의 자연의 덕의심(德義心)을 누구나 가지게 되며 따라서 인의도덕(仁義道德)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의(意)라고 하겠습니까. 그런고로 인간사회란 물질적 생활로만은 절대로 만족을 취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생활은 무형무색(無形無色)하여 이름을 짓기가 곤란함으로 심전(心田)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산전(山田), 수전(水田), 석전(石田)은 여러분이 개척하시는 중에 있으나 이상의 지(知)·정(情)·의(意) 즉 진(眞)·선(善)·미(美)라는 심전(心田)은 수천 수 만년을 내려오도록 경작할 자가 없어 천하인간에 심전은 전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이것은 유독이 나 이외에 개척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동서남북 방방곡곡에 순회를 하며 개척에 노력을 하였으나, 즉 대부분이

3) 네모, 사각형을 뜻함.





미개적인 고로 세상에는 죄가 충만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물질적 욕망만 충만하여 부모형제 친척, 친구 할 것 없이 욕심이 발로하여 서로서로 흉을 본다 하며 인심이 매우 악화되어서 심전은 극도로 황폐하여 왔습니다. 몇 대 조상부터 묵밭이 된 이 심전을 하루 바빠 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전(山田), 수전(水田), 석전(石田)은 하루 이틀쯤 쉬어도 무방하겠지만 심전에 경작이야말로 어찌 하루 이틀 쉬겠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일반청중은 망지소조(罔知所措)하여 몸 둘 곳을 모르며 모두 배례칭송(拜禮稱頌)하고 위탄불기(威歎不已)하면서 서로 다투어 점심을 가져와서 모인 것이 수십 인분이 한 곳에 쌓였다고 합니다. 최후에,

“석가세존 : 나는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子)하여 고행행위시우(苦行爲時雨)하고 지혜위리액(智慧爲犁轆)하여,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轆)이니라.

즉 신심(信心)으로 종자(種子)를 삼아 일반에 의혹이 없도록 하고 고행으로 시우(時雨)를 삼아 성의를 표하며, 지혜라는 무형적(無形跡)한 도(道)로써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물론하고 극락으로 인도하고자 일야사계(日夜四季)로 방방곡곡을 집을 삼아 참괴심(慚愧心)<sup>4)</sup>으로써 이 세상인간을 죄악 중에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참괴심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통으로 가고 참괴심이 있는 사람은 극락으로 돌아갈 것이니 어찌 유색유형(有色有形)에 물질적 농사에 미치지 못함이 있으리오. 이와 같이 농사, 즉 심전경작에 분투노력(奮鬪努力)하니 이것은 농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가불(不可不) 농부(農夫)라 하여도 참괴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때에 모두 칭송(稱頌)하여 말하기를

“일반농부 : 당신에 농법은 이 세상에 특이한 농군(農軍)이라고 하면서 신농(神農) 씨보다 더 위공(偉功)이 있는 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감복하였답니다.

무릇 심전개발이라 함은 즉 신앙을 일으키고자 함입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유교에서도 신앙으로 위주(爲主)합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가라사대 “언충신행독경(言忠信行篤敬)이면, 수만맥지방(雖蠻貊之邦)이라도 행의(行矣)요. 언불충신행불독경(言不忠信行不篤敬)이면 수주려(雖州閭)라도 난행호(難行乎)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데 신(信)자에 파자(破字)를 하여보면 인(人)자와 언(言)자가 합하여 신(信)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인간에 생명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곧 말인 고로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언(善言)이요, 그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언(惡言)일 것입니다. 즉 선(善)은 백행지본(百行之本)이요 만행지원(萬行之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자(孔子) 왈 ‘입즉효(入則孝)하고 출즉제(出則悌)’ 하시었는데 불교 역시 다름이 없습니다. 증자(曾子) 왈 ‘여붕우교이불신(與朋友交而不信)이면 하이위지교야(何而爲之交耶)아 불학(不學)이라도 신실(信實)하면 수왈(雖曰) 미학(未學)이나 오편위지학의(吾必爲之學矣)니라’ 하였으며 주역(周易)에서 말하기를 ‘천지소조자(天地所助者)는 순야(順也)오 인지소조자(人之所助者)는 신야(信也)니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하고 순천(順天)자(者)는 흥(興)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데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부모형제라도 불신이면 상호조력을 하지 않고 심하면 축출(逐出)의 지경까지 납니다. 그런즉 친부모형제기간에 가령 불목(不睦)을 한다고 하면 더구나 남남끼리야 어찌 신념을 두겠습니까. 이런 것을 미루어 본다면 신(信)이란 위대한 힘이며 인생 사세(斯世)에 불가불행(不可不行)할 요소가 아니

4) 부끄러운 맘, 염치.





겠습니까. 비단 인생에 일상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공도(天地公道)가 역시 그러합니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기를 ‘천지신이성세공(天地信而成歲功)하고, 일월신이역상명(日月信而歷象明)하며, 인군신이호령행(人君信而號令行)하고, 인신신이방가락(人臣信而邦家樂)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의 춘하추동의 절후(節侯)와 풍한(風寒)·서습(暑濕)·우로(雨露)·설상(雪霜)에 공도(公道)가 없다면 혹 일월(日月)에 조명이 주야(晝夜)가 있어 낮에는 일(日), 밤에는 월(月)과 같이 공평무사하게 비추이지 아니하면 어찌 천지(天地)·일월(日月)·우로(雨露)를 믿고 종자를 심어 결실되기를 바라고 수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군(人君)은 억조창생(億兆蒼生)이 의뢰(依賴)하며 경모(敬慕)하는 주권이 있는 만큼 만일 무신(無信)한다면 그의 호령(號令)이 어찌 나라 안(邦內)에 실행이 되겠습니까? 미더운 연후에 그의 호령을 엄수할 것입니다. 역시 인신(人臣)이 무신(無信)이면 그에 정치는 통제가 되지 아니하여 모든 기관(機關)에서 비등(沸騰)할지며 해이(解弛)해 질 터이니 어찌 그 나라(邦家)가 번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신(信)을 떠나서는 최악의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信)을 지킨 연후에야 성공을 할 것이며, 극락에 땅을 붙일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가정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공자(孔子)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 : 저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이는 농우(農牛)가 백색독(白色犢)을 분만하였으니 불상사가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 답하여 답하시길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니 그 소는 밭을 갈거나 혹은 식용에 바치거나 하면 불가하니 2, 3개월 잘 키워서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공자님을 꼭 믿었기 때문에 지시하는 대로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그리한 후 며칠 만에 그의 아들이 눈의 한편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리(洞里)사람들은 백독(白犢)에 처치를 잘못된 때문이 아닌가 하였으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백독 한 마리를 분만한 고로 또 그렇게 공자님께 가서 물었으나 또한 먼저 지시같이 하는 고로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공자님 말씀을 신뢰하고 재차 산천에 가서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후 며칠 후에 그 아들의 한 눈이 또 다시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한 태도로 공자님에 말씀을 유일한 무기(武器)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초(楚)·조(趙)·위(魏)·한(韓)·연(燕)·진(秦) 등에 춘추전국시절이 되어 연부력강(年富力強)한 장정을 모두 군인으로 모집하여 가는데 그의 아들은 안맹(眼盲)으로 피선(被選)이 되지 못하여 전지에 향함을 면하게 되어 부모와 같이 집에 있었답니다. 그 후 전란은 평정이 되었는데 그 동네에서 출전한 사람들은 모두 전사하였다 하는데 이는 위기(危地)에 나가지 않았음에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으며 그 후도 백독 한 마리가 분만됨에 괴이히 여겨 전과 같이 공자님께 물은즉 역시 산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며 말씀대로 또다시 지냈답니다. 그런즉 양 목맹(目盲)하였던 눈이 마침내 운권청천(雲卷青天)에 광명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즉, 극도로 백절불굴(百折不屈)의 태도를 가지고 공자님을 꼭 믿었던 탓으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됨인가 합니다.

5) 하얀 송아지.





즉 심전개발이라 하는 것이 신념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사회에 정세(情勢)를 보십시오. 각 관공서 은행회사 등에서는 흔히 말하기를 현 사회에는 쓸래야 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말이겠습니까? 중학(中學)·대학출신이 일 년에도 수백수천을 헤아릴 만큼 졸업자가 나오는데 무슨 연고로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곧 미더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인심이 부화경조(浮華輕佻)하여 신의가 없음을 경탄하는 것이며, 즉 심복이 될 만한 인재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어찌 통탄할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인 생활과 조선인 생활을 비판한다면 일본인은 신앙심이 풍부하여 불전(佛前)이라든지 신사(神社)라든지 반드시 묵도배례(默禱拜禮)하는 등에 경신하는 마음이 많고 고로 일상 긴장한 태도로 지내어감으로 물심 양방면에 가히 일러 완전무결한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 조선인은 신앙심이라 함은 추호라도 생각지 않고 남은 관습에 유교라 하여도 그에 삼강오륜(三綱五倫), 인, 의, 예, 지, 신 오행(五行)등을 고수한다 하나 아무 효력이 없고 그 역시 소부분이요, 대례(大禮)로 보아 허명무실(虛名無實)이며 온전히 종교적 신앙심이 없어서 아무 목적이 없으며 단결심이란 것은 더구나 없고 오인(吾人) 생활이란 가위(可謂) 사상누각(沙上樓閣)적 생활을 눈물 섞어 계속하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홍수로 인하여 모래는 흐르고 누각은 파괴되어 망망대해로, 다만 누각에 체목(體木)만이 떠나 갈 것을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곧 돛이 있고 살대가 있는 완전한 배를 타기로 하십시오. 방금 물심양방면에 비상지추(非常之秋)를 당한 우리들은 불전신전(佛前神前)으로 나가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저의 마음으로 말씀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모두 불전(佛前)으로 인도하고 싶으나, 그야 하필 불교이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신앙의 생활만 계속한다면 불교도 불가할 것 없으며 예수교(耶穌教)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무슨 교이든지 상관없이 철저한 신념하에서 그에 앞으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기도하고 경모하십시오. 그리하면 무형 무색한 생활을 하는 중에 반드시 감동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어느 아이들이 고의로 때리면 이 어린 아이가 아무도 없으나 '아'하고 소리를 외치기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 여느 아이들은 혼날까봐 뛰어 달아납니다. 이와 같이 그 아이는 아무도 없으나 큰 힘을 얻는 것과 같이 역경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사람이 고립을 하지 말고 일치단결하여 외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내적(內的)으로는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또한 예수에 '아멘'을 부를지라도 신앙하여 경모하는 반면에는 무형의 복록(福祿)을 받을 것이며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학술이 없으면 종교가 없을 것이요, 또 나라도 없을 것이요, 나라가 없으면 해신(海神)·강신(江神)·산신(山神)이란 것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즉 신앙심에 몰두하면 무서운 것이 없고 몸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간 어느 야만국이라고 하더라도 종교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聖)을 구하는 까닭입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월(日月)이 없는 것이요 학문처럼 한계(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과학을 연구함에 합리적이니 불합리적이니 하지마는 부모를 경모하고 신(信)을 경모하고 령(靈)을 존경하는 것은 부지중(不知中) 유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몸의 편함은 비할 곳이 없습니다. (다완(茶碗)에 물을 가리키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이것은 물인데 차가운지 뜨거운지는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보아야 압니다. (한 모금 마시고) 이것은 찬물입니다. 이것을 먹어본 고로 냉수인줄 알았습니다. 그런 고로 이와 같이 여러분은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그 진리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는 불





전(佛前)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코자 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불교인인 고로 될 수 있으면 그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하오나. 유교도 가(可)할 것이며 예수교도 가(可)할 것입니다. 하여간 행복에 도를 찾고 극락에 가운데서 지내시려면 정신적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은 모두 극락으로 대할 것입니다.

세상락(世上樂), 출세락(出世樂), 물질적 환락 등 이 세상에는 낙(樂)이 약간만큼도 안 씁니다. 예를 들면 주사(酒肆)·청루(靑樓)에서 아름다운 기녀와 함께 혹 무용(舞踊)도 하고 가요도 부르면서 여흥을 하여 보십시오. 그것도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흥을 할 때에는 유양(愉快)한 감을 느끼고 극락과 같을지나 그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실증이날 것이요,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나 한 그릇으로써 충족(充腹)이 되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심상(尋常)하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금전옥답(金田玉沓)이 모두 근심할 재료이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날 그날을 지나가는 자들은 별반 심적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금만가(金滿家)<sup>6)</sup>란 자들은 그 재물을 지속함에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만한 쓰라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누만금(累萬金)으로 상업을 경영하는 화신상회(和信商會)에 화재사건, 또는 조선극장에 화재사건 등을 회고하여 볼지라도 한 조그마한 과자상점에 불장난 혹은 실화(失火)로 누거만(累巨萬)의 귀중물품 등이 순식간에 재로 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를 본다면 물질이란 것은 부운(浮雲)과 같습니다. 욕심을 내며는 낼수록 근심이요, 걱정입니다.

서양에서 어느 부인이 무용장에 초대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무용장에 가는 습관이 기려(奇麗)한 의복과 보석 지환(指環)이라든지 완환(腕環)이라든지 많은 장신구로 몸을 장식하여 춤을 추러간다는 것보다도 남에게 사랑을 하러 가는 것이 상례(常例)였습시다.

그러나 이 부인은 빈곤한 관계상 백방으로 생각하였으나 좋은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심적 고통을 무한히 느낀 다음에 최후로 인근에 있는 백작부인에게 빌리기로 작정하고 곧 달려가서 그 연유를 말하였습시다. 그리한즉 그 부인이 앙락(快樂)을 하면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작부인에 의복 장신복 등으로 훌륭하게 차리고 무용장에 출석하여 본즉 수백에 남녀군중이 모였기 때문에 기쁘게 뛰어 들어가서 몇 시간쯤 뛰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행락(行樂)에 취하였습시다. 그리고 나서 보니 그 많은 군중은 모두 갔음에 자기도 돌아가려고 한 즉 그 좋은 보석·지환·완환이 간곳 모르게 없어지고 의복이 찢어지고 더러운 때가 묻고 하였습시다. 여러분! 이런 때를 당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부인은 낙심 천만하였습시다. 무슨 면목으로 백작부인을 대할까 하는 등에 여러 가지의 근심이 생겼습시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목을 내놓고 영영 울었습시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까는 기쁘게 춤추며 노래 부르더니 왜 우느냐고 그 연유를 물었습시다. 그런 사정을 말한즉 할 수 없는 일이니 가서 자세히 말이나 하라고 하였습시다.

그렇습시다. 물질 환락을 도모한 후에는 반드시 여환이 있는 것은 천지당연한 일입니다. 그 부인은 할 수 없이 백작부인에게 가서 사과 하였습시다. 용서하여 달라고 한즉 백작부인이 말하기를 그런 곳은 본래 난잡 무쌍한 곳임에 그대와 같은 처지가 되기 쉽다는 것을 잘 아는 고로 내가 가짜 보석지환 등을

6) 부자들을 일컬음.





빌려 준 것이라 몇 푼 되지 않으니 아무 염려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인은 남에게 큰 손(損)을 보이지 아니하였음에 조금 안심은 되나 하여간 면목이 없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되풀이 하여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마는 요정에서 뛰고 노는 것을 유일무이한 낙으로 생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순간에 낙이요 찰나에 즐거움입니다. 지난 후에는 정신적 고통이 그 얼마나 되며 육체적 피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진시황(秦始皇)이 육국(六國)을 통일하여 천하가 되매 이목(耳目)에 소호(所好)와 심지(心志)에 소락(所樂)을 다하고 저 만 리의 장성을 축조하여 외구(外寇)를 배척하며 안신지축(安身之策)을 강구하고 아방궁이란 궁을 신축(新築)하였는데 그 내부에는 50척(尺)이나 되는 기(旗)를 능히 세울 수 있는 굉장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후 전란이 일어나 불을 질렀는데, 삼개월간을 탔다 하니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건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지에 낙을 취하였으며 더욱이 육체 그대로 장생불사하고 서시(徐市)로 하여금 삼신산(三神山)(즉, 봉래산(蓬萊山)·지리산(智異山)·한라산(漢拏山))에 불사장생지약을 구하였으나 결국은 물질적 욕망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여산(驢山)에 묻혔다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본다면 차세에서 낙을 취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즉 불생불멸의 도(道)를 구함이라. 다만 불생불로하는 도가 있다면 그는 즉 영원무궁의 낙일 것입니다. 근심이 없고 병이 없는 심지(心志)에 만족을 취한다고 하면 이것은 즉 불생불로의 도에 가까울 것이나 그 역시 진리가 없는 고로 실현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즉 심령의 생활인 고로 영원불멸의 도입니다. 이는 마치 여기서 경성을 간다면, 예전에는 보행으로 하루에 오십 리나 혹은 칠십 리나 걸어서 며칠 걸려 갔으나 지금은 차가 있어서 몇 시간이면 가는 것과 같이 심령도 또한 우리 육체를 잠깐 쉬어 갈 것을 알고 이몸 저몸으로 옮겨 가며 혹은 30년, 50년, 과하면 100년이란 어느 국한된 기간 내에 육체에 실려 머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진리는 알고자 하여도 능히 알길 없습니다. 만일에 알고자 한다면 종교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모를 것입니다.

옛적에 팽조(彭祖)라는 자는 팔백세를 살았다는 말이 있고 동방삭(東方朔)이라는 사람은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등 약 1만 8천세를 살았다 하나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리 장수를 하였다 하나 그도 역시 영원한 생에 목적을 도달치 못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불문(佛門)에는 불가(佛家) 남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는 분이 계신데 남무(南無)는 귀의한다는 한다는 뜻이요, 아미타(阿彌陀)는 인도언(印度言)이요, 불(佛)은 즉, 각성(覺醒)한다는 뜻입니다. 인도언은 곧 무량수(無量壽)·무량광(無量光)이요, 무량수는 상천지만건(上天地萬件)이 모두 없어진다 할지라도 심령만은 영원히 존재하여 불멸할 것입니다. 무량광은 이 천지에 영원히 빛나고자 할 것입니다. 즉 심수(心壽)와 심광(心光)을 깨달을 자! 부처님을 경모하면 영원한 생을 구하여 무량수·무량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금후 수 만년을 경과할 지라도 심령이 있을 것이며 심령의 수명이 이와 같이 장구하여 영원불멸한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천지 일월삼라만상이 영구불변하며 태양이 한번 빛을 내매 수만리를 비추니 그 어찌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주에 집을 삼고 자연에 몸을 던지어 영원히 생활을 못하고 불과 50년이나 60년 밖에 못 사는 가련한 이 일생을 생각하면 한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나의 수명을 해석





하면 육체적 생활은 즉 50이나 60을 살 수 있지만은 결국 현실에 귀착하여 괴로울 뿐이요, 심수(心壽)는 수천 년 수만 년에 그 빛 가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영생영멸일 것이니 무량수·무량광을 빌어 경모불대(敬慕不怠)하면 자연(自然)自得(自得)하여 영원한 극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취정계(三聚淨戒)라는 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 섭률의계(攝律儀戒)

즉 자각하여 규율을 지키며 포교한다는 것인데 육조대사(六祖大師) 말씀이 ‘심지무비자성계(心地無非自性戒)’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자각하여 도덕규율을 고수한다는 뜻입니다.

2. 섭선법계(攝善法戒)

차세(此世)에 선행이란 전부 확수(確守)하라는 뜻인데 심지무란(心地無亂)이면 자성정(自性定)이라는 즉, 부처님이 활동하시는 종교에 근본정신입니다.

3. 섭중생계(攝衆生戒)

이것은 남에게 이익을 주라는 뜻인데, 대저에 몸이 비록 고통을 당하더라도 남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지계(至戒)입니다.

즉, 이상 삼취(三聚)는 생의 지혜이니 무량수·무량광을 도득(圖得)하여 지상에 자연히 극락을 건설할 수가 있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환락을 같이 하리니 이것이 즉 불교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동정(理解同情)하고 실천궁행(實踐躬行)하여 종교를 신앙한다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모 신앙하여 일가월증(日加月增)한다면 흡사 우로(雨露)중에 행하는 것 같이 처음에는 젖는 줄 모르다가 결국은 젖으며 차가워지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이 선도(善道)를 행하여 일구월심(日久月深)하면 끝내는 위선자(爲善者)로 대(代)하여 심지(心志)가 안위(安慰)되고 정신이 귀환하여 환락의 일생을 얻을 것입니다.

고로 본도(本道)에서는 정신적 방면으로 불교 신교 또는 신사 등을 통하여 불전에 배례경모하고 신교(神敎)에 묵도(默禱)며 신사(神社)에 참배하는 등, 자가 건설에 근본적 정신을 주고 국민 도덕적 의무를 명징(明徵)함에 치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조선에 처음 들어오기는 지금으로부터 1천 5,600년 전이었습니다만 근세에 이르러 온전히 중면상태(重眠狀態)에 있었던 고로 지금으로부터 중생을 위함에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하여 불교로 이를 환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방면에는 각 향교직원(鄕敎直員)을 본도(本道) 촉탁(囑託)으로 임명하여 유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등의 도리를 주입하는 등 물심양방면에 비상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변변치 못한 저는 정신적 방면으로 심전개발을 위하여 신앙에 종자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가는 것이오니 이 종자가 날날이 결함 없이 열매를 맺으시기만 바라오며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2. 보은감사와 자립정신(1936년 7월 21일, 영월읍내에서 강연)

지금부터 심전개발에 대한 강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물질 방면과 심적 방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즉, 심적방면 즉 정신생활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자연히 물질방면에 대하여도 많이 듣고 보고 연구하나 심(心)에 대한 문제는 연구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보국감사(報國感謝)와 자주정신(自主精神)이란 문제로 정신생활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1932년 이래 농촌진흥자력갱생문제가 일어나 약 5년간 당국의 활동에 의하여 경제문제에 있어서 큰 업적(業績)이 나타나 있음은 실로 기쁜 현상이나 그 반면에는 정신문제를 등한시 하는 까닭에 불미한 현상이 적지 아니함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작년부터 당국에서 심전개발문제를 제창하고 이 방면에 지도를 가(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물질은 본능적으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방면에 대한 요구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결함이 있습니다. 인생은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결합하여 있는 만큼 물질양방면으로 지도하는 것이 인간생활에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질문제만 생각하고 정신생활 즉 윤리·의리·인정·도덕 등 모든 문제를 냉각(冷却)하게 생각하여 등한시함으로 인간사회에는 온갖 불의의 죄악 된 일이 생기게 되며 사회문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만한 인간생활을 서약하려면 물질갱생과 아울러 심전갱생을 실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전(目前)에 땅만 보지 말고 인생의 원대한 이상이 무엇이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인생의 정체가 무엇이며 인생의 밭아 갈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며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람은 모이면 그저 이야기가 돈 이야기뿐입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벌어야 하고 그저 돈돈하고 돈 요구하고 몰두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대 이상은 아닙니다. 인생이 최후의 운명의 때를 맞을 때에는 돈이 인생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리오, 돈이 일각이라도 우리 생명을 더 연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지위·권세가 있은들 그것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결국 인생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죽음에 들어서면 빈부귀천이 분별이 없을 것입니다. 다소 돈의 유무에 의하여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혹 조객(弔客)의 다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한 때에 한 그릇 밥이면 그만 일 것이요, 아무리 고루거각(高樓巨閣)이 있을 지라도 결국 한 평미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고 없는 것이 단지 그 집을 보고 좋다고 할 때에는 그저 기분이 좀 나을 뿐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돈도 다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서 돈을 활용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무(本務)일 것입니다. 즉 인생은 죽고 맙니다. 왕후장상·빈부귀천의 구별이 없이 죽고 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 하면, 혹 말하기를 먹기 위하여 일을 한다 합니다. 왜 먹느냐 하면 살기 위하여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무엇 합니까. 또 사람이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사람이 오래 살려고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죽게 될 때에는 입을 벌리고 약을 퍼 넣지만 결국은 죽고 맙니다. 혹 기계류 등에 있어서 가령 자동차나 기차 같은 것은 휘발유나 석탄이 떨어지면 운전을 정지하여가지고 다시 기름을 넣고 석탄을 넣으면 활동을 개시하지만 사람은 결국 한정 있는 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기 위한 삶이 인생의 정체(正體)한 논법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논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보다 세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인생의 정체인 것입니다. 예수는 33년간이라





는 짧은 생애를 가졌지만 세상을 위하여 활동함으로 천추만대에 그 이름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지라도 세상을 위하여 아무 활동이 없으면 그 삶은 아무 의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동양의 팡조(彭祖)는 말하길 천년을 살았다 하지만 그 장수(長壽)가 우리 사회에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공자(孔子)의 제자 안자(顏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요사(夭死)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가 초인하고 인격이 고상함으로 공자는 그 제자의 요사를 펍 슬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전 성현 말씀에도 '조문도(朝聞道)면 석사(夕死)라도 가의(可矣)'라고 하였습니다. 즉 짧게 살더라도 가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면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석가세존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약인(若人)이 수백세(壽百歲)나 부지대도의(不知大道義)면 부여생일일(不如生一日)하여 학성불법요(學性佛法要)'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백세를 살지라도 도의(道義)를 모르고 살면 하루를 살고 불법을 배우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의(義)를 위하여 선(善)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것이 토지나 집이나 돈에 집착하여 생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위하여 노력하다가 무의의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그저 자기의 목숨을 일각이라도 연장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불경에 '시일기기(是日既已), 과명즉수역감(過命卽隨亦滅), 비여어소수(比如魚少水), 어사하 유락(於斯何有樂)'이라 하였습니다. 즉 날이 감에 따라 우리의 명이 줄어가는 것이 비유하건데 물고기가 물이 적어지는 줄 모르고 그 가운데서 낙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옛 성현이 '척벽비실(尺璧非實)이요 촌음시경(寸陰是競)'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도 물질만을 위하여 생활 하는 것보다는 촌음(寸陰)을 아껴 이롭게 활동할 것이외다.

어떠한 사람은 생활하기를 사람은 수명이 짧지만 신선이 되면 장수한다고 하여서 그 법을 연구하는 자도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산중 벽거(僻居)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실행해보는 자도 있는 듯 하나 신선이 되어 장수만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떠한 곳에 죽기 싫어하는 자가 네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여 결국은 신선이 되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물유한명(物有限命)으로 그들에게도 죽을 때가 왔다. 그들은 죽음의 사자(使者) 손을 벗어나기 위하여 비공비해중비입암시간(非空非海中非入岩市間) 無有地方所脫(不受報)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혹은 해중에 혹은 공중에 혹은 바위 틈에 혹은 시중에서 숨어서 죽음을 면하고자 하나 때가 오기에 그 숨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 진시황도 종심소욕(從心所欲)하여 온갖 영화를 누리고 천수만대 장생불사하려고 동남(童男)동녀(童女) 500인을 불사약을 구하러 보냈지만 급기야 죽고 말았으며, 한무제도 승로반(承露盤)에 이슬을 받아먹고 죽지 아니하려 하였지만 그도 또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죽기를 싫어하지만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상부상조하면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활동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상은 상부상조하며 남을 위하여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여도 그것을 활용치 못하면 오히려 자손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는 일이 많으며, 또 오래가지고 있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경주(慶州)에 최(崔)부자라면 펍 유명한 사람으로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는 구대(九





대) 진사(進士)요, 13대 부자로 조선에서는 참으로 드물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부가 어찌 하여 오래갔느냐 하면 그 이면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최초로 얼마만큼 재산을 모았는데 그 후의 그 자손에게 말하기를 소작인에게 추수를 할 때에 절대로 더 받지 말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그 해마다 땅을 더 사기는 사도 소작료는 더 수입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해마다소작료를 경감(輕減)시켜주며 소작인을 애호(愛護)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소작인은 참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지주를 잘되기를 밤낮으로 축원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주가 망하지 않아야 자기들은 편하게 살겠으므로 늘 지주가 좋은 자손이 나면 잘되기를 자기네 잘되기보다 더 축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지라도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도 운이 다하였던지 그 자손 중에 일본 가서 대학에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재산을 정리하자고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 노친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니다. 만일 우리 재산을 정리하는 날이면 우리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죽은 후에 그는 결국 그 재산을 정리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부터 그 재산이 차츰 줄게 되어서 아주 없어지다시피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웅덩이에 나무가 빠졌을 때 그것을 건지려면 물을 자꾸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빙 돌아서 건지려는 쪽으로 오지만은 그와 반대로 물을 자꾸 잡아 당기면 그 나무는 점점 멀리 나가게 되는 것이 마치 우주의 물리법칙에 의하여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도덕생활을 힘쓰며 남을 돕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심전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즉 심전개발의 골자 의(意)·의(義)·목적(目的)·출처(出處)를 말하고자 합니다.

불경(佛經) 잡아함경(雜阿含經) 제4권에 석가세존이 통법(統法)하신 가운데 심전경작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삼천년 전에 석가세존이 아난(阿難)이라 하는 제자를 데리고 걸식을 하시면서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사람 만나는 대로 아무쪼록 사람은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떠한 농촌을 지나가시는데 그 곳에서는 많은 농부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점심때가 되어서 마침 일하는 것을 끝내고 다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다 심히 배가 고프시므로 여러 농부를 보시고 내가 심히 시장하니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밥 한술씩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중에 있던 혈기가 있는 한 청년이 썩 나서며 말하기를 “밥은 우리 먹을 것이지 당신 줄 거 아니니 줄 수 없소. 세상일이 심지 않는 데 거뭇이 없지 않소. 우리는 이와 같이 힘써서 일을 하여 먹을 것을 만들지 않소. 당신은 그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남이 땀 흘리고 애써서 농사한 것으로 한 밥을 거저 줄 수가 없으니 어서 가시오.”하면서 심히 냉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당신 말씀이 옳소. 그러나 나도 당신과 같은 농부요. 그러니 농부가 밥 먹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 나도 상당히 밥을 먹을 권리가 있는 사람ियो.” 하시니 그 청년이 더욱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를 “당신이 농부라 하지만 그 말은 아주 거짓말ियो, 당신은 일찍이 궁중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궁중을 탈출하여 설산(雪山)에서 육년 고행을 하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어찌 당신이 팽이로 땅을 파보았으며, 언제 무슨 일을 해보았소.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왕설래 하게 되매 그 주위에 있던 군중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나를 농부가 아니라 하지만은 내가 농부인 것을 밝혀 말씀하겠습니다. 인생은 육체와 정신 두 가지가 합하여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농사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며, 정신을 위하여도 또한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란 가족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 것 같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 마음이란 것이 있어서 정신상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지(知)·정(情)·의(意) 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다른 것은 곧 알려고 하는 그 것입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늘 알고자 노력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이것은 무엇이요. 저것은 무엇이요. 하고 자꾸 묻습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활동입니다. 곧 마음은 진(眞) 곧 진리를 요구합니다. 또 마음은 곧 정(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상쾌하고 좋아합니다. 좋은 그림을 봄으로 배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곧 사람의 희로애락이 곧 정의 활동입니다. 또 마음은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 의의가 있음으로 미(美)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밭, 즉 심전을 보면 모두 다 잡초가 무성하고 거칠어져 있습니다.

이 심전이 거칠어져 있음으로 사람들은 서로 반목·질시·불충·불효·살인·강도·음란 등 온갖 불선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자면 곧, 심전의 황폐한 것을 다시 경작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수전(水田)이나 화전(火田)을 경작하는 농부가 아니요 곧 심전의 황폐한 것을 경작하는 농부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세존의 심전경작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字), 고행행위시우(苦行爲時雨), 지혜위리액(智慧爲犁鞭),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轅)” 다시 말하면 심전을 경작하는 데는 신심으로 종자를 심고 고행으로 비를 삼고 지혜로 벼삭과 명예를 삼고 참괴심으로 수레채를 삼는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더 자세히 말씀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첫째, 신심(信心)이 있어야 합니다.

유교(儒敎)에도 인생생활의 중심도덕인 오륜(五倫)을 말할 때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라 하였습니다. 그 오행 중에도 곧 신(信)이 토대가 되어있습니다.

유교에서는 효는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 하였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신은 만행지본(萬行之本)이라 하였습니다. 신이 없는 사람은 마치 고루거각(高樓巨閣)을 모래밭 위에 세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누각이라도 토대가 튼튼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으로서 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사이에는 매년 각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취직을 하지 못하여 짙짙 매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결국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 신용할 만한 사람, 어떠한 일에 신용하고 맡길만한 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곧 심전개발입니다.

불경에는 ‘약인무신심(若人無信心), 여승무지선(如乘無之船) 역여무전마(亦如無馭馬) 장야시경참(長夜是更甞)’이라 하였습니다. 즉 사람으로서 신심이 없으면 사공 없는 배를 탄 것과 마부 없는 말을 탄 것과 같고 어두운 구렁에 빠진 사람 같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신심이 있음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꾸어 주어도 그 사람이 기한(期限)한 날에는 본전과 이자를 가져다주려니 하는 믿음으로 꾸어줍니다. 그 사람이 내 돈을 쓴 후에는 갚다 주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찌 꾸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행





할 때 자동차를 탄다 합시다. 그것도 이 차를 타면 이 차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려니 하는 믿음이 있으므로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차가 중간에서 전복을 하지 않을까. 운전수가 목적지로 갈까 하고 의심이 있으면 어찌 타겠습니까. 농부나 축업(畜業)이나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합니다. 즉 인간생활은 신을 근본으로도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고 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고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심전개발은 곧 보은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남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남의 은혜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불경에는 사람마다 ‘오종대은(五種大恩)’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국왕은(國王恩), 부모은(父母恩), 삼보은(三寶恩), 중생은(衆生恩 : 사회은(社會恩)), 봉우은(朋友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침안면(高枕安眠)<sup>7)</sup>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 국왕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충성으로써 국왕의 은혜를 갚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는 이을시다. 부모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은 일구난설(一口難設)이외다. 예전에 기로국(棄老國)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사람이 늙으면 쓸데없다, 밥이나 먹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냄으로 세상의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여 결국 그 나라에서는 사람이 늙으면 갖다 버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유명한 신하가 있었는데 마침 그 아버지가 늙어서 내버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길러주고 애써주신 그 부모를 살아있는 동안 도저히 내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무한히 애를 썼습니다. 부모를 버리자 하니 인정상 할 수 없고 아니 버리자 하니 국법을 어기는 것이라 만일 발각되는 날이면 그 집은 큰 형벌을 받을 터이니 참으로 기세양난(其勢兩難)<sup>8)</sup>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버릴 수 없어서 자기 집 마루 밑에 지하실 즉 굴을 깊이 파고 그 속에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침저녁 그 속에서 음식을 갖다가 대접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기를 얼마 동안 지나려니까 한번은 나라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웃나라에 강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기로국을 업신여기고 그 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 나라에 대하여 무슨 트집을 얻기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문제를 대답치 못하면 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즉 문제라는 것은 이리하였습니다. 똑같은 어미 말과 새끼 말 두필을 보내고 어느 것이 어미이며 어느 것이 새끼인 것을 알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알아보려고 애썼으나 결국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께서는 신하에게 명하여 대답하도록 하라고 엄명이 내렸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마침 기한은 절박해 오나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효심 많은 이 신하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무한히 애를 쓰다가 급기야 병이 다 생겼습니다. 무한히 애를 쓴 나머지 그는 어려운 문제를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묻기로 작정하고 자기 집 굴속에 있는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노인이 그것은 매우 알기 쉬운 것이다, 그 말에게 먹을 것을 주어보면 새끼 말이 먼저 집어먹고 어미 말은

7) 베개를 높이 하여 편안히 잔다는 뜻. 근심 없이 편안히 지낸다는 의미.

8) 진퇴양난과 같은 말.





양보하는 태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그와 같이 해본 결과 쉽게 어미와 새끼 말을 알아서 그 나라로 해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나라에서는 그 문제는 알았지만 또 한 문제를 해답 하라고 이번에는 꼬끼리 한 마리를 보내며 그 중량을 알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또 그 문제를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또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하는 또 문제를 그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그 아버지는 또 쉽게 그 문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꼬끼리를 큰 배에 싣고 물이 잠긴 데다가 금을 그어 놓았다가 다시 그 배에다 돌을 담아 보아 전에 그은 금까지 배가 잠기거든 그 돌을 꺼내어 달아서 합하면 그 꼬끼리에 무게는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신하는 그와 같이 임금께 아뢰어서 그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되어 이웃나라에 해답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나라에서는 또 난문제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아래 위가 똑같이 깎아서 보내고 이 나무에 뿌리 쪽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문제도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문제도 또 그 신하에게 물어오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하는 또 아버지에게 물어 본 결과 그 나무를 물에 띄워 보면 위쪽이 좀 무거워서 물에 더 잠긴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문제도 해결되어, 이웃나라에 해답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이웃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비록 적으나 이 나라에 이인(異人)이 있으니 감히 칠 수 없다 하여 그만 정벌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기로국에서는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답한 결과로 위험을 면하게 된 것은 오직 그 신하의 공이라 하여 그 신하를 크게 상을 주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신하가 이번 일에 저를 상주라고 하심에 대하여 단지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저는 많은 상을 주심보다 낫겠습니다라고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임금님은 그러면 너의 소원을 말하라 하므로 신하는 자기가 국법을 어기고 자기 아버지를 감춘 것과 이번 난문제를 자기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가 알아냈다는 것과 또 우리나라에서 이 부모가 늙으면 버리는 법을 없애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임금도 크게 깨닫고 사람이 늙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요, 과연 오랜 경험과 체험이 있어서 오히려 나라의 큰 보패(寶貝)가 된다 하여 곧 신하의 청을 들어 늙은이를 버리는 법을 폐지하였으며 또 그 신하의 효성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네 말에 오비이성(吾非以聖)이요 경사구의(經事久矣)라 하였습니다. 그 늙은이가 성인이 아니라 오랜 경험이 있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또 옛날에 지나(支那)<sup>9)</sup>에 원곡(元穀)이란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이 늙으면 갖다 버리는 풍속이 있었는데 마침 원곡의 아버지 되는 이는 크게 불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곡의 할아버지 되는 이가 있었는데 원곡의 부친이 말하기를 이야 원곡아 너의 할아버지가 이미 늙어서 쓸데없으니 갖다버리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원곡이는 백방으로도 말하여 어찌 부모를 늙었다고 내버릴 수 있느냐고 말했으나 원곡의 아버지는 구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원곡의 부자가 늙은이를 거적에 얹혀서 둘러메고 먼 산으로 가서 그곳에 내려버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원곡이는 그 거적을 가지고 둘러 메고 오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원곡의 아버지가 그것은 무엇 하려고 가져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원곡이는 네, 꼭 한번 쓸 일이 있으니 가져가겠다고 하매 그런 것 무엇에 쓰느냐 버리고 가자고 하매 원곡이 정색하여 하는

9) 중국을 뜻함.





말이 ‘네 저는 이 거적을 갖다 두었다가 아버지께서 늙으면 할아버지를 아버지와 제가 메다가 내버린 것 같이 제 아들과 제가 내어 버리겠습니다. 그때에 꼭 한번 쓰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며 그제야 그 원곡의 아버지는 크게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 버리고 가려던 노인을 도로 메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삼보(三寶)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삼보란 불법(佛法), 승(僧)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佛)은 곧 각성(覺聖)이란 말입니다. 법(法)은 진리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있으므로 삼니다. 승(僧)은 곧 성단(聖團) 혹은 화합단체(和合團體)란 말입니다. 즉 선남선녀, 신남신녀(信男信女)가 거룩하게 모인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교에서 승(僧)을 혹 치문(緇門)이라고도 합니다.

‘삭발염의일치(削髮染衣日縑)’라 하며 ‘입유수도일문(入由修道日門)’이라고 합니다. 즉 머리를 깎고 옷에 물을 들여 입으며 산에 들어가 도를 닦는 사람은 곧 승(僧)이란 말입니다. 근래 당국에서 장려함으로 모두 단발을 하고 염색 옷을 다 입게 되었느니 결국은 다 승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전만 개발하면 곧 완전한 승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생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게 되는데도 그곳에는 농부의 큰 노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옷을 입는데도 무수한 여공의 노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감에는 세상의 은혜, 곧 사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이면에는 여러 과학자의 숨은 공로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큼니다.

다음으로는 봉우(朋友)입니다.

옛글에 ‘생아자(生我自)는 부모요 성아자(成我自)는 봉우(朋友)라’ 하였습니다. 즉 나를 낳기는 부모지만 나를 잘되고 못되게 하는 것은 봉우의 힘이다 한 것입니다. 사람은 봉우의 은혜가 큼니다. ‘익자삼우(益者三友)요, 손자삼우(損者三友)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봉우의 선불선(善不善)에 의하여 내 인격 완성의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이 이상 오종(五種)의 은혜를 입고 삼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갚아야 하겠는데 이 은혜를 갚으면 먼저 자립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립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과연 보은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아들도 딸도 없고 다만 조카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조카는 그 백부의 재산만을 생각하고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생활은 심히 어렵게 되어서 그 부자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하였더니 그 부자는 이 돈을 내가 쓸 것이니 너 줄 것은 없다고 거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애를 썼으니 거저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도 돈이 쓰고 싶거든 부지런히 일하여 벌라고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그러면 돈 몇 천 원만 주시면 장사를 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오냐 내가 너의 요구하는 돈을 줄 터인데 그 대신에 네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달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매, 내가 재산을 주는 대신 너는 나에게 너의 팔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늙어서 편히 살기 위하여 너와 같이 젊고 팔뚝과 다리에 힘이 있을 때 힘써 벌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재산은 있으나 힘이 없으니 너의 팔뚝과 다리가 부럽다. 그러니 내 재산과 팔이나 다리와 바꾸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크





게 분발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부자는 그 청년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자립정신이 없는 청년에게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자립정신이 있는 후에야 보은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심전개발의 힘을 쓸 것입니다. 국가사업이 모두다 먼저 심전개발을 한 후에야 만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락)

### 3. 심전개발과 전미개오(轉迷開悟)(1937년 2월 28일, 양구읍내에서)

(상략)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항해 중에 사십 여 명이 한 배에 타고 가다가 별안간 폭풍을 만나 제각기 신심 있는 대로 용왕님, 물각시, 하나님, 천신님, 지신(地神)님 찾는데 한 사람은 어서 이 배가 앞서지소서, 어서 이 배가 복선(覆船)이 되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으며 천행만고 겨우 목적지에 배를 대고, 여러 사람이 일제히 먼저 그 사람을 보고 그런 도척(盜拓)같은 심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책(責)한즉 그는 이 세상 일이 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없으니 반대로 빌었기에 무사했다는 우스운 삽화(挿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대하여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시길 “성체(聖諦: 苦·集滅·道諦)를 밝아서 불생불멸의 진리, 곧 영원한 생명을 깨달으셨는데 팔정도(八正道)는 정견(正見)·정사(正思)·정증(正證)·정업(正業)·정명(正命)·정진(正進)·정념(正念)·정정(正定)이올시다. 어떤 때 세존께서는 이 진리를 널리 전파하실 때 넓은 광야에서 일꾼들을 부쳐 일하는 들에 당(當)하셨습니다. 마침 이때는 점심때라 이 귀퉁이, 저 귀퉁이에서 모두 다 점심을 차려 놓고 먹으니 요 별은 마치 밥벌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아난(阿難)이라는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가 한 곳에 한 삼십 명 가량 모이 곳으로 가서서 주종(主從) 두 사람의 점심을 구하니 그 가운데 청년은 ‘이 밥은 일하고 농사짓는 이가 먹을 것이며 도(道)고 무엇이고 떠드는 이는 줄밥이 없다’하며 거절하므로 세존께서는 나 역시 농사짓는 사람이라 한즉, 그 청년은 석가세존을 손과 발과 손바닥 모두 뒤지며 보고는 농사짓는 이가 이와 같이 분결같이 할 수 있느냐고 도리어 무수한 욕설을 가했습니다.

설왕설래하여 왈자하고 떠들게 되니 이곳저곳에서는 수백 명의 농부가 모였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높은 둔덕에 올라서시고 세존의 농사지으시는 사실을 변명코자 하여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만 있고 정신이 없다면 큰 혹 덩어리나 태가 자라서 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옷 입혀 놓은 허수아비와 다를 것이 없다. 그와 반대로 혼(魂)만 있다면 육체가 없음에 유령이나 도깨비에 지나지 않을 터인즉 사람은 혼과 육체가 완전히 병행하여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먹여 살찌는 것이 흙에 곡식을 심는 목적이지만 옷 입겠다고 옷 입히고, 먹고 싶다고 먹이는 이것은 마음이라, 마음들이 너무도 배고프매 나는 심전(心田)의 경작을 하는 농부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마음에는 의(意)·정(情)·의(意)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 육신으로는 배부르나 마음이 배고프매 자꾸 묻는 것인데 나중에는 어른 모르는 것까지 물으니 어린 아이는 장래 잘 되려고 현인·철인 되려고 묻는데 어른으로서는 모르니까 감감하다고, 따귀를 때리는 것입니







다. 이리므로 그들 세계에 마음 배를 불리려면 신화(神話)·동설(童說)이 필요한 것이올시다. 그 다음 정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의복도 색옷, 떡 같은 것도 길기도 하고 동그랗기도 하고 모도 나고 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모두 그 세계에는 좋아하는 것이올시다. 어린아이가 곧 노래를 한다, 벽에 그림을 짝 짝 그린다, 벽을 두드린다 하는 것이 어른 보기에는 귀 아프고, 지저분하다고 차라리 그 방법을 선도하여 예술을 향상시키지는 않고 도리어 푸드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조선백성들은 너무도 마음이 배고픈 것이올시다. 그 고픈 것을 채워줄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배고파서 자녀학교 입학에 머리를 싸매고 달려드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배고픈 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이, 열 식구를 먹이려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 농사를 짓지만 부처님은 밤낮으로 못 쉬고 봄에도 여름·겨울에도 심지어 꿈까지도 그 꿈으로 심전농사를 지으려 하니 여러 농부들 가운데 나보다 더 큰 농사를 짓고 수천수만 명 식솔을 먹이는 이가 있거든 손을 들고 나오라 하니 그 많은 군중이 모두 법열(法悅)이 되어 귀도(歸道)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심전개발은 여기서 난 것인바. 부처님 농사짓는 방법 가운데는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子), 고행위시우(苦行爲時雨), 지혜위리액(智慧爲犁鞭),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轆)’<sup>10)</sup>으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으니 신은 신념으로서 ‘약인무신심(若人無信心)이면 여승무주선(如乘無主船), 역여무어마(亦如無馭馬), 장야시갱참(長夜是坑塹)’<sup>11)</sup>이라.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모두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믿는 사람이 없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없기에 관청에, 사회에, 종교계에 모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윗감이 없고 며느리감이 없다는 것, 왜 없는 것이 아니라 꼭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앙심의 부활을 하자는 것, 곧 이것이 심전개발의 목적일 것입니다. ‘정고어소수(井枯魚少水), 상핍서침등(象逼鼠浸藤), 녘념수감(念念隨滅), 비흡안용보(鼻吸安龍保)’

여기서 ‘상핍서침등(象逼鼠浸藤)’에 대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래(古來), 인도의 어떤 지방에서는 사형죄인에게는 코끼리(象)로 하여금 독주를 잔뜩 먹인 다음에 코끼리로 하여금 죄인을 짓밟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때 한 죄인은 요행(僥倖)히 사형장을 탈출하여 도망하게 되었는데 술 취한 코끼리는 자꾸 따라오므로 죽을힘을 다해 광원평야로 달아나다 마다른 골목에서 깊은 우물이 있음을 보고 뛰어 들어가니 우물 속에는 마침 큰 등칠휘(藤)이 있으므로 매달려 얼마만큼 내려가 있으니 취한 코끼리가 위에와 내려다보고 있으며 우물 밑에는 독룡(毒龍) 큰 구렁이가 있고, 머리위에는 봉소(蜂窠)<sup>12)</sup>가 있어 수많은 벌떼가 날고 있고, 네 귀퉁이에는 독사가 있어 곧, 독설(毒舌)을 내밀고자 하며 설상가상으로 명맥을 걸고 있는 등칠휘를 흰쥐 검은 쥐가 나와서 각각각각 쏘고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어 맥이 탁 풀리고 기진맥진하여 입을 딱 벌리고 있노라니 벌이 꿀을 한 방울, 두 방울, 다섯 방울을

10) 심전을 경작하는 데는 신심으로 종자를 심고 고행으로 비를 삼고 지혜로 버섯과 명예를 삼고 참괴심으로 수레채를 삼는다는 뜻.  
 11) 사람으로서 신심이 없으면 사공 없는 배를 탄 것과 같고 마부 없는 말을 탄 것과 같고 어두운 구렁에 빠진 사람 같다는 뜻.  
 12) 벌집.





떨어뜨림으로 무서움 두려움 모두 다 잊고 저 꼴만 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비유한 것인데 넓은 벌판은 세상을 비한 것이고, 취한 코끼리는 무상(無常)을 말한 것이고, 우물은 집이며 독사는 땅·물·불·바람이고 독룡은 죽음이며 등침줄은 목숨인데 흰쥐 검은 쥐는 일월주야(日月晝夜)를 말한 것이고 봉(蜂)은 사념(邪念)을 비유한 것이며, 벌의 꿀 다섯 방울은 오욕락(五欲樂)인데, 재(財)·색(色)·식(食)·수면(睡眠)·명리(名利) 이것을 초월하여 진리를 구득(求得)하여 알 것입니다.

그러하며 ‘이욕염왕인옥쇄(利慾閻王引獄鎖), 정행타불접봉대(淨行陀佛接逢培), 쇠구입옥고천중(鎖拘入獄苦千種), 선상생연락만반(船上生蓮樂萬般),<sup>13)</sup> 선악지간(善惡之艱), 여영수형(如影隨形), 삼세인과(三世因果), 순환불실(循環不失), 선인선과(善因善果)는 악인악과(惡因惡果)’로서 부모의 책벌(責罰)을 자식이 받을 수 없고, 자식의 책벌을 부모가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이매 우리는 모름지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귀반타전신골(餓鬼反打前身骨)이요, 천신(天神) 헌화구세신(獻花舊歲身)이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별안간 벼락 치는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그 소리 나는 곳을 보니 키가 십척(尺)이요 손가락이 팔뚝 같은데 그 물건은 사람 죽은 송장을 가지고 치고 때리고 이를 악물고, 발기 뜯으니 무서운 가운데도 이 사람은 의심스럽게 생각 되는데 그 물건은 이 사람보고 말하기를 “너는 무엇이나?”, “나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그를 대하여 묻기를 “대체 무슨 관계로 그 사람을 그렇게 몹시 때리느냐? 배고프면 잡아먹고 원수가 졌으면 죽일 뿐이지, 왜 그리 몹시 구느냐?”하니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아귀인데 저 송장은 나 살았을 때 전신(前身)인바, 나는 전생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양이니 부디 인간에 가서는 여기서 보고 들은 대로 세상에 널리 퍼서 이 모양을 다시 밟는 자 없도록 하라”고 하며 그 송장이 평소에 원한을 펼 길이 없어서 생전에 전신을 두드리나,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보면서 얼마를 가다가 몇 고개 넘어가니 넓은 반석(盤石)에 금관(金棺)이 놓였고, 그 옆에 화려한 의복을 입은 사람이 즐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시체가 누구냐고 물은 즉, 나의 전신인데 그 몸이 살아생전에 적덕활인(積德活人)을 하여 이곳에 와서 천상에 옥황(玉皇)이 되어 전생의 그 고맙게 해준 혜택을 나는 수천 년 빌고 감사해도 그 은혜를 못다 갚겠기에 이렇게 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여하튼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몹시 하대하던 사람값으로도 치지 않던 중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시고 뿐만 아니라 모두 어느 겨를에 되었는지도 모르고 중이 되셨으니 단발여행(斷髮勵行)이라 하여 머리를 자르셨고, 뿐만 아니라 색의장려(色衣獎勵)라 하여 모두 검은 옷을 입으셨으니 불교에서 중을 치문(緇門)이라 하는바 ‘삭발염의왈(削髮染依曰) 치(緇)요. 입산수도왈(入山修道曰) 문(門)’인데 여러분이 모두 중이 아니라고 변명하시겠지만 모두 중이 되셨습니다. 삭발염의를 하셨으니 치는 되었는데 조금 못 다 된 것은 입산수도를 하여 문(門)이 되어야 할 터인데 입산수도라니 구태여 심산유곡(深山幽谷)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양구(楊口) 여기가 벌써 산중인데 이 산중에 들어와서 무엇 더 깊은

13) 선(船)=般若船.





산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이라는 말은 중(衆)자인데 ‘불교중유교중(佛敎衆儒敎衆)’한대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에서 어떻게 부처를 위하고 믿느냐. 내지인(內地人)<sup>14)</sup> 모양으로 집에 신단(神壇)을 모시고 사배(祀拜)를 할 수도 있거니와 여러분 각기 택마다 노래(老來)하신 부모가 계시니 곧 불(佛)이요, 유약한 자녀가 불(佛)아니고 무엇입니까? 노인 말씀 틀린 것 없고 어린 아이들 거짓말 안하매 그들이 곧 불의 가르침이니 이대로 택에서 위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심전개발도 이것입니다.

일본제국의 주의(主義)가 개승주의(皆僧主義)요, 개병주의(皆兵主義)라고 할 수 있으니 국가 국방상으로 모두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전체가 정심수도(正心修道)하여 설법의 경(境)에 나가야 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에 끝으로 먼저 말씀한 글 일수(一首)를 읊고 그만두겠습니다.

이욕염왕인옥쇄(利慾閻王引獄鎖)

정행타불접봉대(淨行陀佛接逢台)

쇄구입옥고천중(鎖拘入獄苦千種)

선상생연락만반(船上生蓮樂萬般)

(박수)

오후 10시 30분 폐회 (文責在記者)

양구면(楊口面) 이운룡(李雲龍) 속기(速記)

#### ◎ 강사소개

김태흡 선생님은 현재 경성 중앙 불교전문학교 강사이며 본부사회교회와 촉탁으로 대본산(大本山) 봉은사(奉恩寺) 포교사인 동시에 불교소 시보사 주간(主幹)이신 바 사택은 경성부 관동정입니다.

#### 4. 종교신앙과 인류의 행복(1937년 6월 11일, 평창읍내에서)

1932년 반도총력원으로 제창된 농촌진흥운동으로 잠들었던 이 강산에도 갱생의 기운이 팽배하여지고, 농촌민의 생활은 바야흐로 윤택의 일로를 밟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목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피폐곤비(疲弊困憊)한 조선농촌으로 하여금 물신양방면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환언(換言)하면 물질적으로는 소위 경제갱생운동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얻으려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좀 더 윤택을 주고 농민으로 하여금 전도(前途)에 적합한 인생관을 가지고 항상 신념에 불타서 생활의 안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후자인 정신적 갱생을 도모하려고 실시된 것이 즉 심전개발(心田開發)이올시다.

그럼 지금부터 심전개발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요구하는 골자(骨子)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 번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보통 사람들이 다 명예와 재산지위를 얻음으로서 유일한 행복으로 삼을 것입니다. 물론 명예라

14) 일본인.





든가 혹은 재산지위 같은 것을 얻으면 누구나 만족을 느끼고 유일한 행복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명예, 재산지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획득함에 성공한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범부는 다 명리(名利)에만 허덕거리다가 필생(畢生)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의 행복은 결코 재산, 명예지위에 부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인생을 정관(靜觀)하여 보십시오. 대하고루(大廈高樓)에서 진수성찬을 마음대로 취하는 자이요, 오직 불만을 느끼는 이가 있을 것이요. 그와 반면에 초려(草廬)<sup>15)</sup>에서 온의(襤衣)<sup>16)</sup>를 걸고 있는 빈자(貧者)에게도 행복을 느끼는 이가 허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계급(階級)을 막론하고 사람은 반드시 신앙심을 가져야만 참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전 당나라 휘종(徽宗) 황제께서 금산사(金山寺)라는 절에서 행복하셨습니다. 그 절 앞에는 양자강이 유유히 흘러내리고 그 강중에는 무수한 선박이 상하(上下)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고 “자백선사(煮伯禪師)여 대사는 저 강을 상하하는 배가 몇 척인지 알 수 있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대사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배는 많으나 두 척뿐이올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황제께서는 이상히 여기시고 “두 척이라니 무슨 뜻인가”하니 “두 척 중 한 척은 명문지선(名聞之船)이요, 한 척은 이양지선(利養之船) 이온데 배는 무수(無數)하나 그것은 다 이상의 두 목적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이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에만 편중하여 있는 것을 심히 슬퍼하나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신앙생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종교를 믿는데 있습니다.

대개 종교의 목적은 내성(內省)과 반조(反照)에 있는 것입니다. 즉, 안으로 살피고 반성하기를 게으르지 않음이 곧 신앙의 생활이니, 이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일보(一步) 올시다.

우리가 항상 신앙심을 가지고 심전개발을 하면 무한한 무형의 보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으면 밖의 보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집트 나일강가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의 권유를 받아 이탈리아의 알프스 산중(山中)에 황금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생업을 저버리고 이것을 채굴하러 불문천리하고 그곳을 찾아 갔더니 그것은 전연 무근의 사실이었고 그는 환멸의 공애(恐哀)를 느끼어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이에 패가망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반조하여 크게 참고할 만한 것이올시다. 즉,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하여 힘써 일하면 우리가 사는 데도 무한한 보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전개발의 출처는 어디서, 방법은 무엇인가. 즉 심전개발이라는 것은 불경에서 나온 문제올시다. 「불경(佛經) 잡아함경(雜阿含經)」 제4권에 심전정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가께서 천하를 돌아다니며 포교를 하실 때에 하루는 야간(野間) 촌락을 지나게 되었습니

15) 초가집을 뜻함.

16) 무명 옷, 허술한 옷을 뜻함.





다. 벌써 오시(午時)가 지나가서 농부들에게 점심을 먹고 있으므로 석가께서는 그들에게 밥을 좀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농부들은 당신은 “농부가 아니므로 이 밥을 줄 수 없다, 이 밥은 농부가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하고 도무지 주지를 않았습니다. 석가께서는 “아니다 나도 농사짓는 사람이다”고 하였더니 거짓말쟁이라고 울근불근하며 소동을 쳤으므로 잠깐 동안 사람들이 운집하여 왔습니다. 그때 석가께서는 조금 높은 곳에 올라서서 여러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를 농부가 아니라니 내가 농부라는 이유를 설명하겠소. 대체 사람은 육체와 정신의 양자의 합(合)이올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적 양식을 취하는 동시에 반드시 정신적 양식을 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양식은 토지를 경작하여 작물을 심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정신적 양식의 섭취를 몰각(沒却)하면 금수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 양식의 형태가 있고 이를 가는 전지(田地)도 유형물이올시다. 그러나 정신적 양식은 무형적이므로 그 말도 무형한 것이니 이것이 즉 심전이올시다.

여러분은 토전(土田)을 경작하는 농부요, 나는 심전을 경작하는 농부올시다. 그런데 토전은 그 양에 있어서 유한하므로서 근로(勤勞)도 또한 유한하니 심전은 무한한 것이므로 나의 근로도 또한 무한한 것입니다. 즉 주야로 사시(四時)를 불문하고 이 세상 중생의 심전을 경작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전은 수천 년 이래로 거의 돌아봄이 없어서 대단히 황폐하여 잡초가 무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심 반성을 하여 보십시오. 사람이 모든 죄악을 감행하는 것이 이곳 심전의 황폐화된 까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개척하여 중인으로 하여금 안정한 생활을 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하고 열변을 토하니 군중이 모두 고두(叩頭)<sup>17)</sup> 사례하고 칭송을 마지않았다고 합니다.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子), 고행위시우(苦行爲時雨), 지혜위리액(智慧爲犁耜),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轅)’이 이것이올시다. 즉 마음의 시를 고행으로써 씨를 심고 지혜로 서 경작하여 참괴심으로 고삐를 바로 잡으라는 뜻이올시다. ‘약인무신심(若人無信心)이면 여승무주선(如乘無主船), 역여무어마(亦如無馭馬), 장야시경참(長夜是坑塹)’이라 하셨으니, 신앙심이 없는 인간사회가 이 얼마나 암흑하고 적막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긴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내성반조를 하여 참된 신앙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현(古賢)은 심(心)이라는 것을 가만히 주장하여 왔습니다.

즉, 위인두요존호심(偉人頭要存好心), 상재호심만복(常在好心萬福), 세상전재무정주(世上錢財無定主) 종귀행선적덕지(終歸行善積德人).

또 말하길, “심선백사길(心善百事吉), 심악백사흉(心惡百事凶), 선위무가보(善爲無價寶) 인시호신부(忍是護身符)”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방심(浮放心)’을 하고 행선적덕(行善積德)하여 무가보(無價寶)를 쌓으며 결코 목전의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며 장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 말하길, “침입전토편인전(侵入田土騙人錢) 단화부귀무다년(單華富貴無多年) 막도면전무현보(莫道眼前無顯報) 분명절재자손변(分明折在子孫邊)”라 하였으니 이것은 마땅히 우리 인생의 처세훈(處世訓)이올시다.

17) 머리를 조아려 사죄함을 뜻함.





석가가 말씀하시길 “명경상수이심심(明鏡上水以沈心) 태산교악이입신(泰山喬岳以立身) 청천백일이 응사(青天白日以應事) 소월광풍이대인(宵月光風以待人)”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만한 금도(襟度)<sup>18)</sup>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의인군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 50년 짧은 생애에 무엇 때문에 악사(惡事)를 하는가. 돈도 귀중(貴重)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악사를 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 어느 시장에 인마(人馬)의 내왕이 치주(輻湊)한데 별안간 뇌성벽력을 하더니 흑인(惑人)이 벼락을 맞아 죽어 넘어졌습니다. 군중이 몰려 가보니 시체에 ‘역구월팔삼(力口月八三)’이라 쓰여 있었으므로 다 괴상히 여겨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더니 마침 도승이 지나다가 지팡이로 그 글자 복판을 꺾어, ‘시중용소두(市中用小斗)’라는 어구(語句)를 만들어 그 뜻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즉, 그 자는 시중에 항상 소두(小斗)로써 민중을 속여 곡물을 팔았으므로 그 죄로 벼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 중국 어느 곳에서 소가 난데없는 벼락을 맞아 죽어 넘어졌습니다. 군중들이 모여서 하늘의 요망함을 원망하며 무고한 동물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더니 조금 있다 그 옆 뽕나무에 큰 글자가 나타나되 “불문인간오역자(不問人間五逆子) 여하장상타경우(如何障上打耕牛) 차시당시이임보(此是唐時李林甫) 구생천기십생우(九生賤妓十生牛)”라고 나타났습니다. 즉 그 소는 당(唐)의 이임보(李林甫)의 화신(化身)인데 이임보는 당의 중신(重臣)으로 왕의 총애를 함부로 하여 무수한 현관(顯官)을 모함하여 죽이고 무고한 창생(蒼生)을 가렴주구한 간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상을 미워하여 구생천기(九生賤妓)하고 십생우(十生牛)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수심(修心)하여 영생의 길을 구하는 것이 제일이니 털끝 만큼이라도 지위·부귀를 이용하여 악사(惡事)를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저 나파옹(那破翁)<sup>19)</sup> 1세를 보십시오. 그는 절세의 영웅으로 당시 전 유럽을 유린(蹂躪)진감(震撼)하였고 또 공명(功名)의 노예(奴隸)라고 할 만큼 공명심이 많았으나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 하였습니까. 그는 유럽의 평화를 각란한 죄로서 전 유럽에서 축출을 당하여 필경(畢竟)은 세인트 헬레나 고도(孤島)에서 비운을 저주하며 이 세상을 마친 겁니다. 러시아(露西亞)의 문호 톨스토이는 “내가 비록 귀족의 자식일지라도 죽음에 직면할 때 수억의 부귀가 무슨 효과가 있으랴, 사람은 마땅히 종교에 귀의해야 영생의 도구를 할 것이다.”라고 갈파하였습니다.

불경에 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일생에 4명의 처를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처는 초야에 소박을 맞아버렸으니 일평생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처는 혼인한지 수일 만에 권태를 느끼고 차버렸으니 이는 유용한 때만 이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처는 절세가인으로 이를 구하기에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귀중히 여기고 항상 벽장에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처는 더 한층 미인(美人)으로 그의 총애는 더욱 두터워서 잠시를 놓지 않고 받들었습니다. 이리하다가 그 노인이 별안간 병이 들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기 생을 회고하여 너무나 죄악을 지은 것을 깊이 참회(懺悔)하니 “이제는 지옥 밖에 갈 곳이 없으나 나 혼자 가기는 너무나 쓸쓸하니 처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제일 먼저 네 번째 부인을 방문하여 같이 지옥 가기를 간청하였으나 그는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처를 찾아갔더니 그도 역시 불응하였으므로

18) 남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뜻함.

19) 나폴레옹





낙심천만하여 제 두 번째 부인에게 갔습니다. 그도 또한 냉정한 태도로 모지까지는 따라 가 보겠으나 땅 속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첫 번째 부인을 찾아가서 사유를 말하니 그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예로부터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하였으니 어찌 그대의 말을 어기리오. 그러나 영양부족으로 걸어 갈 수 없소이다.”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불(佛)의 인생씨유량(人生氏(喻諒)이올시다. 즉 네 번째 부인은 신체(身體), 세 번째 부인은 금전(金錢), 두 번째 부인은 부모, 첫 번째 부인은 마음을 비유한 것이올시다. 즉 우리는 네 번째 부인과 같이 제일 첫 번째로 신체를 위하는 것이니 몸뚱이에 종노릇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올시다. 공수래공수거가 인생의 사실이 만큼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일고의 토괴(土塊)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신체는 네 번째 부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금전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세 번째 부인을 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은 항상 벽장에 간직하고 받드는 것이니 한 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돈은 결코 같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부모형제올시다. 부모형제는 죽으면 무덤까지는 견송을 하나 같이 땅 속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형제도 죽으면 다 허위(虛爲)한 것이니 두 번째 부인과 같습니다. 그 다음 마음은 사후에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생불멸한 것이요 잠깐 신체를 가장하여 이 세상에 나와서 쉬었다가 가는 것이니, 즉 마음은 과거로부터 와서 현세를 거쳐 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부인이 죽음을 같이하여 미래에 동행하는 것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비유와 같이 사람은 출생 때부터 도무지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처가 영양부족으로 걸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닦지 않아서 거의 갈 바를 모르고 영양부족에 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게으르지 말고 항상 마음을 닦아서 물심의 겸전(兼全)하여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족제일부(知足第一富) 부지족제일빈(不知足第一貧)’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농촌생활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의 지도자로서 항상 농촌의 경제개생을 도모하는 한편 그들에 황폐한 심전을 개발하여서 물심 양방면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장시간 정청을 감사하고 이만 그칩니다.)

## 5. 심전개발과 생업보국(生業報國)(1937년 10월 4일, 통천군 흠곡에서)

지금부터 각위에게 심전개발과 생업보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승려의 몸이므로 각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부처님께 국운융성과 무운장구를 빌고자 합니다. 각위도 저와 함께 축원합시다.(일제히 묵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강연 주제는 주로 심전개발과 생업보국이외다. 각위는 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sup>20)</sup>을 관공서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시국에

20) 1937년 중일전쟁을 일컫음.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관공서에서는 관공서로서, 모두 때와 곳을 따라 달리하는 데조차 인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정신을 바르게 하여 시국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심전개발(心田開發)이외다.

지금으로 5, 6년 전부터 일반 농촌을 고찰하고 진흥에 힘써 오던 바 3년 전부터 심전개발도 이에 부수(副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오늘날까지 부르짖어 왔고 강행하여왔습니다. 지금 시국에 대하여도 특히 심전개발을 힘쓰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여암중보(比如暗中寶) 무등불가견(無燈不可見) 불법무인설(佛法無人說) 수혜막능지(雖慧莫能知)」라. 즉 비유컨대 어두운 가운데 보배와 같이 등불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사회에 있어서는 지혜가 없으면 모두가 안 될 것이외다. 즉 종교가 없고 신앙이 없이는 국가사회를 지지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불법은 지혜요 깨달음이올시다. 이번 사변에 대하여서도 경성방면 철도연변에서 군대수송 등을 늘 보고 있는 관계로 더욱이 타 방면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우리가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비로소 어떻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심전개발이란 것은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불경(佛經) 잡아함경(雜阿含經) 제4권에 심전경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부처님은 여러분께서 절에 가시면 보시는 돌이나 금칠을 하여 만든 부처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말을 하고 옷을 입는 실로 대성인이었습니다. 이 부처님 석가여래께옵서 아난(阿難)이란 제자를 데리고 곳곳마다 세상에 전도를 하시러 다녔습니다. 어느 늦은 봄 이른 여름인 농번기였습니다. 제자와 같이 어느 넓고 너른 전답이 모두 있는 큰 평야에 당도하셨습니다. 이 넓은 평야에 수백수천의 많은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점심 때가 되어서 농부들은 모두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석가여래께서는 배가 너무 고프고 기운도 없고 하여 그 농부들이 점심 먹는 데 가서 '여러분 제가 매우 시장하니 한 분이 한 술씩 밥을 모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농부 한사람이 반대를 하며 주지 못하겠다고 하기에 석가여래께서 '그러면 반 술씩이라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아 달라'고 하니 농부 또한 반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땀을 흘리고 힘을 들여 농사를 지어 먹는데 당신은 놀면서 우리들이 애써 지은 이 밥을 거저먹겠다고 하오' 하였습니다. 이때 석가여래께서는 '그럼 이 밥은 농부가 아니면 못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그러하다고 하기에 석가여래께서 말씀하시되 '혹 밥이 부족하여 못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안 준다든지 하면 모르거니와 농부래야 먹을 수 있다 하니 나도 역시 농부이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농부는 '우리의 손은 이렇게 험하고 손톱은 다 달아 없어졌으나 당신의 손은 고운 선비의 손이요 일로 보아도 당신이 농부라는 것은 전연 거짓말이요 농부란 것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 농부요' 하고 반대하니 석가여래께서는 역시 농부라고 하여 서로 언쟁을 하는 즈음에 여기저기서 모여와서 수천 명이나 되었더랍니다. 이때에 석가께서 좀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농부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논밭을 매달리는 즉 먹을 것을 만드는 농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한 세상 사람의 마음의 밭심전(心田)을 경작하는 농부입니다. 세상 사람의 구조란 것은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몸뚱이 육체요 또 하나는 마음 즉 정신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정신만 없다고 해 보십시오. 사람도 아니요 태도도 아니요 또 출령(出靈)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육체란 것이 나서 처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나서 처음부터 벌써 오곡을 먹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와 같이 생리적으로 오곡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살려가기 위해서 오곡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다른 동물과 달라서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신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먹기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요, 정신의 요구입니다. 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백반사정(百般事情)에 통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금수(禽獸)에 가깝다는 공자님 말씀도 안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모두 정신의 굶주림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신적 요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옛날이야기 같은 것을 하여도 밤이 새도록 재미있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마음의 요구입니다.

나는 이 마음의 발을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산천초목(山川草木)이라든지 일월성신(日月星辰)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정신에서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즉 여러분이 여기서 농사짓는 것과 같이 천하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발을 간다는 것입니다. 모두 마음은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차마 볼 수 없이 황폐하여 있습니다. 가장 심전으로부터 훌륭한 곡식이 나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은 임시 목전에 농사만을 힘쓰고 있으니 세상 사람의 심전은 황폐하여 갈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문에 세상사람 사이엔 물론이요 골육지간에도 서로 반목질시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전을 개발하여 서로서로 융합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농사짓는 것은 논이나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발을 가는 농부입니다. 마음의 발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저기 논이나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하지만 내가 가는 밭은, 마음의 밭은 세상사람 동서남북 수만리나 되는 데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을 맡아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좋을지 방향이 없는 형편입니다. 주야겸행(晝夜兼行)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춘하추동 어느 때를 불구하고 마음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편이 더 힘들고 땀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심전 경작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모두 정신은 내버리고 다만 물질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도 역시 물질에만, 먹을 것, 입을 것에만 끌리어 있을 줄 압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농부들은 과연 옳은 말씀이라고 그럴듯하다고 석가여래가 정말 농부라고 탄복하고 이 설교에 순종하여 옳은 길을 밟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심전개발이란 말이 생긴 유래올시다.

이 심전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농작방법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子), 고행행위시우(苦行爲時雨), 지혜위리액(智慧爲犁耜),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轆)」 즉 심신으로써 종자를 삼고 고행으로써 비를 삼아가지고 심신의 종자를 잘 배양케 하고 지혜로써 쟁기와 멩에를 삼아 잘 매달게 하고 참(남에 대하여 참)괴(자기양심상 부끄러운 것)심으로는 수레를 삼으라 이렇게 있고, 마음엔 「약인무심신(若人無信心) 여승무주선(如乘無主船) 역여무어마(亦如無馭馬) 장야시갱참(長夜是坑塹)」이라고 이것은 신심이 만일 없으면 어떠한 하며 사공 없는 배를 탄 것과 같은 마부가 없는 말과 밤중에 도랑에 빠진 것과도 같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앙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노랑(盧浪)하게 아무 의미없이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충군애국의 신념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신앙심을 배양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기일신은 물론 국가사





회의 안정을 하도록 가르쳐 오는 것이 즉 심전개발이올시다. 현대 세상 사람은 너무 물질에만 편중이 되어 가지고 정신 쪽을 조금도 돌보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저 돈이면 그만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정신없는 사람들이 한 부락에 있었습니다.

아무정신 없이 미친 사람 모양이더랍니다. 동네에서 너무 민망스러워서 땅굴을 파고 두 사람을 잡아 다 놓고 주먹밥 같은 것을 들여보내 먹였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한 사람이 굴밖에 나와서 동리를 정신 없이 돌아다니노라니 한 역(驛)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 어떤 동사한 송장을 하나 놓고 여러 사람이 모두 그 처분할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인지 어디 사람인지 하고 야단이더랍니다. 이 사람이 한참 보다가 암만하여도 자기와 함께 굴속에 있는 정신병자 그 덕이 놈이 자기 송장을 내버려 두고 가라고 해도 안 가는구나 하고 척 나서서 이 송장을 처분할 사람이 있으니 내가 데려오마 하고 그 굴에 가서 같은 정신병자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도 정신없지만 자기 송장을 길가에 버리고 다니느냐고 곧 데리고 와서 자 이 사람이 이 송장임자이니 내 주라고 하여줍니다. 수많은 사람은 모두 양천대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송장임자란 자가 그 동사한 송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다 생각하길 만일 이 송장이 내 것이라면 이 송장을 안고 가는 나는 또 누군가 (일동 웃음소리) 나는 과연 없어졌나 하였답니다. 우리들의 이 육체란 정신이 지배하는 것이 승(勝)하여 있습니다.

정신이 없으면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송장도 이목구비가 정연히 있습지요. 그러나 감각이 없는 것은 정신이 없는 까닭입니다. 즉 이것을 정신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이 정신을 존중히 하지 않고 육체만을 위하여 길지도 못한 오륙십년을 공연히 지내고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 한 송장을 들고 가던 정신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 육체를 위하여 물질에만 끌리지 말고 좀 더 정신적 생활을 하여 국론일치 일심단결로써 이 시국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일지사변(日支事變) 즉 지나사변이 일어난 것은 일본과 중국 사이면 절대로 싸워선 안 될 사이인데 같은 인종이요 글도 같고 서로 인접하여 이웃집 같은 사정인데 이번에는 중국 국민을 생각하는 까닭에 부득이 간벌(干伐)을 든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부형이 자제를 꾸지람하듯이 참으로 응징하기 위하여 하는 정의로서 하는 싸이올시다. 동양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 제후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참으로 안 될 것인데 중국은 이것을 반대로 나가 도리어 일본을 미워하여 온갖 배일(排日)모일(侮日)의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 이것을 응징치 않으면 안 될 일이 아닙니까. 서양사람 저 백인의 세력을 점점 동양으로 뻗치고 있습니다. 서세동점을 방지할 만한 동양의 맹주는 일본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이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실로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대한 원인입니다. 서세동점은 이제 비로서가 아니라 2백여 년 전부터였습니다. 서양은 벌써부터 물질문명이 발달되어 각색 문명의 이기(利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세력을 뻗치고자 하였습니다. 저 아프리카를 뺏어 차고 영국은 동양에서도 큰 인도를, 또 티벳(西藏)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음에 중국 본토에까지 침범하여 왔습니다.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아편으로 순종시키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인천 충해의 습격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에도 역시 중국에 여러 가지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동양 사람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일본만이 개화를 하여 저 명치유신(明治維新)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동양에 있어서 물질문명은 물론 정신문명에 있어서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





본과 만주 사이는 순치(脣齒)의 사이와 같아서 입속에 불이 붙었는데 이가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 때에 청국(淸國)에 원세개(遠世凱)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선 임오군란(壬午軍亂)이라, 무슨 갑신정변(甲申政變)이라 하고 국가가 대단히 사변이 많았으니 자기나라도 잘 못 지키면서 조선에 출병을 하게 되니 드디어 일본과 청국 사이에 교전을 하게 되었는데 원세개는 가지 않고 쓸 데 없이 내정 외정에 간섭을 하고 있기에 다음에는 동학란(東學亂)이 일어나자 드디어 청일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에 이기어 배상금과 요동반도와 대만을 차지하였는데 청국은 여기에 불쾌감을 가지고 서양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사정하여 삼국간섭이란 즉 요동반도를 환부(還付)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청국은 위해위(威海衛)를 영국에 주고 프랑스에는 광둥을 내놓고 요동은 러시아를 주고 독일도 청도(靑島)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모양으로 서로 쪼개 나눠 갖은 상태를 본 일본은 이래선 도저히 동아시아(東亞)의 안정을 보존할 수가 없겠다고 러일전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영토적 야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주를 회복하여 당시 마적의 두령인가로 있던 장작림(張作霖)에게 위임시켰는데 점점 권세가 좋아짐에 따라 일본을 도리어 미워하고 배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작림이 죽고 그 아들 학량(學良)도 역시 그 모양으로 잔학무도한 짓을 많이 하여 백여만이 나가 있는 조선동포를 무수히 학대를 해서 만보산사건과 같은 일을 일으키며 지금부터 6년 전 이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와선 만주국을 새로 건국하고 선통(宣統) 황제를 추대하여 일만국(日滿國) 서로 우의의 나라로 되어 지금은 아주 생활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선만 일체(日鮮滿一體)라던지 선만일여(鮮滿一如)라고 하여 관리를 서로 보낸다 이민을 한다하는 것이 일본의 덕택인 줄을 알고 보면 청국은 서양 백인을 쫓아 버리고 일본과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 나라가 서양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일본만을 밑게 생각하고 화약을 메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을 항상 어떻게 하려고 다른 나라 힘을 빌려서라도 즉 이 이제이(以夷制夷)의 수단을 쓰며 일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느라고 철도를 부설하는 것도 타국 사람에게 맡기고, 저 해국세(海國稅)<sup>21)</sup>를 받는 것도 타국 사람, 체신 같은 것도 모두 타국 사람의 손에 넘겨 가지고 한집안 사람을 억제해 다라고 일본을 처치해 달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전 각지에 군웅이 할거 하여 서로서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래 장개석(蔣介石)이란 사람에 의해 국가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전 서안사건(西漢事件)<sup>22)</sup>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일항일하고 이 사상을 학교에도 군인에게 항상 선전하고 함양하여 29군이라고 송철원(宋哲元)이 인솔하고 있는 군인들도 도학무도한 행위가 여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포들 축인(畜人)에게라든지 좋지 못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 7일 밤에 우리 주둔군이 노구교(蘆溝橋)라는 데 북평(北平)서 한 30리 되는 데서 야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밤 10시경에 송철원군이 무법하게도 기관총으로 대고 발사한 까닭에 용치한(瀋治漢), 송철원이란 사람에게 교섭을 하여 다음 날 실지검사를 하려는데 우리들은 안 그랬노라고 마적이 그런가보라고 하기에, 그럼 우리는 마적을 쫓겠다고 강을 건너 물리쳐 나갔습니다. 다시 또 송철원군과 충돌이 되

21) 해관세를 뜻함.

22) 원문에는 서한사건으로 되어 있다. 서안사건의 오기로 보아 수정했다. 1936년 장학량이 장개석을 감금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정지와 거국일치에 의한 항일을 요구한 사건. 이후 장개석과 공산당 주은래와 협상을 벌여 두 번째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어서 일반 진섭(陳涉)을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국부적 해결을 지으려고 매진하  
 응흥교섭(梅津何應欽交涉)<sup>23)</sup>이라든지 기타 각 조약에 의하여 곧 철병을 하도록 교섭하였는데 저 쪽은  
 더 뻗치며 일편 항복하였다 또 충돌하였다 종시 말을 안 듣기에 드디어 북지사변(北支事變)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북지에서만으로 그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시다만 장개석은 잘 듣지  
 않고 드디어 장기전을 기도하고 있는 까닭에 벌써 3개월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력저력 지나사변에  
 대하여 원인 근인을 말씀 올린 것입니다. 전황에 대하여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벌써 육해군으로  
 한 사분의 삼은 이기고 있습니다. 남경이나 상해 방면에 있어서 공군은 비행기로 공격을 하여 지금 중  
 국병사(支那兵)들은 오지에 모두 쫓겨가 있습니다. 이 전황을 들으면 참으로 감개무량한 바가 많습니  
 다. 지난 여름 그 더위에 어떤 부대는 8일간이나 밥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가다뺑」<sup>24)</sup> 같은 것을 겨우  
 먹고 싸웠습시다. 우리 총후(銃後)<sup>25)</sup>의 국민은 각성하여 함께 긴장하여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  
 전쟁과는 달라서 어디든지 전쟁터입니다. 공군은 어디든지 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선에 나선 장  
 병과 같이 긴장하여 있어 가지고 황군을 지원치 않으면 안 됩니다. 응원하고 지원하고 진심 성의로 황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든 점에 대하여 정신적 일뿐 아니라 국방비라던지 위문 애국비 등을 지출하  
 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하여 즉 우리는 생업보국이란 의미에서 각각 무기의 공급 같은 것도  
 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가정으로 보아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를 두고 나가는 장병을 위하여 조금도  
 뒤돌아 봄이 없이 하도록 절대로 후원치 않으면 안 됩니다. 출병한 가족에 대하여는 여간히 친절을 보  
 아드려야 할 것이며 요즘 수확(收穫) 같은 것도 서로 하여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성방면으로 말하면  
 대단히 모두 긴장들 하여가지고 매일 전송(錢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 한분은 어린 아이를 업고  
 전송을 나갔습시다. 일본국민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매일 나갔  
 는데 한번은 업은 아이가 흘러내려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일본군인 만세를 부르고 있었는데 군인  
 이 차창으로 내다보니 어린 아이도 땅에 떨어진 채로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좋아하였다고 군인들은  
 매우 즐거워하며 일층 조선 동포의 환송에 즐거워하였습시다. 모두 총후의 미담으로 많이 선전되고 있  
 습시다만 한 소경 부인이 또 기차 소리만 나면 나와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기에 옆에 사람이 당신은  
 무엇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느냐고 한즉 나는 못 보아도 그 이들은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  
 고 하였습시다. 각 학교의 학생들도 역시 그 모양으로 전송을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군인은 조  
 선동포가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하여줄 줄은 몰랐습시다. 과연 감격하는 것입니다. 한 군인은 황주(黃  
 州)인가에 와서 보통학교 아동이 나온 것을 보고 대단 감사하다고 사례를 한 아동에게 종이 꾸러미를  
 내보내주며 칭찬하였습시다. 후에 그 꾸러미를 펼친 즉 속에 돈 5원과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조선 소년  
 들 대단히 고맙소. 부산에서 여기까지 내선일체의 실황을 잘 알았소. 군들도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  
 충군애국하여 주오. 돈은 군인에게 아무 필요가 없으니 나눠 학용품이라도 사서 쓰오' 하였습시다.  
 그리고 사변 이래 국방비 위문비 등 모인 것이 5백여 만 원이나 모였는데 그중에 부인들의 적미(積米)  
 를 절약하여 모은 돈 20원씩 30원, 어떤 부인은 점심을 굶어가며 모아서까지 냈다고 하며 경성맹아학교

23) 허잉진-우메즈 협정. 만주사변 후 1935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정.

24) 일본어 가타(堅)의 일본어 발음에서 온 말. 둥글넓적하게 구운 작고 단단한 빵을 뜻함.

25) 전장에서 총 뒤에, 즉 전선에서 직접 전장이 아닌 후방이라는 뜻이다.





학생들은 몇 달 전차요금을 절약하여 국방헌금을 하느라고 그 부자유로운 몸으로 학교에 걸어 다녔다, 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조선청년 중에도 많이 혈서까지 써서 지원병을 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본국민이니 만큼 황국을 위하여 진력하겠노라고 하여간 충후국민이 된 사람으로 응선(應先)하여야 할 사실입니다. 금차회(金鈔會)라고 서울에 귀족부인들의 모임이올시다. 여기서 금반지, 금비녀 등을 뽑아 팔아가지고 헌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도 축원하되 반드시 승전을 하도록 하여 주십소서 늘 축원을 한답니다. 이때를 당하여 국론일치, 민심통일이 절대 필요합니다. 총독각하께서도 일본은 동양안정을 위하여 정의의 전쟁을 한다는 것 지금 중국의 모든 현상과 시국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것이 이번 사변은 상당히 장기전이 될 터이니 국민은 일대 각오를 할 것 등 지금에 중국을 응징치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일숙(一束)으로 생산과 방공농산어촌 총동원하여 일대 결심하에 생업보국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후에 일치단회하여 경제문제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쟁 전에도 항상 수지가 균형치 못하였던 것이 전쟁이라고 보면 군량(軍糧)이라든지 마량(馬糧)이라든지 모든 방면에 소비가 증가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전쟁이 될수록 우리가 근검저축을 하여 각종세금이라든지 국방헌금 애국금 같은 것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림을 좀 개선하여야 되겠는데 이것은 농촌진흥 자력갱생 운동이 일어난 때부터 늘 이렇게 하라고 지도장려하여 온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지금부터 의복을 새로 만들지 않기로 합시다. 옷을 짓는 돈이면 국방헌금으로 들여놓습니다. 부인들은 공연히 옷을 새로 지으며 께 안에 넣어 두는 습관이 있는데 금년은 풍년도 들고 한 바람에 이런 낭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국민성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되도록 좋은 음식을 삼가십시오. 전장을 생각하면 감히 편안히 살며 좋은 음식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8일간이나 굶어가며 적군을 물리쳤더니 신령의 도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신령의 도움입니다. 경기도에선 부인단체를 상대로 많이 다녔습니다만 가정부인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생업보국이란 것도 부인들 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내지 않고 자꾸 쓰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어린아이 첫돌잔치 같은 것 절대 폐지하십시오. 혼인잔치도 그전에 100원 50원 들인 것이면 20원 10원씩으로 줄이십시오. 생업으로써 보국하는 것이 장병으로 전장에 나간 것과 같이 철저한 각오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영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허영이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적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다 잘 생겼는데 코가 납작코가 되어서 펍 유감으로 생각하였는데 하루는 장에 갔다가 코 잘 생긴 부인을 보고 칼을 꺼내어 그 부인의 코를 베어 가지고 와 자기 부인코를 또 베고 부쳤답니다. 붙어 있습니까. 납작코마저 잃었습지요. 지금 세상 사람의 허영이란 것은 절대로 폐지시켜버려야 할 것입니다. 옛적 운문대사(雲文大師)란 도승이 있었는데, 갯물에 나가 무청을 씻다가 무청 하나가 물에 흘러 내려가기에 대사가 건지려다 못 건지고 무청을 따라 함께 흘러 내려가 주어왔습니다. 대사에게 항상 놀러 오는 공경대신들이 이것을 띄어 보고 비웃는 말이 중은 본래 청정청백함으로써 위주로 하거늘 무청 한 개에 그리 욕심을 내느냐고 말했습니다. 대사는 '이 무청이 한 개일지라도 천지우주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맡긴 것이요 천만도 하나, 둘에서부터 생긴 것이요 티끌도 모여 태산이 된다니 어찌 무청 하나라고 소홀히 할 것이 있겠소. 불도에선 땅에 쌀 한 알이 떨어져도 쌀이 썩으면 지신이 아까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신상태에 있어 운문대사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 사변에 당하여 정신을 통일하고 국론 일치, 일치단결하며 경신숭조(敬神崇祖), 신궁참배, 숭교(崇敎)를 신앙하고 생업보국을 철저히 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 6. 심전개척(心田開拓)과 용무봉공(勇務奉公)(1937년 10월 5일, 통천읍내에서)

여러분께 시국과 심전개발에 대하여 몇 마디 말씀하고자 합니다. 말씀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자 하오니 대단 미안합니다만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일동 기립) 다행히 회장 내에 신단이 있으니 그곳을 향하시고 합장을 하여주시오(강사로부터 염불을 외우며 일동이 신단에 향하여 합장 삼배하고 정좌하다) 제목은 ‘심지개척(心地開拓)과 의용봉공(義勇奉公)’이라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도(道)의 촉탁으로 심전개발과 시국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통천읍과 같은 도회에서는 시국에 관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을 줄로 생각하오니 심전개발에 대하여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심지(心地)라는 것은 심전(心田)이란 말과 동일하고 개척이란 말도 개발이란 말과 같으므로 심전개발이나 심지개척이 동일한 의미이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을 영위함에는 필히 어떤 목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이상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의식으로만 하는 생활은 생활이라 할 수 없으니 여기에는 반드시 신앙생활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생활이다 하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실제생활과는 반드시 병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불경(佛經) 대지도론(大智度論)<sup>26)</sup>에 동굴소암(洞窟掃暗)이란 말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빈한하여 나무 장사를 하며 그날그날을 생활하여 가나 식구가 심여 인이나 되어 자기 집이 없이 남에 집을 차가(借家)하고 있는 관계상 항상 불편을 느끼어 가옥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루는 나무하러 산중에 들어갔다가 공연히 소나기를 만나 은신할 곳을 찾다가 동굴을 발견하여 그 곳에 비를 피하였습니다. 날은 개이였으므로 그 동굴로부터 나오려고 하다가 굴 내를 자세히 살펴보니 넓기가 심여 칸이나 되고 바닥은 낙엽이 쌓여 있어서 자리를 깔지 않아도 좋게 되어 굴 내에서 생활하기 대단히 좋아 보였습니다. 항상 집이 없이 근심하는 중이라 곧 집안 식구를 전부 데리고 오고 싶었으나 한갓 굴 내가 어두운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도 굴 안이 이와 같이 어두울까 생각한 나머지 연기나 구름이 끼여 있어서 이러리라, 이 연기와 구름만 제거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곧 커다랗게 비를 만들어 쓸어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땡땡 돌아가면서 비로 쓸어내도 역시 캄캄함은 여전하였습니다. 이 동굴 부근에 산사가 있는데 중 한 사람이 이 동굴 부근으로 내려오다가 이 모양을 보고 이상히 생각하고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중이 묻기를 당신은 무슨 사람인데 무엇을 하느냐고 하니 지금 굴집을 발견하였는데 굴 내가 어두워 이것을 밝게 하는 중인데 아무리 비로 이 어두운 것을 쓸어버리고자 하나 되지 아니하니 당신은 산중 도승이니 이 굴 안을 밝게 하는 방법을 아실 터이니 하교하여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습니다. 승이 말하기를 굴 내를 밝게 하자면 송명(松明)<sup>27)</sup>을 켜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므로 곧 그와 같이 하여 본 즉 과연 굴 내가 밝았습니다. 송명에 불을 밝히어보니 굴 내에는 약수도 있고 기타 모든 것이

26) 산스크리트 원전의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에 대한 주석서. 대승불교의 백과사전적 저작임.

27) 관솔, 관솔불.





있어 참 살기가 좋았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비유한 말인데 이 세상은 동굴이 어두운 것을 비로 쓸어버리고자 함과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신앙과 도덕을 벗어나고 물질에만 편중함이올시다.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였으나 무엇으로서 만물의 영장이 되겠습니까. 제일 근본이 마음을 밝게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즉 심등점화(心燈點火)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 등잔에 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동쪽으로 가는 길이 서행이 되고 밥을 짓는 것이 모래를 찌서 밥을 짓는 것과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훌륭한 생활, 가치 있는 생활을 하려면 심등점화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국민을 교육함이 즉 심등에 점화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이올시다. 심전 즉 심지를 개발시키려고 함도 역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부로부터 농촌진흥자력갱생운동이 제창되어 색복착용이니 생활개선이니 소비절약이니 함도 우리 농민자신이 먼저 각성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즉 심등점화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경쟁계획의 삼대목표로 되어있는 식량증식, 부채정리, 현금수지 균형도 심등에 점화하여 심전을 개발함이 제일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인은 이것에 힘쓰지 아니함이 유감입니다.

심전을 개발함에는 심등에 점화하고 경신숭조(敬神崇祖)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사참배나 불전참배를 하여 신앙심을 배양함이 필요한데 신앙에는 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릇 예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양인은 악수함을 예로 하니 옛날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과 손을 이렇게(악수하는 형용을 하면서) 박수로 서로 손을 잡고, 조선인의 인사법은 이렇게(양손을 꾸부려 손끝을 서로 대고 이마에 대일 듯이 하고 머리를 꾸부리며) 하며, 군인들의 예는 바른 손을 들어 귀에 대는 것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모두 무기를 갖지 아니하였다는 표시로 서로 손끼리 쥐며 혹은 손을 들며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예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 합장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합장하는 법은 고려 때 불교가 성할 때에 성행하였는데 그 후 이조에 와서는 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합장이란 것은 흐트러진 황무(荒蕪)한 마음을 합한다는 의미인데 아무리 산중에 있는 중이 사납게 생겼더라도 합장을 하면 정직하고 온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합장은 평화의 상징이요, 일치화합이요, 불전에서선 불아일체, 부모의 앞에선 친자일체, 장유(長幼)간이면 상하일체, 처(妻)에 대하여 부부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례를 보면 처에 대하여 합장하고 예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지나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처에 대하여 합장하고 예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집안에 있어서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루에 50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요리집 보이가 하루에 130리를 걷는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벌어들인 것을 소비만 하는 것 같으나 부인이 친절에 나가고 아이들은 울고 집안이 씨렁씨렁<sup>28)</sup> 하면 남편은 그만 화가 나서 이놈의 집을 부숩놓을까 하게 됩니다.(일동 웃음) 그러므로 남편 된 사람은 처에 대하여 머리를 꾸부리고 인사는 하지 아니하지만 마음으로는 합장하고 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부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심전개발은 합장을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경에 세인거가(世人居家)는 여포옹족(如捕熊足)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중에 들어갔다가 곰을 만나 위태로운 지경을 당하였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갈까 해도 나무 잘 타는 곰이요 바위틈에 숨자 해도 힘센 곰이라 바위를 굴러가지고 하여 피신할 곳을

28) (북한어) 사귀는 정이 버성기어 서로의 사이가 꽤 썰렁한 모양을 뜻함.





생각하는 중 문득 ‘곰아 들어가거라’ 외치니 앞발을 들고 덤벼들어 해하고자 하므로 급히 큰 나무 뒤로 돌아서니 미련하기 짝이 없는 곰은 나무와 함께 사람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사람은 곧 곰이 끌어안은 발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곰의 발만 놓으면 위태하니까 장시간을 곰의 발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곰도 맥이 빠졌습니다만은 사람은 더욱 힘이 없어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이에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나더니 나무꾼 하나가 그 곳을 향하여 오므로 곧 나무꾼에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나 혼자 곰을 잡는 중인데 혼자서는 잡기가 어려우니 같이 곰을 잡읍시다. 이 곰만 잡으면 웅담이니 고기니 하여 상당히 값이 나가는 것이니 같이 잡읍시다. 당신이 도끼가 있으니 그 도끼로 곰의 머리를 때리든지 이 발을 붙들든지 하시오. 그러나 당신이 도끼질이 서툴러 대번에 잡지를 못하면 큰일입니다 하니 그 나무꾼이 자기가 그 발을 붙들겠노라고 하여 곰의 발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꾼에게 곰의 발을 옮기어 쥐게 하고 나와서 곰을 잡으려 하였으나 잡을 용기가 없었으므로 한숨을 휘 쉬면서 나는 곰을 잡기가 싫어서 그만두겠노라 오늘 신수가 사나와서 흉한 곰을 만나 한참 고생하였네 하면서 그만 가버렸습니다. (일동 웃음) 그때에 또한 사람이 그곳을 당도하여 전과 같이 곰의 발을 옮기어 주고 또 판 사람에게 옮기어 주고 하여 몇 백 년 몇 천 년이 지나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인의 가정이란 것은 곰발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세인거가는 여포옹족이올시다. 실로 가정이란 것은 곰의 발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꾸 자손에게로 전하여 줍니다. 부모가 곰의 발을 버리고 가면 자손이 그 곰발을 붙들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세인은 이 곰발 때문에 신앙생활 도덕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강산이 천하명산으로 불과 몇 십리 안에 있지만 가정이란 곰발 때문에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곰발 때문에 강연을 들으러 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포족(捕足)되어 있을지라도 경신송주의 신앙심으로 배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굴소암(洞窟掃暗)’이나 ‘세인거가 여포옹족’이란 것이 모두 심전개발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 대체 심전이란 무엇일까.

밖에는 수전, 화전, 사전, 산전 등의 말이 있지만 심전이란 무엇일까 반드시 출처가 있을 터인데 사서삼경일가 예수교일가, 불경(佛經) 잡아함경(雜阿含經) 제4권에 심전경작이란 문구가 있으니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 우가키(宇垣) 총독이 심전개발에 대한 운동을 제창하였으니 불교에도 많이 유의하신 모양입니다. 심전경작에 대하여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석가여래는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인도에서 탄생하시었는데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즉 도통이 되어 이를 방방곡곡으로 철환천하(輻環天下)하면서 포교를 하던 중 어느 해 늦은 봄 농부들이 밭 갈고 씨 뿌리는 별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점심 먹을 때이므로 5인씩 10인씩 혹은 20인씩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곳 20명가량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배가 고프니 밥을 주시오 하니 어떤 젊은 농부가 말하기를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밥을 줄 수 없다. 우리가 농사지을 적에 무슨 일을 하여 준 일이 있느냐’ 하며 거절해 버렸습니다. 석가여래는 ‘나를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도 나도 역시 농사짓는 농부이다’ 하니 일반농부들은 ‘그러면 농사농부라면 그 표를 내놓으라. 당신은 종교가로 포교하려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며 언쟁이 나서 수십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석가여래는 ‘나를 농부가 아니라고 하나 내가 농부인 것을 설명할 터이니 들어 보아라’ 하고







인생이란 것은 육체와 정신 두 가지로 구조되어있어 육체 뿐으로는 인생이라 말하지 못하고 정신만 가지고도 인생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육체와 정신이 구비하여만 비로소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농부들이 화전, 수전 혹은 사전에 파경경예(播傾耕藝)하여 생긴 곡식으로 육체를 기르는 외에 정신이 배고플 때에도 심전을 경작하여 마음을 길러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에는 지(知), 정(情), 의(意)가 있으니 지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함이요, 정은 미술예술이 되고 의도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크고 말을 배울 때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냐'고 어른들도 모를 말을 묻는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낳고 할아버지는 누가 낳고 고조부는 누가 낳았느냐고 자꾸 물으면 나중에는 어른들도 대답할 수 없이 그만 아이를 욱하고 마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화동화는 이와 같이 아이들의 지적 욕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학교에서 창가 체조를 가르침도 정(情)적 충동을 주기 위하여 교수하는 것입니다.

의(意)적으로 보더라도 아이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는 철학 과학이 되고 정은 예술 미술 종교요, 의는 윤리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지적으로는 전미개오(轉迷開悟)하고 정으로는 이고득락(離苦得樂)하고 의로는 지악작선(止惡作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심전의 욕구에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전(田)이란 것은 지(地)인데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것과 한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도 모든 언어동작이 생기어 나니 곡식심에 싹트는 것만 전이 아니요 회로애락이 싹트는 마음도 전이라 금세에 갖가지 살인 강간 강도 등의 무인도적 범행이 있으나 이것은 심전이 황무한 까닭이외다. 나는 세인의 황무한 심전을 개척하는 농부이라 당신네들 농부의 경작하는 전은 한계가 있지만 나의 경작하는 심전은 무한이다. 천하가 전부 나의 경작하는 심전이다. 춘하추동 사시에 주야를 불구하고 하루도 놀 사이가 없이 심전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의 말과 같이 종자를 파종치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심전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석가여래가 말하니 농부일동이 깊이 감격되어 사망에서부터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농부는 석가여래가 참된 농부요 자기들은 가짜 농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문에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子)요 고행위시우(苦行爲時雨)라 지혜위리액(知慧爲犁鞭)이요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轅)이라하여 있습니다. 더욱 고인무신심(苦人無信心)이면 여승무주선(如乘無主船)이요 역여무어마(亦如無馭馬) 장야시강참(長夜是抗塹)이라 하였습니다. (이때에 청강자 중 어린 학생들이 지껄이고 있었다)

어린 사람들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 재미가 없는 모양이니 슬픈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 11, 12세 된 소년이 있는데 부모 양친은 일찍 사별하고 삼촌숙부의 집에 의탁하여 겨우 보통학교는 일호로 졸업하였으나 상급학교는 가지 못할 형편이어서 어찌하면 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학이라도 하리라고 경성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자기를 썩달라고 하는 중 부친의 제일(祭日)을 당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도 어머니의 사후에는 조선(祖先)의 봉제사는 네가 맡으라고 하였으므로 이 제일을 당하여 제사 지낼 생각을 이리저리 한 나머지 파고다공원에 가서 유지 신사들의 동정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1전 2전씩 동정을





받아 20여 전을 만들어 향도 준비하고 제물도 좀 준비하였으나 어디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왕십리에서 정미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밤중에 자기 정미소 창고를 순회하다가 이상한 불을 발견하고 놀라 그곳으로 가까이 들어가 본 즉 어떤 소년이 향불을 피우고 사배를 드리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더욱 이상히 생각하고 물어 본 즉 금일이 자기 부친의 제일인데 공원에서 1전 2전씩 신사들에게 동정을 받아 향도 사고 제물로 설령탕도 샀으나 뜰에서 제사 지낼 수도 없고 하여 마침 이 창고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사지내는 것이 죄라면 곧 부친의 죄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금세에도 저와 같이 훌륭한 소년이 있나 하고 퍽 칭찬하고 그 소년을 집으로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온 집안이 모두 반기며 신명의 도움으로 복동이나 아닐까 환영하여 중학교에 입학시켜 전문대학까지 졸업시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즉 신(信)에서 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신심이 없어서는 어찌 만물의 영장이 되겠습니까. 신심이 없어서는 동물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돼지가 자기 먹는 밥통을 뒤집어 놓는 것은 신심이 없는 까닭입니다. 맹자님도 무항심자(無恒心者)는 무항산(無恒産)이라 하였으니 신심이 없어서는 항산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심이 있고 신앙심을 배양한다면 자가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사회를 위하는 마음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sup>29)</sup>이 발발한 이때 일조유사지추(一朝有事之秋)를 당하여 의용봉공함도 또한 신심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변에 일본군의 연전연승함도 민심이 통일이 되어 일치합심 국민의 신념이 한 뭉치가 된 까닭입니다.

일본을 가보면 도처에 신사불각이 많이 있는데 신불을 신앙함으로써 가정의 융화도 되고 국가의 용공의 마음도 배양되는 것입니다. 국방애국운동도 신념을 가진 종교의 훈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총후로 급선무는 신사참배와 국위선양 무운장구 기원제를 올리며 절에 들어가 마음을 배양함이라 하겠으며 생활의 경제를 절약하여 국방에 헌금하고 적성을 피력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오니 아무쪼록 유종의 미가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정숙히 들어주시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 7. 희생봉공과 안심입명(1937년 10월 24일, 횡성읍내에서)

작년에 여러분과 면담을 하였고 본일 다시 귀지(貴地)에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얻은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목은 희생봉공과 안심입명이라는 문제하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비상시가 시국중대로 변하여 거국일치 전부가 이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올시다.

7월 7일에 북지사변(北支事變)이 돌발하여 이래 우리나라는 사건 불확대주의를 위하였으나 불가피하게도 중국 전면적으로 걸쳐서 드디어 북지사변은 일지사변(日支事變)으로 전개되어 일지 교전 3개월여

29)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을 뜻함.





에 이른 것이올시다. 현재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큰 배가 항해를 할 때에 태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고 그 곳을 암초가 많고 더욱이 해적이 산재해 있어 위험 무비한 경우에 있는 배와 같은 형편인 대일 본제국이외다. 이러한 경우에 이른 선원은 물론 일심명력(一心明力)하여 각 방면으로 풍파와 암초 해적을 피하려고 고심할 것이올시다. 즉 우리 일본제국이 이 배와 같은 형편인 고로 선원의 활약과 같이 내선일체 상하일치 단결하여 중대시국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외다. 이 중대시국을 타개함에는 무력전, 경제전, 사상전이올시다. 일지(日支)에 관계를 말씀하면 원래부터 지역상 또는 동양에 간혀 있어서 옛날에는 중국의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것을 일본에 수입하였었고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에는 문명이 더욱 발달되어 중국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상이나 동양에 간혀있는 절대 서로 협조하여 나아갈 형편이올시다. 그리하여 일본은 동양평화와 지도적 입장에서 영원히 평화한 동양국가를 건설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실력도 없이 일본을 배반하여 항일 반일 모일(侮日)등 운동을 일으키어 이번의 사변을 초래하고 이권 기타 조약을 무시하는 행위를 취함은 전부가 책임이 중국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은인자중 불확대주의를 위하였으나 이 불법 무도한 행위는 응징치 않을 수 없어 무력을 발휘하여 제일선 장병을 파견하여 육해공전이 전개케 되어 이미 북지는 삼분의 이 이상을 점령하여 거의 승전을 한 형편이나 중국은 본래 지대가 광활하고 민족이 다수하므로 아무리 점령을 하였다 할지라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조선총독께서는 이번 사변이 중대할 뿐 아니라 장기에 걸친 지구성이 있는 것을 일반 민중에게 인식케 하는 동시에 무력전은 뒤이어 경제전으로 화할 것을 언명하고 총후(銃後) 관민은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장병과 같이 총후에서 생업보국 정신하에 일층 농산어촌의 경제향상을 강조함인 즉 우리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소비를 절감하여 경제의 배양을 도모할 것이올시다. 옛날에는 문화사상으로 일어난 단순한 무력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현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에 무력전, 이에 경제전, 삼에 사상전의 삼요소가 겸비하여야 완전히 승리를 할 것이올시다. 이 문제를 타개함에는 희생봉공의 정신하에서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장병이 총후 후원의 적성(赤誠)과 희생사상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외다. 이 사상을 배양함에는 첫째로 신앙봉사가 필요한데 이는 신사참배, 불상에게 기도 등 신앙을 중심으로 전국 민이 일치하여 매진할 것이며 민심이 일치되면 무서운 것이 없이 강하게 될 것이올시다. 단결력의 위대한 것은 모발이라도 합하면 강하고 흩어지면 약한 것이다. 일청전쟁(日淸戰爭) 시에도 이등공(伊藤公)은 비록 중국은 광대한 영역과 4억의 인구를 가졌지만 4억 인구는 4억 사상으로 애국심이 결핍하고 단결력이 없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소지역에 4천만 약 10분의 1에 인구지만 일심으로 천황폐하에 충성과 일사보국 정신하에 4천만 인구가 단결되어있는 관계상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언명하셨습니다. 과연 일청전쟁은 우리나라가 승리한 것이고 그 다음 일러전쟁(日露戰爭)을 보더라도 전쟁 당초에 세계열국은 일본이 패하리라고 추상한 것이 결국은 일본이 승전을 한 것이다. 이것은 곳곳에 산재한 신사불당에서 조만(朝晩)을 불구하고 매일 참배기도를 행하며 민심을 단결케 하는 한편 출정 군인의 위로를 함에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 신앙봉사의 단련은 비록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대전에 독일이 열국을 대항할 때에 국민전부가 예배당의 기도와 무운장구를 기원하며 한편 출정 장병에 대한 총후봉공을 극진(極盡)히 하는 등으로 민심을 단결케 하고 출정군인은 선망(先亡)한 부모의 사진 혹은 수부(守符)를 품에 품고 항상 자신을 축원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사진만이 적탄에게 명중되고 다행히 자신은 무사하였다는 일





도 적지 않았다.

일청전쟁과 일러전쟁 시에도 우리나라 출정군에게는 수부 혹은 천인침(千人針)을 증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굳게 하였으므로 적탄이 비 오듯 하는 전지에서 신명의 수호로 안심입명 하여 대포의 탄환도 겁이 없이 돌진한 것이다.

세계대전 시 프랑스 연합군 보충병을 징모할 때에 한 미모 소년이 지원병으로 입영되었는데 그 소년은 주야의 분별이 없이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하는데 부상병에 간호와 여병(女兵)의 수직(守直)<sup>30)</sup>을 할 때에 자기도 역시 수직을 하는 등 만반 사위에 그 기민하고 용감한 것이 실로 타에 보지 못할 모범병이었다. 드디어 그 소년 '수자경'은 모범병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이르렀다. 어느 때 적과 돌격 중에 소년병은 제일선에 전진 중 적탄이 복부를 관통하여 즉시 군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상처를 검진 중 물경 한 소녀로 판명되었다. 그 소녀에게 출정이유를 물은 즉 다른 의무병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프랑스 한 촌락 농부(農婦)로서 결혼 3개월에 남편이 소집되어 출정한 뒤로 나는 그 후로 매일 같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기를 하루바삐 승전을 하거나 남편이 전사를 하더라도 명예스러운 전사를 하라고 축원을 하였습니다. 그 후 불과 수개월에 남편은 전사하였으므로 나는 분연히 조국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결심하에 보충병으로 지원 입영하여 조국을 위하여 남편 대신하여 성심으로 노력한 것이올시다라고 말하고 필경은 자기는 희생봉공을 하였다. 이 경탄할 정보는 연합군 전반에 자극을 주어 장병은 일개 여자의 활약을 근본으로 일치단결하여 결국은 승리를 하였다 합니다. 또 한 가지 부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4년 반에 장구한 전쟁을 하다가 결국 패전을 한 독일을 보건대 남자는 전부가 출정에 당하고 여자는 국내에서 행정 경찰 제반 국무와 철도기관 등 기타 농장 어장 전부를 여자가 분거 집행하였으나 본래 여자는 인내력이 약한 관계상 먼저 머리를 숙이고 평전(平戰)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수품을 공급치 않고 또는 자기 남편이 일시 귀가하면 다시 전지에 출정치 못하게 하고 혹은 출정한 남편에게 귀환을 애원하는 등 실로 출정군인으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을 수 없도록 수단을 취하여 필경은 강국인 독일도 전패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부인들은 독일이 패전한 것이 자기들로 인함인 것을 각성하고 속히 복수를 주장하였다. 복국(復國)을 함에는 소비를 절약하여 경제의 윤택화가 제일이므로 근검저축의 노력을 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부인의 힘으로 다시 세계의 강국이 된 것이올시다. 우리나라 부인은 독일 부인을 견본삼아 근검저축에 노력하는 동시에 일치단결하여 난관을 돌파할 각오하에서 희생봉공할 신념을 굳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날 불광국사(佛光國師)라 하시는 도승은 원구전란(元寇戰亂)시에 「건곤무지탁고공(乾坤無地卓孤筇), 희득인공법역공(喜得人空法亦空), 진중대원삼척일(珍重大元三尺劍), 전광영례참춘풍(電光影禮斬春風)」이라고 영시(詠詩)하여 장사(將士)에게 보내어 주었다 합니다. 이 글은 대자연을 말하여 신앙심이 있으면 안심입명한다는 것이올시다. 전시일수록 신앙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야한 때 무인지경으로 통과할 때에 공포심을 가지면 필히 그 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심이 강한 자는 무난히 통과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이나 다 같이 큰 일이 있을수록 안심입명하고 신중 조심하여 방비의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 신앙심에 대하여 또 하나 예를 들어 여쭙면 일본에 어느 외국에 유학하여 의학박사의 지위를

30) 건물이나 물건 등을 맡아서 지키는 것을 뜻함.





연고 계속하여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로서 중요한 지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친이 어느 절에서 사거한 후 그 절에 가서 참배하고자 백 여리나 떨어져 있는 그 절을 찾아서 모친과 동행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게 되어 항해하는데 중간에 풍파가 일어 대단히 위급한 경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자는 과학에 통달한 자이지만 황황망급하여 겁을 먹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친은 책(責)하여 말하되 사람은 '생이유사(生而有死)'이니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조난할수록 안심하고 일념으로 기도하고 염불하여 침착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염불을 하십니다. 그러자 얼마 안 되어 풍파가 그치고 일행은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아들은 아무리 과학에 능통할지나 신앙심이 없는 관계로 조난하면 어찌할 줄을 모르고 겁을 내어 초조하게 되며 그 어머니는 신앙심이 강하므로 이러한 난관을 조우하였을지라도 조금도 겁이 없이 안심하고 기도만 하여 끝에는 무사히 된 것이옵시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과학자는 그 어머니에게 머리를 굽히고 같이 불교를 믿어 신앙심을 양성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비행기로 적군을 습격할 때에 내릴 때나 날 때나 이때에 대하여 2, 3분에 목도를 하는 것도 즉 신앙을 굳게 함이옵시다. 전회(前回) 세계 미증유사에 하나인 공중육박전에 탄환이 결핍되어 우리나라 비행기는 비행기 미부(尾部)로 적기의 프로펠러를 쳐서 추락시킨 사실도 안심입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공군이 비행기에 예(禮)함과 같이 농자는 농구를 위하고 상인은 주반(珠盤)을 위하고 관공리는 각 분담 기구를 위하여 신앙을 향상하여야 할 것이고 애국사상과 거국일치 단결하여 경제에 굴함이 없이 시국을 타개하여 철두철미하게 중국 4억을 선도(善道)로 인도하여 영원히 동양평화를 확보하기를 바라고 약속하나이다.

#### 8. 총후부인의 책임(1937년 1월 26일, 평강군 문산리 부인회에서)

이 사람은 중이옵시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국은 대단히 비상한 시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시국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만 되는 고로 우리 중으로서도 이 시국에 노력치 않으면 안 될 것이옵시다. 그리하여 나도 시국에 노력하여야 하겠기에 귀 면에 오게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말씀할 것은 시국에 대한 말씀이옵시다. 중국과 전쟁을 하는 우리 일본은 전쟁하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세(事勢) 부득이 하여 싸우게 된 것입니다. 동양에 있는 일본, 중국, 만주국은 새로 휴수(攜手)<sup>31)</sup>하여 평화를 지켜야할 터인데 중국은 이것을 생각지 않고 일본을 배척하려고 여러 가지 불법 행사를 하여 동양평화를 침해하는 고로 일본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서 이제는 초달(草薙)로서 철저히 응징코자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오신 여러 부인회원은 남녀동등으로 시국에 인식을 지각하여 일치 협력하여 노력하여야만 됩니다. 옛적에 부인은 가정 심규(深閨)에 있어서 세상사를 알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으나 지금은 정반대로 남자와 일치 협력하여 내외사를 합리적으로 노력하여야만 됩니다.

우리 조선이 일본과 합병한 지 27년이옵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조선여자가 일본으로 시집간지 27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출가한지 27년간에 무엇을 하여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여자로 노력해서 보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적 구주대전<sup>32)</sup> 시에 독일에서 여자는 전부 출동하여 출정하는 남자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4,

31) 손을 마주 잡는다는 뜻으로 함께 감을 이르는 말.





5년간을 일반 국가사무를 집무하여오다가 전쟁은 계속하여 4년간이나 장기항전이 되는 관계로 물품이 절핍되는 고로 경제타박을 받아 생활에 지장이 적지 않자 곤란 막심을 불선(不艱)<sup>33)</sup>할 때에 이르러 여자들은 혁명을 일으켜 이와 같은 곤란을 견딜 수 없으니 전쟁을 중지하지는 결의로서 관청에 다수 출원하여 국내에서 요란을 발생하여 결국은 독일은 실패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각기 농가는 전쟁시 다수 비용을 지출한 관계로 불경제와 부채 증대로 생활이 불능상태에 빠진지라 곤궁함에 이르러 비로소 비상시국일수록 국민은 남녀 불구하고 끝까지 활동하여야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녀자는 또다시 남자와 같이 활동할 것을 굳게 맹서하고 근검저축으로써 노력을 시작할 때 노력 중 일례를 열거하면 여자들은 성냥을 사용할 때 신속히 사용할 목적을 이루고 즉시 소화하여 남은 여목(餘木)을 집취(集取)하였다가 그것을 가지고 제작공장에 가서 다시 화약을 붙여달라고 해서 다시 사용하여 왔습니다. 혹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불과 수년 독일은 회복하였으니 여자의 힘이 얼마나 중대하며 위대한 것을 알게 되니 옛날 여자로만 생각지 마시고 힘껏 분투노력할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리미와 인두를 드리고 또다시 거울을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드리는 것은 얼굴이 어떠한 흑색이 있든지 기타 오점이 있을 때에나 화장할 때에 반드시 사용하여 화려하게 하고 좋지 못하던 얼굴이 남 보기에 좋아지는 것과 같이 내 허물이 있거든 아는 즉시 개과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리미는 구긴 옷을 잘 펴는 것인데 구긴 옷을 펴서 입고 나가면 타인이 볼 때 마음에도 구김이 없이 좋게 보입니다. 인생 또한 하등 과실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이 옷에 구김살이 없이 보기 좋은 것과 같습니다. 이 주름살이라는 것은 우리 인민이 공연이 슬퍼하여 운다든지 노(怒)하여 질똥(叱咷)한다든지 하는 것이 구김살인데 이 구김살을 펴려면 인두보다 더한 성인의 말씀, 불인의 말씀을 잘 들어 좋지 못한 구김이 있는 것을 전부 펴야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은 구김살이 있거든 다 내어던지고 다 곱게 펴기를 바랍니다. 부녀자로서 착하고 똑똑한 이로 구김살이 없이 안락한 생활을 하려면 먼저 한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야 합니다. 친모로 자기 친녀를 볼 때 모두가 다 잘났고 어떤 일이든지 다 잘한다고 사랑을 하지만 시어머니로 며느리를 볼 때 여러 가지 별별 흉을 봅니다. 옛적에 며느리 흉을 하도 볼 데가 없어서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는 발꿈치가 달걀과 같이 둥그래서 볼 수 없다고 흉을 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은 곧 이러한 마음은 고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로 며느리를 잘 사랑해야 집안이 화평해 지고 남편이라든지 시아버지라든지 다 즐거워하여 화순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염증(厭憎)하여 불화를 초래하면 남편은 들어와서 이 모양을 보고 화가 나서 다시 나가 주색잡기에 침범하게 되어 결국은 그 집은 망하게 됩니다. 집안은 잘 되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의가 좋아야만 성가(成家)하게 됩니다.

옛적에 한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압박을 주며 흉을 보는데 며느리는 효부로서 극력 순화하게 효성을 다하여 오나 시어머니는 중시 열도(熱度)를 가하여 오프로 며느리는 생각하다가 하루는 여승을 만나

32) 제1차 세계대전을 뜻함.

33) 적지 않다, 드물지 않다는 뜻.





이 사유를 말한 즉 여승 답이 이 동리 후방에 돌부처님에게 정성으로 축원하면 화평히 살 수 있다고 말하므로 즉시 주야를 불구하고 축원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을 알고 못 가게 할 방책으로 매일 식후에 쌀을 한 되를 쓸게 하였으나 시어머니 시키는 일을 다 끝내고는 또 축원하고 오는 지라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은 두 되 그 삼일에 세 되 이와 같이 증가하여 못 가게 하였으나 며느리는 평화한 가정으로 살림을 할 생각으로 할일을 다 마치고는 하루도 빠짐이 없이 계속하여 오던 차 하루는 그 시어머니가 그 모양을 보리라고 그 곳 뒤에 숨어서 자기 며느리 하는 짓을 본 즉 돌부처에 가서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고치며 화순케 하여 달라고 축원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꼴이 나서 때리려고 소리를 칠 때 며느리는 그만 겁이 나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서 집에 온 지라 그 후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사죄할 생각으로 고대하였으나 종시 오지 않기로 문 밖으로 나가서 차츰차츰 돌부처에 가서 보니 자기 시어머니는 전에 하던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조금도 부동하고 서 있는지라 며느리는 겁이 나서 시어머니 앞에 가서 죄를 사하였던지 그제야 말을 하며 운신을 하여 전일부터 잘못된 것을 며느리한테 말을 하며 그 후부터 화평하게 잘 살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떠한 집에서는 망동 며느리를 데려온 집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과는 정반대로 하여 어떤 말이든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여 오는 관계로 양순한 시어머니는 별별 수단으로 이 며느리를 효부로 개선하여 고부간에 화합하여 살림을 하며 근검저축하여 대부가로 성가한 것이 있습니다.

옛적에 한사람이 아내를 얻으려고 들어 올 때 장인이 딸을 보고 하는 말이 새 옷과 좋은 음식으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고 대경실색하여 할 수 없이 실심한 태도로 귀가하였는지라 이 사람은 필연코 새 옷을 요구하고 좋은 음식만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반대로 도무지 요구치 않는지라 고로 남자는 전에 들은 말을 하며 어찌하여 그런 조미(粗未)한 옷과 조악한 음식을 먹는가 하고 물은 즉 여자는 하는 말이 '그때에 하신 말이 좋은 옷을 입으라 한 것은 때 묻은 옷을 때때로 세탁하여 입으란 말씀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란 한 것은 때로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여 깨끗이 하여 먹으란 말씀이요 결코 호의호식으로서 고등생활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어떤 날 남편은 자기 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과거일은 4, 5일 후이나 원래 빈한한 형편에 노비 한 폰이라도 없으니 갈 수 없다고 한탄하며 우는 지라 처는 그때 이번 과거에 가면 반드시 과거를 할 것인가를 묻고 자기 옷장 속에서 돈 40량을 내놓으니 남편은 감사함을 인사하고 과거길을 떠나가서 과거에 진사 급제를 하여 일등 장원하여 흥패 백패를 가지고 온지라 그간 처는 남편이 과거하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후원에 나가서 밤낮 불구 축원하였습니다. 첫째 나라에서는 특히 생각하시고 양주 목사를 제수케 되어 여러 관속을 데리고 양주읍에 가서 훌륭히 지낸 말이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한 것은 부부 합동하여 근실(勤實)히 노동하고 또 질소(質素)로서 검약하여 저축할 것이며 가정의 살림하면 반드시 남편보다 여자의 주장이 필요함을 생각해서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너무 오랜 변변치 못한 말을 올리어 미안합니다. 그만 그칩니다.

## 9. 비상시국과 화경(和敬)의 이상(1937년 11월 27일, 평강군 옥봉(玉峰)에서)

비상시국이란 말은 우리 일본제국과 중국과 4~5개월을 싸우고 있는 것을 이르는 것인데 4~5만의 병





사가 북삭(北朔)<sup>34</sup>)에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후(統後)에 국민으로서는 각자 생업에 성심성의를 가지고 보국할 것을 각오치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전 태평시대와는 다릅니다. 시국에 대한 말씀은, 군, 면 경찰관서 직원께서 촌촌부락마다 순회하면서 강연 강화(講話)를 해서 충분히 하실 줄로 압니다. 만은 내가 다시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일본은 동양에 안정세력을 가지고 있고 동양은 일본, 만주, 중국 즉 삼국이 있는데 우리 삼국은 미래의 행복과 동양평화유지를 위하여 과거에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동양에 평화는 일본의 세력에 있는데 이전 일청(日淸), 일러(日露), 만주사변 등의 희생도 동양평화를 유지함에 있습니다. 즉 만주국도 우리 일본의 힘이 아니면 잘 돼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진의를 모르고 오해하여 서양각국과 친하여 배일(排日)해 온 고로 이번 사변이 일어난 것이니 전 책임이 중국에 있습니다. 북지(北支)는 우리의 생명과 특수권익을 가진 지역이므로 상업의 증진과 경제개발을 위하여 20억 원의 거대한 자본을 늘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주병권(駐兵權)도 있습니다.

이번 사변은 주병권침해로 인한 것이고 더욱이 이 사변에 원인은 맵니다. 중국 사람들의 배일, 항일, 모일(侮日)을 하고 심한 것은 학교의 학생생도까지에도 교수선전(教授宣傳)을 해왔습니다. 동양의 정책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정부는 응징의 방침을 수립하여 황군을 파견한 이래 아울러 나갈수록 연전연승하여 북지(北支)는 전부 북해(北海), 소주(蘇州), 남경(南京)까지 무인지경(無人之境)처럼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정부 수령인 장개석(蔣介石)은 남경에서 피하여 중경(重慶)으로 옮겼는데 끝내 항복치 않으면 중경까지도 공격하리라고 오늘 아침 신문(新聞)에서 보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십분의 칠(十分之七)은 이겼습니다. 그 수습이 어렵고 사변은 상당히 장기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露西亞)의 각국의 지지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2~3년의 긴 날이 걸릴 것이니 우리 국민은 특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농산어촌민(農山漁村民)은 견인지구(堅忍持久)<sup>35</sup>) 일치단결이 더욱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선의 황군보다 총후의 우리 국민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군량, 마량(馬糧), 총기 등의 군수품도 우리가 보내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를 경제적으로 제일선의 장병에 보담하며 후고(後顧)에 염려가 없도록 출정군인의 가족유족도 성의와 온정으로써 동정해 주어야 합니다. 위문금도 충실히 바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로 물질적으로도 필요하나 정신적으로도 필요한데 즉 심전개발(心田開發)이 필요합니다. 심전개발이라는 것은 심의 개조인데 심전개발을 해야 생활도 안정되고 향상됩니다.

심전개발(心田開發)

불교 잡아함경(雜阿含經) 제4권

심전경작(心田耕作)이라함에서 나왔습니다. 마음(心)은 만 가지를 하는 것인데 즉 마음을 가지고, 집도 짓고, 곡식 심는 것입니다. 용지(用地)가 우리의 생명에 필요합니다. 민(民)은 이식위전(以食爲田), 밭 전(田)은 입 구(口)자 네 개가 모인 모양. 인(人)은 이식위천(以食爲天) = 날 일(日) 두개가 병행하면 명(明)자, 나란히 부친 것이 밭 전(田)입니다. 고로 전(田)은 농가에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34) 북방의 오랑캐의 땅.

35) 굳게 참고 견디어 오래 버텨.







농업(農)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니 전은 우리 생활에 또 중대합니다. 그러니 심(心)도 전(田)도 다 중대합니다. 심(心)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친하며, 안 친하며, 우습고 슬프고, 기쁜 일의 만사가 벌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산에 초목도 벌어져 나옵니다.

옛적에 석가여래(釋迦如來)가 일찍이 도통해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방방곡곡이 세계를 무대삼고 다닐 적에 어느 여름 농촌 별판에서 수천인이 삼, 사십 명씩 군데군데 서로 모여 앉아 점심을 먹는데 그때에 부처님이 지나다가 ‘나는 배가 고프니 점심을 좀 달라’고 하니 어느 청년 하나 있다가 대답하기를 ‘밥이 없다’하면서 ‘당신이 미리 올 줄 알고 밥을 해 두지 않았으니 당신 줄 밥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물론 내 밥은 없으게오 당신들의 밥을 십사일반으로 나눠주소’했습니다. 농부들은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이니 당신은 먹을 자격이 없다 가래질을 했느냐, 종자를 뿌렸느냐, 김을 매었느냐, 벼를 베었느냐, 도리깨질을 했느냐, 당신도 일을 해서 먹으라 도(道)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하는 말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못 먹느냐 나도 농부에 하나이다. 전답을 갈아야만 농사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농사다’하며 말하고 자꾸 자꾸 피차 떠들고 법석할 제 온 별판에 사람이 산 같이 모여 왔습니다. 이때에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농사짓는 방법은 몸뚱이 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 속에서 나오는 마음(心)이 있어서 사람이다.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몸뚱이만 있고 정신이 없으면 해애라비고 또 몸뚱이가 없고 머리 정신만 있으면 귀신이다. 몸과 머리가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 된다. 몸뚱이를 먹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사람은 먹고 입고 잠자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인무학(人無學)이면 비인(非人)이다. 염치가 사람에게 없으면 짐승(개, 돼지)과 같다. 금수도 배고프면 먹고 치우며 굴속에 드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이 양식을 구하고 정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 고서에 화호난화골(畫虎難畫骨), 지인불지심(知人不知心)이라 하였으니 마음(心)은 무형이다. 마음(心)은 형용(形容)이 밍고 곱다는 만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심전(心田)이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볼 때에는 「황무지」라 왜 그러냐 하면 상살(相殺), 강절도(強劫盜) 등 모든 악이 차서 사람들이 심전을 경작치 못하였으므로 황무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심전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농부들은 춘하추(春夏秋)에는 일을 하나 겨울(冬)에는 쉰다. 그러나 나의 심전경작면적은 동남서북지구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만 리에 이른다(亘)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친다. 만나는 대로 밤낮 가르친다. 사람으로 하여금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봉우(朋友)에게 믿게 하며 여인은 남편에게 공경하도록 겨울도 쉬지 않고 밤도 낮도 헤아리지 않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만 되라고 가르친다.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에는 사람이 제일이라. 다른 동물은 기어 다니지만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하늘에 가깝도록 다니는지라.

나의 농사는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子), 고행위시우(苦行爲時雨), 지혜위리액(智惠爲犁耨),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轆).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子)라 하는 말은 남편이 처를 믿지 않고 처가 남편을 믿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신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불신하면 집이 망하나니 이와 같이 자꾸 자꾸 불신이 모여가면 나라가 망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아들을 믿으면 집이 흥(興)하고 남편이 부인을 믿고 부인이 아버지를 믿으면 집이 흥하며 이와 같이 신심(信心)이 모여가면 나라가 흥(興)할 것이





다. 신(信)은 성(誠)이다. 남편은 부인에게 성심으로 하면 집이 화(和)하고 아버지와 자식의 대함을 성심으로 하면 가화(家和)한다.

지금 우리가 비상시국에 있어서 황군은 우리를 믿고 우리는 황군을 믿어야만 국난을 타개하겠는즉 국내 사람은 최후일각까지 후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 믿는 것(信)을 종자로 삼는다.

고행위시우(苦行爲時雨)란 것은 간단히 말하면 어렵게 실행하면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지혜위리액(智惠爲犁鞭)란 것은 지혜로 버선을 삼는다는 말인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천하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충효의 사람이 되도록 할까 하는 것입니다.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轆)이란 말은 사람이 참괴심(慚愧心)<sup>36)</sup>이 있어야 향상이 될 것인 즉 항상 참괴심으로 멩에를 삼으라 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로써 심전개발의 농사를 짓는다. 즉 화교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육화교합(六和教合)」이란 것으로 설교했으니

1. 신화동경(身和同經)
2. 구화무쟁(口和無爭)
3. 의화무건(意和無建)
4. 견화동해(見和同解)
5. 계화동도(戒和同導)
6. 이화동균(利和同均)

1.은 수신제가(修身齊家)라 남에게 잘 되도록 몸을 단정히 가지는 것이고

2.는 내외나 형제나 친구 부자 등의 전부가 이미 화(和)하지 않으면 쟁투(爭鬪)가 나는 것이다.

옛적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남편이 술이 취하여 집에 들어오면 주정질을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어떤 때는 술 먹고 집안에 들어와서 마누라 머리채를 쥐고 막 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혀 마누라는 남편의 주정질을 고치기 위하여 뒷산 절(寺)에 가서 기도드리며 어느 중(僧)한테 물어보기를 자기 남편이 술 먹고 주정질을 하니 가정불화가 생겨서 기도를 드리러 왔나이다. 무슨 좋은 도리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중의 대답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술 먹으러 나가거든 방 구석구석에 물을 떠 놓고 있다가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주정을 시작할 때는 떠놓은 물을 얼른 마시고 하면 장차 가정이 화합하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여전히 문밖에서 부터 헤욕질하며 들어올 때 마누라는 중이 시킨 대로 떠났던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니 남편이 생각하기를 이년은 오늘은 병어리가 되었나 하고 한참이나 욕질을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니 남편은 싱거워서 그만 주정질이 자연 없어졌습니다. 맛장구를 쳐야 불화가 생기는 것인데 여인이 물마시고 대답을 아니 하니 그래서 싸움이 없어져서 그 후는 화합해졌습니다.

또 한 예는 어떤 화합한 가정과 불화합한 가정이 있는데 화합한 가정에서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잘했더라고 항상 잘했습니다 라고 해서 집안이 화합하고 불화합한 집에서는 잘못했어도 잘했다고만 하니 늘 싸움이 잦아서 하루는 불화합한 집 사람이 화합한 집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그 대답이 우리 선

36) 부끄러운 마음, 염치.





조의 유훈(遺訓)이 상하를 막론하고 늘 잘못했다고만 하면 불화는 없는지라 하셨기에 그 유훈을 지켜오니 과연 가정이 화합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3.은 문구 그대로입니다. 뜻이 화해야 틀림이 없습니다.

4.는 의견이 화해야 틀림이 없는데 단체나 국가도 의견이 화해야 융성할 것이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면 아니 되며 국론통일도 즉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5.는 국민은 절대로 국법을 준수하며 가정에서는 가정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고 불교에서는 계(戒)로써 절대복종케 하는 것이니 계라는 것은 국가에는 즉 법이요, 사회에는 도덕이요, 가정에는 가헌(家憲)과 같은 것입니다.

6.은 이불가독식(利不可獨食)인데 즉 가정에서도 남편이 자기 혼자만 돈을 쓰지 말고 부인에게 금비녀 같은 것을 사주어야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또는 자기 혼자 돈이 많아도 사회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해야만 하고 또는 크게 말하면 국가비상시에는 국가에도 헌납을 해야만 국가가 평정히 나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혼자서 안 되며 경제융화도 이것입니다.

1. 경우무숙견(耕牛無宿牽)

2. 창서유량(倉鼠有糧)

3. 만사분기정(萬事分己定)

4. 부생공자망(浮生空自忙)

해설하면 밭가는 소는 묵은 풀이 없고 곳간 속 쥐는 양식이 있는지라. 만사가 분수가 이미 정해 있는데 세상 사람이 공연히 스스로 바쁘게 군다. 즉 다시 말하면 소는 일을 해도 먹을 것이 묵어있지 않고 쥐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늘 양식이 많다. 그와 같이 세상 사람의 일도 운수가 정해 있는데 공연히 자기의 이익만 취해서 덤빈대도 안 되는 것을 각오치 않으면 안 됩니다.

최후로 단단히 여러분께 부탁하여 말씀할 것은 한마디 있습니다.

옛적에 양두사(兩頭蛇)가 있는데 이 뱀은 꼬리와 머리와 늘 싸우고 있습니다. 머리가 꼬리를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해서 먹고 듣고 사람의 해(害)도 피하는데 너는 몸도 죽고 너는 코도 입도 없고 나만 따라다니느냐, 내가 먹어야 너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꼬리가 하는 말이 '뱀은 꼬리가 있어야 뱀이다. 내가 없으면 너를 누가 뱀으로 인정하겠느냐 내가 방해하면 너도 먹지 못한다.' 하루는 어디를 가다가 나무 위에 올랐을 때에 꼬리가 나뭇가지에 자기 몸을 칭칭 감고 며칠 동안 풀어주지 않으니 머리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 그때에 머리가 항복하며 통사정을 했다. 꼬리는 항복을 받고 자기 몸을 풀러 땅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머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먼저 앞서서 다니자하고 그 후로는 꼬리가 앞서서 다니다가 눈이 없어 보이지 않아서 그만 불덩이에 들어가 타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상하가 분명히 정해 있으니 상하는 일치화합 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서로 화합일치단결 해서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대화교정신(大和敎精神)을 잘 깨달으시고 이 비상시국에 처하시며 일본제국이 바른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





## 10. 신앙생활과 거화취실(去華就實)(1937년 12월 6일, 김화군 금성(金城)에서)

작년 7월 이곳에서 여러분을 대하고 1년 후인 오늘 또 다시 여러분을 대하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적지 않은 인연으로 압니다. 시국에 대하여는 이미 도(道)나 군(郡)에서 여러 가지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겠기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정신생활에 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하면 이번 사변의 원인은 전부 중국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일본은 세계적 안정세력으로서 동양평화의 맹주로 한 손으로는 만주국을 한 손으로는 중국을 껴안고 영원한 동양평화를 기도(企圖)하여 왔던 것입니다. 즉 동양평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적이오, 이상이오, 방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이 노력에 점점 어그러질 뿐 아니라 전연 이해하지 못하고서 역화사상(亦化思想)으로 세계를 뒤엎으려는 음흉하기 그지없는 소비에트 러시아(露西亞)와 악수하여 나가려 하며 우리나라의 친애, 부조(扶助)의 친절한 태도를 단번에 배척하고 항일배일을 계속하여 왔던 것입니다. 중국은 자진하여 우리나라와 제휴하여 동양평화를 수립할 것임에 불구하고 일본의 요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역사를 소고(溯考)<sup>37)</sup>하여 볼진대 과거에 있어서 만일 동양에서의 일본의 세력이 없었더라면 중국의 전 판 국토는 세계 각 국에 영토로 되었을 것이 명백한 사실이요, 오늘날 중국 심장이라 할 본부만이 남아서 유지되어가는 것도 오로지 일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 점에서라도 중국은 우리 일본에 대하여 감사하며 제휴(提携)하여 나아가며 동양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인데 도리어 항일, 모일(侮日)을 국시(國恥)로써 주재영사관원의 살해, 재류나인(在留那人)의 납치, 구타사건 등 모일적(侮日的) 적극행동을 노골(露骨)적으로 취하여 왔습니다. 즉 지난 7월 7일 사변 발단 이전 중국은 국내 각 언론기관 각 학생, 아동층을 통하여야 항일, 모일, 배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고취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일촉즉발(一觸即發)의 예민한 형세에 이르렀던 것이 드디어 7월 7일 밤 북지(北支) 주둔 황군이 노구교(蘆溝橋)에서 야간 야외연습 중에 중국군의 불법사격으로써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변발단과 함께 우리 측에서는 즉시 마치안(馮治安), 송철원(宋哲元)에 대하여 엄중항의를 하는 한편, 8일 오전 중으로 패퇴시키기를 약속시켰던 것이니 마(馮), 송(宋)은 자기에 직속군대가 아니므로 주지할 바 아니라는 대답을 하게 되자 이를 비적(匪賊)으로 인정하고 섬멸(殲滅)키로 하고 드디어 소탕하게 되자 중국군은 공공연히 적대행동을 취하여 온 것이다. 무적황군에 하나에도 도저히 대적할 여지가 없어 백기를 들고 진사(陳謝)<sup>38)</sup> 해오자 우리 편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건을 무사히 해결코자 힘썼으나 송철원은 표면만으로 진사를 보이고 실지에 있어서는 남경정부(南京政府)<sup>39)</sup>와 연락을 취하는 한편, 중앙군을 복상시키며 뒤미처 모방(口坊)불법사격사건, 북평광안문불의타사건(北平廣安門不意打事件) 등 적대행위를 취하고 장개석(蔣介石)은 장기항일을 선고하는 등 본거를 근절키로 결의한 것입니다.

즉 우리 제국정부는 3억 7천만의 중국 민중을 도탄에서 구하기 위하여 악분자를 응징(膺懲)코자 정의의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단 후 불과 수개월의 금일 십분의 팔, 구는 함락(陷落)시키며

37) 거슬러 생각해 본다는 뜻.

38) 까닭을 설명하며 사과의 말을 함.

39) 장개석(蔣介石)이 수장이 되어 좌파 무한(武漢)국민정부에 대항해 남경에 수립한 국민정부를 뜻함.





전 중국을 점령한 감(感)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경 함락이 가까운 금일 아직도 장개석은 사변으로 인해 천도(遷都)를 하는 등 장기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숨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절치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그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에 이를 것임은 총독각하의 훈시로써 명백한 것입니다. 고로 우리 국민은 일치협력하여 시국 난관 극복에 매진(邁進)하는 동시 생업보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에 성의를 계속하여 얼마나 장기에 이르러 지구전에 들어갈 지라도 이것을 돌파해 나갈 각오가 필요한 바 이 난국돌파에 대한 방법여하에 있어서는 각인각종에 의견이 있을 것이다. 나는 종교방면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의한 천화취실(天華就實)<sup>40</sup>로써 극복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신(信)하고 이를 강조하는 까닭(所以)입니다. 신앙은 마음을 긴장(緊張)시키는데 필요한 고로 우리는 신사참배, 경신사상(敬神思想)의 고취(鼓吹) 등 믿음을 통하여 국민전체가 단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각 농촌의 중추인물(中樞人物)이 각기 신앙심이 충만하다면 어떠한 외적강적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어에 '우리는 항상 전쟁을 하고 있다'함과 같이 우리는 자신, 가정, 사회, 생활을 통해 언제나 항마(降魔)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1. 내발(內發)적 속박과 2. 외습(外襲)적 속박이 있습니다.

내발적 속박은 욕망, 허욕, 부정한 마음 등 중심에 고통을 익히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속박하는 것인 바 인생은 여잠처이충(如蠶處繭中)이라는 불교의 말씀과 같이 인생은 누에가 자기에 뽕을 실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어리 여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외습적 속박은 자유와 욕망 또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외부에서 제지하는 장애물이 있는 바 이를 가리켜 외습적 속박이라 하는 것입니다. 왕양명(王陽明)의 말씀에 「산중 도적을 무찌르기 쉬우나 심중(心中)의 도적은 무찌르기 어렵다」하는 말이 있음과 같이 우리는 마음에 도적을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수양(修養), 수도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전쟁을 어찌하면 이길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신앙생활은 이것을 제지해 나가는 유일의 무기입니다. 국가의 내란, 가정의 내란, 마음의 내란을 이기지 못하는 고로 외란이 생기는 것이므로 마음의 승리가 가정의 승리이며 국가의 승리임으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본은 신(神)을 중심으로 건국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국민도덕을 고정하고 위(上)로 황실을 모시고 고유한 신앙심을 배양(培養)하는 가운데 이 모든 속박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어떠한 방법으로 익혀나가야겠는가 힘에 대하여 말씀하겠는바 즉 삼심(三心)의 수양이란 것이 있는데 1. 환희심(歡喜心) 2. 자애심(慈愛心) 3. 견고심(堅固心)의 세 가지를 가리켜 삼심(三心)이라 합니다. 첫째 환희심은 보은감사의 정신인 바 나라는 이 한 몸이 있음은, 1. 국왕은(國王恩) 2. 부모은(父母恩) 3. 삼실은(三實恩) 4. 사장은(師長恩) 5. 사회은(社會恩)의 다섯 종류 대은(大恩)의 덕(德)임을 생각하고 보은감사의 염(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왕은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인바 보은감사의 진수는 국왕은입니다.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생명을 바치어 국왕께 보은치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유대민족(猶大民族)은 부(富)의 축적으로는 세계에 제일일 뿐 아니라 또한 세계적 학자가 많습니다. 돈이 많고 학문이 있고 인격이 있으며 기술이

40) 거화취실(去華就實)의 오기. 걸치레를 삼가고 실질을 추구한다는 뜻.





있지만 가는 곳마다 패배를 당하여 쫓기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일월(日月)과 같은 황실을 뒤흔고 대일본국토에서 안락한 살림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국왕은입니다. 고로 가정교육도 국왕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라는 충효교육을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모은은 '경부지천(敬父知天) 경모여지(敬母如地)'란 고어와 같이 부모에게 효하고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할 것이며 불법승삼보(佛法僧三寶)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학문을 주신 스승(師長)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회에서 살아가며 사회에 은혜를 입은 이상 사회은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말할 수 없이 불행하고 비참해서 다시 용납할 수 없는 자라도 이 5대 은혜를 갖지 않는 자 없고 5대 은혜 중에 빠지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사찰에 노승이 실수해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제자들이 위로하니 노승이 웃으며 말하길(笑曰) '늙어죽을 때 이리된 것은 부처님이 깨우쳐 주심이 오히려 늦은 것이다. 따라서 감사를 모르고 지나왔으니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의 은혜를 깨닫겠다. 몸의 일부분이 이러하거든 몸을 만들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몸이 건전할 때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못함이 부끄럽다. 팔십 후 오늘날 겨우 깨우치고 보니 이미 때가 늦었다고 이것은 신앙생활에 들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이러한 생각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희심이 없고는 항상 불평불만이 생기는 고로 살아 나갈 때 우리들은 위를 쳐다보지 말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 것이며 태평한 마음으로 환희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것이다. 오늘날 싸움하고 있는 중국군을 불진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전쟁마당에 서게 된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탈, 방화를 일삼고 있는 형편이다. 황군은 그렇지 않아서 황국(皇國)을 위해 오로지 생명을 바칠 각오와 의기(意氣)아래 감사하는 동시에, 불행히 총포 밑에 넘어질 지라도 성상폐하(聖上陛下)의 만세와 함께 기뻐하며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환희심이 필요한 것이나 일조일석에 배양(培養)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오랫동안 교육 종교수양에 힘을 빌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애심인 바 자애심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1. 인류애(人類愛)<sup>41)</sup> 2 동물애(動物愛) 3 자연애(自然愛)의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동포애로써 서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모성애는 있지만 그 외는 아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동정심 즉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태양과 같아 따뜻하며 기계기름과 같이 서로 충돌이 없이 원활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쓸쓸하며 사랑이 없는 가정은 사막과 같으며 사랑이 없는 국가는 냉혹할 것입니다. 옛적에 친구 두 사람이 사냥을 하러 산중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추위와 굶주림에 몸이 얼어붙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도 숨이 좀 남았다. 어찌 친구의 죽음을 그저 보고만 있으랴. 사랑하는 친구의 전신을 마찰하며 소생시키리라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친구에 전신을 마찰하는 동안 서로 서로 운동이 되어 맥이 돌아오며 따라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있음과 같이 인생은 자기 혼자만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므로 서로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며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경로애유(敬老愛幼)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 인생선대(先大)에 천성(天性)입니다. 예수교에 박애(博愛), 유교에 인의(仁義), 불교에 자비(慈悲) 등

41) 동포애(同胞愛).





이다. 이 사랑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함정에 빠진 것을 볼 때엔 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늘 하물며 동족 간에야 물론 말할 것이 없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번 사변도 우리 황군은 정의와 인류애로써 싸워나가며 폭력무쌍(暴戾無雙)<sup>42)</sup>한 장개석 정부를 타도(打倒)하여 2억 7천만에 중국 민중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실례로 본다면 서로 서로 다투어 그 결과 무고한 인민이 희생당한 자만도 헤아릴 수 없지만은 수치(數支)인 바 소위 공산당의 발호(跋扈)로 인하여 150만이라는 동포가 죽었으며 각 군벌의 투쟁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자만이 이 십여 년 간에 1천 5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경애(敬愛)와 친애심(親愛)을 가지고 인보상조(隣保相助)로 서로 자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물애인 바 동물애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는 동물, 특히 가축동물로 많은 은혜가 매우 큰 것입니다. 만일 양이 없다면 모직물이 없는 것이고 우마(牛馬)가 없으면 전시는 물론 운반 상하자유를 느낄 것이며 개도 현대에 있어서는 사람이상에 활약을 하고 있음은 이는 사실로써 소, 말, 양, 돼지, 개, 닭, 고양이, 집오리가 없다면 인생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 지순대사가 한 마리에 부영이가 포수에게 쫓기어 암자로 날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벽장 속에 감추었더니 곧 포수가 쫓아 들어와 부영이를 내노라 하기에 ‘지금 이 부영이를 내어주면 그대가 잡아먹을 것이니 못 내어주겠노라. 정 고기가 먹고 싶거든 부영이 대신 내 고기를 먹으라’ 하며 칼로 자기에 두 귀를 베어 주었다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그 같이 자기의 몸으로 동물을 대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나 동물을 볼 때 저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역(使役)한 다음 잡아먹겠다고, 우마(牛馬)의 짐을 많이 싣고 끌지 못한다고 때려 등을 벋기는 것과 같이 동물을 학대(虐待)해서는 못습니다.

끝으로 자연 우리는 생활상의 필수품(必需品)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연물에 혜택을 생각할 때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써야 할 것입니다. 즉 경제절약을 해야 할 것인바 특히 현 전시체제의 비상시국을 당해 수입은 이전과 동일하나 지출이 엄청나게 초과되는 실정이니 의복, 음식물 등을 절검(節儉)하며 폐물(廢物)을 이용하는 등 후생이용을 하여 보국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견고심. 오늘의 전쟁은 일견 무기의 싸움과 같으나 실로 그 무기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마음의 싸움인 것이 즉 국민과 국민의 싸움인 것이니 그 국민전체에 마음의 견고 여하로 오늘날의 싸움은 승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으로 본다면 물질은 세계의 비류(比類)가 넓은 만치 풍부하나 가는 곳마다 섬멸패전을 당하고 있음은 그 국민의 마음이 견고치 못한 증거(證據)라 하겠습니까. 그런 고로 우리는 신앙심을 토대로 하여 견고심을 배양하며 의지를 단련(鍛鍊)시켜 최후(最後)까지 겨누고 이겨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즉 종교, 신앙을 통하여 거화를 하고 실질을 강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국난을 타개(打開)하리라 믿는 바입니다.

한마디나마 여러분에 수고될 말씀이 있다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박수)

42) 폭력무쌍(暴戾無雙) : 인도에 벗어나게 모질고 사나움이 비할 데가 없다는 뜻.





## 11. 심전개발과 국민지구전(國民持久戰)(1937년 12월 6일, 김화군 창도(昌道)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뵈게 된 것은 심전개발과 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강연을 하라고 청한 바 있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모양을 보시면 아시려니와 저는 절에 있어 종교에 몸을 바친 사람으로 기도를 올림으로 주로 삼습니다. 여기서 역시 국위선양과 무운장구 기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합장하면서) 합장을 하시고 일어서십시오. (일동기립) 그리고 제가 불경말씀을 올릴 터이니 따라하십시오. (돌아서서)

귀의불양족존(歸依佛兩足尊), 귀의법리욕존(歸依法離欲尊), 귀의승중중존(歸依僧衆中尊) 다시 돌아서 앉으십시오. 일동착석.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연 주제는 「심전개발과 국민의 지구전」이라는 것으로 약속(約)한 시간동안 말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국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국에 대한 말씀은 군청, 경찰서, 각 관공서 여러분의 말씀을 이미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사변이 생긴 후 전황(戰況)이 어떠한가 하는 자세(仔細)한 것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대략 말씀하고 다음에 심전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대한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시국이 얼마나 중대한가 말씀하면 여기에 계신 여러 백 명되시는 분이 창해(蒼海) 간에 배를 타고 항해하실 적에 그곳에는 노도폭풍(怒濤暴風)이 있고 해적과 같은 나쁜 행동을 하는 분자(分子)를 만난다고 하십니다. 이런 난관에 봉착할 때에 어떠한 분별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오직 선중(船中)에 계신 여러분이 일신일의(一身一意) 일치단결하여서 어떤 방법이든지 노도풍랑(怒濤風浪)을 헤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해적을 정당방위로 물리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동양에는 대일본제국이라는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는 일본, 조선, 만주 동포가 모여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대일본선이 항해를 할 적에 난관인 무서운 바람과 사나운 바람과 사나운 물결과 나쁜 해적이 대일본선을 향하여서 올 적에는 내선일치(內鮮一致) 내선만(內鮮滿)이 일치하여 일신일의의 대동단결하지 아니하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국인식에 있어 이 사변이야말로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은 여러 생도들도 교장선생님 또는 담임선생님께 들어서 잘 알겠지요. 우리 제국과 중국과 4-5개월에 이르러 싸우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일본이 중국의 지도자인 것을 모르고 영토적 야심이 있다고 악선전을 하면서 곤란에 들게 한 것인데 우리 제국이 중국을 응징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고 서미(西美)세력을 구축(驅逐)하며 미래의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미국, 프랑스(佛國) 등 여러 나라는 야심을 가지고 중국에 마수를 펴고 동양에 대하여 침략적 행동을 하고 항구, 해관세(海關稅), 금광(金鑛), 철도부설권 등 중국 것을 전부 서미인이 영유하게 되어서 중국은 겨우 심장만 가지고 각 기관은 다 분실할 운명에 닥쳐 있습니다.

심장만이라도 갖게 된 그 원인도 동양판도 내에서 동양의 안정세력인 일본 때문에 각 기관이 잔존한 것입니다. 만일 일본이 아니면 벌써 심장부까지라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 일본과 악수하여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제국을 무시하고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하고 추진하여서







지도함을 듣지 하고 러시아(露西亞)와 서양세력을 믿고 의지함에서 이번 사변이 생기게 된 게 첫째 원인입니다. 동양평화건설의 둘째 목적은 중국의 의퇴하는 마음을 깨뜨려서 동양은 동양인의 손으로 훌륭하고 강한 동양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일만지(日滿支) 삼국이 궤도를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옛날 부터 우리 일본은 동양의 지도자요 만주와 중국을 옹호(擁護)하여 왔습니다. 옛날 솥(鼎)은 발이 셋이지요. 그 솥도 발이 셋이 있어야 되지 하나라도 없으면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치 협조하여야 될 것이며 또는 경제문화를 통하여 장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일본의 진의를 중국이 알아야 할 것인데 만주는 우리 제국의 지도를 달게 받아서 현재와 같이 좋은 나라가 되었으나 중국은 우리의 진의를 모르고 또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산주의라는 나쁜 것을 갖은 러시아와 악수해 가지고 일본에 대항하며 또 영국과 같은 실리주의인 나라 즉 야심을 가지고 타국으로 하여금 이간질 붙여서 중간이익을 착취하는 나쁜 국민성을 가진 그런 나라의 평판에 사로잡혀 속아가지고 영국을 의뢰(依賴)하며 이이제이(以夷制夷)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일본을 배척하는 것으로 여간 변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중국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서양의 세력은 중국을 거쳐 만주 조선 일본 이렇게 침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4억만 인민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책임을 가졌으며 4억만 인민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요인(要人)은 대개 군벌파로 대다수의 인민을 도탄에 집어넣어 1천 5백만이라는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청중으로 '아이구') 이 아름답지 못한 사실은 러시아의 선동에 의하여 4억만이나 살고 있는 큰 나라가 자멸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우리 제국은 국방상 정당방위와 자위심(自衛心)으로 이번 사변을 피치 못하게 된 것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우리 일본은 어디까지든지 중국을 옹호하려고 합니다. 족속은 비록 다르나 동양인 됴름은 마찬가지로 고대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입되었던 관계라든지를 보아서 지금도 악수하여 친절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임으로 일지(日支)친선문제를 가지고 역대의 내각은 물론 전일본국민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성의를 무시하고 중국 장령(將領)들은 자기의 이권획득에 일심을 다하느라고 여일(餘日)이 없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엄폐하기 위하여 국민사상의 방향전환을 시키고자 일본은 자기네 적이라고 국민에게 높이 외쳐 우리는 단합하여 항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자기네 야심을 만족케 하려다가 많은 인생을 도탄에 넣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은 우리 일본에 대하여 배일(排日), 항일, 모일(侮日)함으로 만주사변 이후 6, 7년간으로 일삼아 왔습니다. 장개석(蔣介石)의 발육사상은 배일사상으로 소학교 교과서에까지 이 사상을 집어넣어 만들게 하여 소학교부터 배일사상을 집어넣게 하였고, 자기의 이권을 넓히고 국가를 통일하고자한 경로가 중국으로 하여금 파옥(破沃)하게 하여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북경에서 서남으로 30리쯤 되는 노구교(蘆溝橋)에서 황군이 야간연습을 하려고 할 적에 돌연 중국군이 불법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연습중지를 시키고 중국 측에다 엄중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북중(北中)에서 산해관(山海關)까지는 정전협정 지대입니다. 즉 매진하응흙(梅津何應欽)과의 협정한 것인데 중국 중앙군이 이곳에 와서는 안 되고, 주병권(駐兵權)을 가지는 지역부근에서는 자유로 연습(演習)과 교련(教練)을 하게 되어있지 아니하냐고 항의를 한 즉 중국 측의 답변이 불법사격을 한 것





은 송철원(宋哲元)의 부하가 아니고 토비(土匪) 또는 마적이라고 변명하고 쫓아버려도 좋은 일본군이 죽이던지 살리던지 우리는 관계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군 측에서는 현물조사를 중국 측과 한 다음 중국군의 철퇴를 요구하였었는데 8일 오전 4시까지는 용왕묘(龍王廟) 부근 영완하(永完河) 서쪽 장행점(長幸店) 부근으로부터 집결중인 아군에 대하여 불법도전(不法挑戰)을 함으로 황군은 부득이 응전(應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감한 황군 앞에는 추풍낙엽으로 흩어지고 말았으며 송철원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과하여 정전을 간절히 원해 와서 일시 정전상태로 되게 되었고 아군 측에서는 불확대주의로 은인자중(隱人自重) 하였던 것입니다. 8일 오전 11시까지 철퇴요구를 하였던 바 철퇴하겠다고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면서 외적으로는 군대이동을 하여 전투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향(良鄉)에서 작업 중인 공병을 향하여 불법사격을 하며 북경에는 우리나라 재주동포(在住同胞)가 많은데 중국 측 군대급 관청의 반일감정이 의외로 치열하고 우리 헌병 2명을 검속(檢束)하고 그밖에 재주동포에게 대하여 가택침입 부녀자에게 추해(追害)하는 등 위협이 심하여 감으로 재주동포의 보호에 당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우리 군대는 출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경성 내에 입성하려고 할 적에 고의로 광안문을 닫아버리고 중국군은 우리 군대에 대하여 난사를 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군 측에서는 자중하여 왔던 것인데 중국 측은 일본이 실력이 부족하여서 그런가보다 하고 자꾸 도전(挑戰)하여오므로 부득이 응전하였고 북지(北地) 내에서 정전하고 무사해결을 요망하였던 것인데 여러분의 기억에 아직도 새로운 통주사건(通州事件)이 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실 테이지만 중국 측의 포악무도한 편의대(便衣隊)가 우리 재주동포에게 대하여 비인도적 행위를 감행하고 상해에서도 8월 9일 대산대위(大山大尉) 사건이며 그밖에 수병사건(水兵事件) 등 이런 여러 가지 외 불평사건이 속출하고 장개석은 일본과 전쟁하겠다고 중국 전토에다가 선언하기를 우리는 장기전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장기전이래야 우리 편이 유리할 것이니 국민은 단결하여 구국에 나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제국은 그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정당방위에 나가게 되어서 지나사변이 된 것입니다. 북지나사변(北支那事變) 이후 4, 5개월간을 세계에 제일 강한 황군은 금상천황폐하의 성령(聖慮)을 받들어 선전하여 왔으며 국민은 황공하고 감격하여 이사보국(以死報國)하겠다고 굳게 생각을 갖게 되어 북지사변(北支事變)은 지나사변으로 되어 상해를 함락시키고 소주(蘇州)를 함락하고 남경함락도 목척(目睫)<sup>43)</sup> 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1선에서 나라를 위하여 싸움하고 있는 황군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름날 북지(北支)의 혹서(酷暑)라면 철도 녹일 만큼 더운 130~140도나 되는 전장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대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솜옷을 입고 실내에 앉았어도 춥다고 하시지요만은 중국 더욱이 북지방면은 여기보다 춥기가 10배 20배나 더하여서 병사들이 신은 구두와 발이 얼어붙어서 한 번 신은 것은 뺄 수가 없다고 하며 소변을 누면 그대로 고드름 같이 언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선의 노력과 실행을 짜서 우리 자신도 한가지로 결심을 해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보국(以死報國)하는 우리 병사를 생각하고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하는 동시에 생산을 많게 하며 경제력을 충실케 하여 생업보국(生業報國)을 하는 것이 선

43) 눈과 속눈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아주 가까운 때나 장소를 비유함.





결조건이올시다.

미나미(南) 총독 각하 순시에도 대단히 중대한 시국에 당하였으며 사변은 단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기에 이를 것이니 낙관을 불허함으로 치안문제와 질서유지에까지 특별 유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개석이가 다수의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까지도 불복하는 것은 외국의 소동때문이에요, 외국인을 의뢰하고 제삼국의 간섭을 들어가지고 있는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잔병에다가 항일사상을 강조하여서 곳곳에서 아직도 항전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단연 그 근거를 소탕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므로 사변은 장기에 걸쳐있는 것이요. 장기에 걸쳐있을 수록 민심통일과 국론일치하여 가지고 당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올시다. 저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연합군과 싸울 적에 프랑스(佛蘭西), 러시아(露西亞), 영국(英吉利) 이 여러 나라와 4~5년간을 싸우면서도 이 여러 나라의 군대에게 독일의 영토를 밟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강한 독일의 국민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왜 패하였나 하면 경제 때문에 패전하였던 것입니다. 4-5년간을 싸우는 사이에 연합군 당사국에서 독일에 대하여 경제봉쇄를 하였던 것입니다. 경제봉쇄가 되니까 외국품(外國品) 수입은 절대로 못하게 되고 국내 물자가 결핍하게 되어 장기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보다도 부인들이 먼저 각성하였던 것입니다. 전쟁하는 사이에 남자들은 전부 전장에 나가게 되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치정(治政)을 하게 되어서 그 관공서를 비롯하여 모든 직업을 맡아 가지고 군수품 수송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간을 이 부인들의 열렬한 원조로 잘 싸우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많은 돈이 들고 경제봉쇄를 당하고 보니 국내가 어찌할 수 없게 되니 부인들이 그만 염증이 생기게 되어 이와 같이 더 싸움을 계속 하면 국내는 기아(飢餓)하여 다 죽고 말 터이니 정전(停戰)을 하라고 부인들이 먼저 외치고 자기네 가족이 출전한 것을 소환하여 달라고 야단을 치고 국내에는 혁명사상이 농후하게 되어 부득이 정전하게 되어 독일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이 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속할 만한 경제력이 없던 것이 큰 원인이올시다. 이것을 우리나라에다가 비취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독일의 패한 원인을 알아가지고 경제적 대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요, 독일의 그것이 우리에게 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소비에 절약근검해서 5년, 10년이 가도 국내 경제가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 지구전을 계속하려면 국내민중이 강한 후원을 할 것이요, 황군을 위문하며 진심을 다하여 총후(銃後)의 성원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충실하여 경제력을 크게 하는 동시에 이 사변의 정도를 짐작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인데 아무래도 6~7년간은 간다는 것을 감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신앙생활을 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시국에 대하여 없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그 골자로 말씀할 것은!! 심전개발(心田開發)이올시다. 심전개발이라 함은 정신의 개조입니다. 마음을 고쳐서 강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일치단결은 모든 신념으로부터 신앙심을 고취하는 데에 있습니다. 정신상에 있어 굳은 신념으로 능히 지구전을 감당하리만큼 되어야 합니다. 심전개발은 정신작풍에다 종교를 숭배하여 신앙심을 고취하는 것인데 그 출처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펍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불교의 교주는 부처님<sup>44)</sup>이올시다. 부처님께서 가비라국(加毘羅國) 왕자로 태어나서

44) 불타 : 佛陀.





가지고 이 세상에서 큰 목적을 달성하셔야 되겠다 하시고 감히 생각하신바 계시어 조그만 나라 영토 내에서 선정을 한다면 이 나라 밖에 있는 천하 여러 나라 사람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면 조그만 나라 왕보다 우주중의 법왕이 되어 가지고 천하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감히 뜻을 품으시고 설산에 들어가시어 6년간을 공부하신다음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즉 도통하여 가지고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전포하기 위하여 교화하시고자 방방곡곡으로 포교와 교화를 업으로 하시어 순회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늦은 봄 이른 여름인 농번기에 농부들이 있는 농촌으로 장사하는 시장으로 이골에서 저골로 지도행각을 하시게 되었는데 마침 어느 날들에 나가시게 되었는데 넓은 들에는 수백 명의 농부들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여러 집에서 점심밥을 만들어가지고 나와 이곳저곳서 모여와서 음식물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점심 먹는 곳에 나아가서 농부들을 향하여 '나는 도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시장하니 요기를 좀 시켜달라'고 말씀하신 즉 한 농부가 거절하여 말하기를 '우리 먹을 밥은 있어도 당신 줄 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밥을 요구하는 것은 한 사람 먹을 밥을 그대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주면 요기를 할 것이라고 하신 즉 또한 농부가 일어나 성을 내면서 '도저히 한 술이라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술이라도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시며 '어찌하여 그러냐고 물은 즉 '우리는 피땀을 흘려가지고 농사지은 것이니 주고 아니 주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그리고 임자와 같이 한가히 놀고먹는 사람에게는 밥을 줄 수 없다 만일 임자가 배가 고프면 지금 씨를 뿌리라 우리가 농사지를 적에 무엇 하나 조력하여 준 것이 있는가.' 이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농사지은 사람이래야 이 밥을 먹지 그렇지 아니하면 못 먹는다는 데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다 농사를 지으니 나에게도 부득불이 밥을 주어야 되겠다. 나도 먹을 만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나도 농사꾼의 한사람이니 농부면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신 즉 농부들은 그런 이치가 어디 있는가 여러 사람은 모두 소리를 합하여 '당신이 무슨 농사를 언제 하였는가'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나도 이곳에서 농사를 하겠다 그리고 농부인 것을 알아 줄 터이니 모두 모이라고 하신 즉 이웃에 있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높은 언덕에서서 여러분이 모였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언성을 높여 '내가 농부인 것을 설명을 할 터이니 잠시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시고 '대단히 바쁘지만 좀 기다려 듣기를 바란다'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에는 제일 육체와 제이 정신과 합하여서 사람이 된 것이다. 육체적으로 된 인간은 생리적으로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먹어야만 산다. 여러분처럼 농사하여야 먹고 연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육체생명을 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육체적 생활로만 만족할 것인가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육체적 생활 외에 정신적 생활을 잘 하여야 한다. 인간은 의식주에만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

러시아(露西亞)에서는 정신적 생활은 필요 없고 '뽕'만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하시지만은 연사주(演士註) 하등동물도 의식주는 구한다만 우리 인생도 의식주만을 구한다면 하등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며 육체적 생활로만 만족한다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 될 것이 무엇이며, 의식주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면 동





물이상의 동물이 되고 말 것이다. 영장이라고 부를만한 임무는 육체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역설되는 것이요, 육체도 정신적 생활에서 더 건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자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형상이 없는 것이나 그 심전이라는 것은 수천 명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정신작용을 심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마음(心)을 왜 전(田)이라고 하느냐 하면 전(田)이 오곡(五穀)을 또는 만물을 생(生)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만사의 도덕 습속 그밖에 모든 인간사는 다 마음(心)에서 나온다. 그리하여 인간사 모든 것을 이 마음(心)에서 건설하게 되는 것이니 전(田)에서 오곡만물(五穀萬物)이 생(生)하게 되는 것에 비유하여 심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의 눈으로 본 이 세상인심이 황전(荒田)이 되고 있다. 지금 사람마음은 참으로 기막히다. 이 세상 사람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모양은 사람이나 마음 쓰는 것은 짐승과 같아서 동족 간에 싸움하고 모해(謀害)하여 모든 범행을 저지르고 골육 간에 서로 다투고 하는 비행이 하나 둘 아닌 이 세상이다. 나는 이와 같이 이 충전(菴田)된 것이 세상 사람의 심전을 경작하는 한 사람이니까 나 또한 농부다. 나와 그대들과의 농사짓는데 힘드는 것을 비교하여 보자. 너의 농사짓는 것은 전지(田地)면적이 좁은 관계로 낮에 일하고 밤과 겨울에는 쉬지 않는가. 나의 심전은 동서남북으로 수십만 리다. 원체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저물던지, 또는 아침저녁 새벽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교화를 한다. 춘하추동 언제나 또 역시 교화를 한다. 이렇게 주야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농사짓는 나와 너의 농사짓는 것과 어느 편이 크냐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지혜와 교양이 있어야 한다”하시고,

양자불교(養子不教)면 여양호랑(如養虎狼)이요.

양녀불교(養女不教)면 여양저양(如養猪羊)이라.

하시어 야만민족 간에서는 부모형제 간에 해내는 것은 불효자 악자(惡子)이다. 이런 현상을 곳곳에 발견하게 되는 바다. 야수(野獸)들만 사는 곳에도 신용은 있다.

국가의 법률이나 보국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아니한다고 불평을 갖는 것은 여양호랑(如養虎狼)이다. 양자불교(養子不教)면 여양호랑(如養虎狼)이라는 말은 자식을 기를 때 가르치지 아니하면 호랑이 기르는 것과 같고 여식을 기를 적에 가르치지 아니하면 돼지 양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뜻입니다.

밥도 지을 줄 모르고 배가 터지게 먹는 사람, (일동 웃음) 옷 한 가지 못하고 입을 줄만 아는 것, 아이를 낳기만 하여 귀엽다고 하면서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것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남녀 간에 교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교육을 하여서 충군(忠君)할 줄 알고 애국할 줄 알고 경사(敬師)할 줄 알아야 하등 동물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만물 외 영장이 될 것이다 하셨으니 이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심전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양이 부족하면 현재 사변 때와 같은 비상시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임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제님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밥을 주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려고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시켜 건전한 국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직접으로 국가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기회를 실(失)하여서는 안되며 겸하여 교양에 있어서 심전개발이 우리 국민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천하 사람에게 다 심전개발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어 여러 농부에게 향하시어 농사짓





는 방법을 가르치시어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子), 고행행위시우(苦行爲時雨), 지혜위리액(智慧爲犁耜),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轅)’이라 하셨는데 ‘신심위종자(信心爲種子)’라 함은 인간은 신앙심을 가져야 우주 공리를 알 수 있으니 신(信)은 일만행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곡식의 종자와 같다. 그러므로써 신심이 있는 다음에야 부모, 친구, 동포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행위시우(苦行爲時雨)’라 함은 실천 궁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고행은 즉 실천인데 오곡도 시우(時雨)를 만나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위리액(智慧爲犁耜)’이라는 것은 지혜를 닦아서 세인을 교화해야 하는데 발가는 ‘보습과 ‘명예’ 같이 방법을 삼자는 것입니다. ‘참괴심위원(慚愧心爲轅)’이라함은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즉 치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기를 수레채와 같이 그 방법을 삼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변변히 치욕을 모르고 제가 제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심전을 경작하여 신심을 종자로 뿌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난행(亂行)함은 심전을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심전을 경작하여 신심을 가져야 한다. 성인, 군자, 철인, 현인이 되려면 지금 나에게 이 종자를 받아라. 만일 이 종자를 받지 아니하면 좋은 종자를 얻을 수 없다’ 하신 뒤에 그래 ‘누가 농사짓는 것이 힘이 더 하나 물으신 즉 농부들이 듣고 ‘참으로 당신 께우셔 농부올시다. 진실로 농부가 당신이라’ 하시며 여기저기서 모두 점심을 모아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드렸다합니다. 부처님께서 신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약인무신심(若人無信心)이면 여승무주선(如乘無主船)이요 역여무어마(亦如無馭馬)요 장야시경참(長夜是更塹)’이라 하시어 만약 사람으로 신심이 없으면 주인(사공)없는 배를 탄 것과 같고 ‘정마’ 없는 말과 같고 밤새도록 구렁텅이 같은 험한 곳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심을 갖는 방법으로는 성인의 경전을 힘써 읽어야 하겠습니다. 불교면 불경을 예수교 신자는 예수의 언행하심을 잘 배워 실행함을 각기 가까운 길을 택하여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은 경신사상(敬神思想)이 가장 강한 나라로 신사(神社)를 모셔놓은 사궁(社宮)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수만 인이 참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배하는 것은 신념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동양에서 떼어낼 수 없는 종교이고 더욱 우리 일본에 성행하니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느 것이나 좋습니다. 종교와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오며 만일 이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신앙심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규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이 신앙심을 통하여 일치단결한다면 세계가 다 덤벼도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먹이 비록 적으나 이 주먹 다섯 손가락에다 다 힘을 주어 긴축시켜 가지고 사람을 친다하면 아무리 몸이 큰 사람이라도 긴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입니다. 조그만 주먹에 큰 몸집이 넘어진다는 것은 주먹에다가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념이 큰 사람일수록 승(勝)하고 신념이 적을수록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군도 역시 이 신념이 굳센 까닭에 중국 도처에서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 국내에서는 신사가 1,300개소나 있는데 그 신사 신궁에다 매일 기원하는 고로 우리황군도 기운을 얻어서 연전연승(連戰連勝)하는 것입니다. 빈 주먹 앞에 큰 몸이 넘어지듯이 수천 년간을 신념을 길러온 우리 일본 앞에는 커다란 중국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념을 갖기 위하여 신사, 불각을 신심으로 하여 기원하십시다. 황군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으나 그 배면에는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경제로 사상전으로, 외교전 언론전 선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싸움을 신앙심을 굳게 하여 가지고 지구전을 하여도 언제든지, 이기도록 하여야 됩니





다.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면 신념만 있다고 하면, 우리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신념을 갖는 동시에 생산증진을 하여 경제가 충실케 하고 승전하도록 이 밤에 많이 모이신 여러분도 심전개발이 어찌하더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신념을 가지시도록 실행하시어 경제절검을 힘써하시어 난관돌파를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 말씀하고자 한 바를 더 말씀하고 싶습니다만 장소도 차갑고 시간도 오래되어 그만 말씀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밤에 여러분이 모이시어 저의 말씀을 들어주신 것과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심전개발 및 시국에 관한 순회강연집(제1호) 완

〈출전 : 金泰洽, 『心田開發時局에 關한 巡回講演集』(第一號), 江原印刷合資會社, 1938년 발행〉

#### 4) 권순구, 심전개발론

근일에 당국(當局)으로부터 ‘심전개발(心田開發)’이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하나의 알맞은 글을 지어 서 후진들을 잘 계도하여 깨우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저로 하여금 관직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일체의 종교 활동과 일체의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옛날 주인(主人)의 목탁(木鐸)<sup>45)</sup>이나 우인(虞人)의 잠(箴)<sup>46)</sup>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그 뜻이 아주 성대합니다.

저 역시 여러 대중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착수할 방도를 깊숙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전(心田)’이라는 두 글자가 어느 서책에서 나온 것인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양(梁)나라 간문제(簡文帝)가 지은 [대법송표(大法誦表)]를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운택한 비가 치우침이 없으며, 마음의 밭이 운택함을 받는다.(澤雨無偏 心田受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唐)나라의 백居易(白居易)가 지은 시를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성품 바다 맑고 맑아 풍랑 없이 고요하며, 마음의 밭 말끔하여 티끌 없이 깨끗하네.(性海澄淨平少浪 心田灑掃淨無塵)”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작품을 통하여 보건대, 심전은 바로 불가(佛家)에서 쓰는 말인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학자입니다. 이에 유가(儒家)의 설로써 그 뜻을 풀어보고자 하는데, 관참겠습니까?

우리 유가에는 마음을 가리켜 ‘지수명경(止水明鏡)’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본체(本體)가 허령(虛靈)함을 이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마음을 가리켜 밭이라고 하였으니, 실지

45) 주인(主人)의 목탁(木鐸) : 주인은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고, 목탁은 옛날에 정교(政敎)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고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치던 것이다. 『서경』[하서(夏書)] 운정(胤征)에 이르기를, “해마다 첫봄이 되면 주인(主人)이 목탁(木鐸)을 가지고 길에 돌아다니면서 외치기를, ‘관(官)과 사(師)가 서로 바로잡고 공인(工人)은 예사(藝事)를 가지고 간(諫)하는데, 혹시라도 공경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떳떳한 형벌이 있으리라.’ 한다.” 하였다.

46) 우인(虞人)의 잠(箴) : 옛날에 주 무왕(周武王)의 태사(太史) 신갑(辛甲)를 시켜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각자 경계 말을 만들게 하였는데, 우인이 ‘임금은 사냥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잠언을 만들었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襄公4年》.





(實地) 상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따비밭을 갈듯이 잘 간다면 좋은 밭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황폐해 질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개발(開發)’이라는 두 글자로 급선무를 삼아 잠시라도 헛되이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전지(田地)가 어떠한지를 먼저 안 뒤에야 부지런히 힘 쏟는 공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밭이란 것은 우리들이 태어나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품부 받은 것으로, 귀하고 천하거나, 지혜롭고 어리석거나, 어질거나 불초하거나 간에 모두 똑같이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그것이 있게 되면, 비록 옛날에 이른바 문권(文券)이나 오늘 날에 이른바 등기(登記)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어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밭의 모양새는 평평하고 둥글고 고르고 적당하여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았으며, 모서리가 지거나 굴곡이 있거나 하는 등의 이상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 흙의 성질은 모두가 웅주(雍州)의 상상(上上)에 해당되는 누런 땅<sup>47)</sup>이고, 제(齊) 지방의 쓸모없는 돌밭이 아닙니다. 그 기후는 항상 천지의 중화(中和)를 얻어서 요(堯) 임금 때의 홍수나 탕(湯) 임금 때의 가뭄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예(禮)로써 경작하고, 의(義)로써 씨 뿌리고, 학(學)으로써 김매고, 인(仁)으로써 거두어, 바르게 길러서 해가 없게 한다면, 원(元)이 싹틔워주고, 형(亨)이 길러주고, 이(利)가 익게 해주고, 정(貞)이 여물게 해 줄 것입니다.<sup>48)</sup>

아 아름답습니다. 예로부터 풍년이 들었을 적에는 덕(德)의 기장(稷)<sup>49)</sup>이 오직 향기로워서 아침에 씨를 뿌려서 저녁에 수확할 수가 있었으며, 성(性)의 벼(禾)<sup>50)</sup>가 저절로 자라나서 이쪽이나 저쪽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마다 곡식이 풍부해지고, 집집마다 봉(封)할 수가 있었습니다.<sup>51)</sup> 마음 밭을 개발하는 공효는 이와 같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 사지를 부지런히 놀리지 않아, 앓은 채로 농사지를 때를 놓쳐 갈지를 앓고 김매지를 앓을 경우, 지난날에 비옥하던 땅이 변하여 척박한 땅으로 되고, 풀이 자라나 곡식 싹은 드물어져, 가을 추수를 거둘 가망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잘못된 생각이 생겨나 이르지 않는 곳이 없게 되어, 욕심의 물결이 하늘까지 닿아 한 조각의 좋은 밭이 이미 떨어져나가 남아있는 곳이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벌을 받는 데 이르지 않으면 장차 시궁창에 굴러 죽게 됩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많이 차지고 있는 집을 보면, 비록 논 두둑이 이어진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47) 웅주(雍州)의……땅 : 아주 좋은 땅을 말한다. 웅주는 중국 9주 가운데 하나이다. 『서경』 [우공(禹貢)에 ‘웅주는 그 토질은 누런 땅이며, 그 전지는 상상(上上)이다.’ 하였다.

48) 원(元)이……것이다 : 원(元)·형(亨)·이(利)·정(貞)은 하늘의 네 가지 덕(德)이다.

49) 덕(德)의 기장(稷) : 『서경(書經)』 [군진(君陳)에 이르기를, “지극한 다스림은 향내가 풍기는 것 같아서 신명을 감동시키나니, 제수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요, 밝은 덕이 오직 향기로운 것이다.(至治馨香 感于神明 黍稷非馨 明德惟馨)” 하였다.

50) 성(性)의 벼(禾) : 한(漢)나라 때의 학자인 동중서가 성설(性說)을 논하면서 성을 벼에 비겨 이르기를, “선(善)은 쌀과 같고, 성(性)은 벼와 같다. 벼에서 비록 쌀이 나오지만, 벼를 가지고 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였다.

51) 집집마다…… 있었습니까 : 임금의 교화가 사해에 두루 미쳐 풍속이 아름다워짐에 집집마다 모두 덕행(德行)이 있어서 정표(旌表)할 만하다는 말로, 풍속이 몹시 아름다운 것을 뜻한다.







할지라도, 혹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될 경우, 다시 회복될 가망이 없어서 천장만 쳐다보며 탄식을 토할 뿐입니다. 이에 반해 오직 우리의 심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서 스스로 새롭게 된다면, 떨어져 나간 것을 보충할 수가 있고, 풀이 우거진 것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 모(畝) 정도 되는 자그마한 땅이 도리어 지난날처럼 의연하게 자신의 좋은 밭으로 됩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 집에 비교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새롭게 하는 도는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을 뿐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힘써야 할 바인 것입니다.

〈출전 : 權純九, 「心田開發論」, 『經學院雜誌』 제39호, 1935년 10월 5일, 1~2쪽〉

## 5) 정봉시, 심전개발에 대한 유교

옛말에 교일이기(教一而已)라. 그러므로 위로는 가르침을 널리 편다고 간(簡)하고, 아래로는 가르침을 따른다고 전(專)하니라.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오. 내가 말하는 이른바 유교(儒敎)오. 유교는 어떤 가르침이오. 즉 요순우탕문주공공자(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의 상전(相傳)하신 심법(心法)이니, 그러한 즉 옛날 성제명왕(聖帝明王)과 원성대성(元聖大聖)의 물려주신 가르침이거늘 유교라고 부르는 것이다 조술요순(祖述堯舜)하시고 현장문무(憲章文武)하사 후세의 스승이 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오. 공자의 가르침을 외우고 본받아 윤리도덕을 강명(講明)함은 유자(儒者)의 가르침이라. 그러므로 공자의 가르침을 인하여 유교라 하니, 그 가르침이란 처음에는 학문의 이치가 고원(高遠)하여 행하기가 어려운 도(道)가 아니오. 인생의 일용상행(日用常行) 당연한 도리를 벗어나지 않음이라.

주말(周末)에 이르러 교문(敎門)이 점차 열려서 노장(老莊)을 이르고, 양묵(楊墨)을 이르고, 형명(刑名) 등을 이르니, 허다한 가르침을 이름이 거듭하여 나오거나 생기지만, 이 모든 것은 유교 중에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로되 성인의 무리는 배척하는 것을 홍수맹수(洪水猛獸)보다 심하게 하여 불감치장(不敢鳴張)하고, 진한(秦漢)이후로 삼교(三敎)의 말씀이 있으니 유불선(儒佛仙)이라 이름이오. 삼생(三生)의 말씀이 있으니 과거, 현재, 미래라 이름이라. 선교(仙敎)는 과거를 회고하여 장생(長生)을 수련(修鍊)하니 황당(荒唐)에 가깝고, 불교는 미래를 관념하여 근진(根塵)<sup>52)</sup>을 제거하니 허무(虛無)에 빠지고, 유교는 현재를 삼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이륜(彝倫)<sup>53)</sup>을 뿌리박아 심으니 실리(實理)를 실천하며, 최근에 기독교가 있으니 천당지옥을 말하는 것은 불교와 유사하나 양교(兩敎)가 스스로 서로 질시(嫉視)함은 어떤 까닭인지.

천당지옥설로 논하면 충분히 따르고 목격하고 회환(回還)하여 전설(傳說)한 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가령 천당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할지라도 부처를 일생 발원(發願)하고도 만일 스스로 죄를 지은 자면 천당에 올라갈 이유가 있으며 부처를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도 만일 공행인의(躬行仁義)한 자면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대저 천당지옥설이 유교의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sup>54)</sup>

52) 주관적인 관능과 객관적인 대상, 곧 오근(五根)과 오진(五塵)을 말함.

53)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이오. 적불선지가(積不善之家)에 필유여양(必有餘殃)이라하며, 선을 쌓는 좋은 일이거든 백 가지 상서로움을 내리시고, 불선을 쌓는 일이거든 백 가지 재앙을 내리시라는 훈사와 서로 비슷하여 못 사람의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평범한 사람에 권선징악함의 일조(一助)는 없을 수 없으나 만약 세계인으로 하여금 이 가르침을 힘써 행하게 하면 인도(人道)와 인류의 멸절함이 오래니라 하노라.

지금 말하는 것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하니 종교 비종교를 노노(嗚嗚)히 쟁변(爭辯)할 바 아니나, 이르시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sup>55)</sup>이오,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sup>56)</sup>요,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sup>57)</sup>라 하시고, 삼천의 무리가 대개 그 말씀을 듣지 않음이 없건마는 증씨(曾氏)의 전함이 유독 그 근원을 얻었다고 하였으니 종교라는 것은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미신(迷信)이 있는 연후에 비로소 종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니, 공자가 이르기를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신이 있는 듯이 하라 하시고, 또 말하기를, 귀신이 덕이 되는 것이 그 성대함인저 제명성복(齊明盛服)하여 이승제사(以承祭祀)하고 그 위에 있는 듯이 한없이 크게 하며 그 좌우에 있는 듯이 하시니 이것은 참으로 믿는 것이라. 어찌 미신에 비할 뿐이리오.

지금 누가 이르기를 신앙심이 있는 연후에 비로소 교(敎)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니 불교라는 것은 석씨(釋氏)를 신앙하고 기독교는 예수를 신앙하고 유교는 공자를 신앙하는데 유교의 정심(正心)과 불교의 관심(觀心)과 기독교의 신심(信心)이라 함이 심공(心工)은 한 가지 이나 관심신심(觀心信心)은 허영공상(虛影空想)에 유입하고, 유독 정심(正心)이 실지(實地)를 각답(腳踏)하였다<sup>58)</sup> 하노라.

윤리도덕은 동양의 형이상(形而上) 정신문명이오, 기예기계(技藝器械)는 서양의 형이하(形而下) 물질문명이라. 이 두 가지를 치우쳐 폐함이 불가하고 정신문명으로 체(體)를 하며 물질문명으로 용(用)을 하여 병행함이 불발(不滯)하거늘 동양에 고유한 정신문명을 배척하고 서양에 신입(新入)한 물질문명만 편혹(偏惑)함은 불가하니라.

만근(挽近) 이래로 교문(敎門)이 호개(互開)하여 인도에도 불교만 전상(專尙)함이 아니오, 법국(法國)에도 기독교만 전상함이 아니라 동양서적이 서양으로 날마다 수출하고 서양풍조가 동양으로 날마다 수입하니 이제부터 유교가 서양에 진흥함은 희망하는바 이거니와 동양에는 침미(寢微)할까 우려하는 바라 하노라.

하행(何幸) 금일(今日) 당국에서 인심지도(人心指導)를 고려하여 심전개발(心田開發) 네 자를 대서특서하여 이천만 군중의 심령을 환성(喚醒)하니 이 때를 당하여 각 교(敎) 각 사회(社會)에서 구(具)를 일컬어 여성(子聖)이라 하여 교수기족(翹首跂足)하고 질추경진(疾趨競進)함을 기도(企圖)하는 중 우리의 유교는 더욱 심하게 천재일시(千載一時)에 문화발전 할 기회를 조봉(遭逢)이라 하노라.

54) 적선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복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착한 일을 계속하면 복이 자신 뿐 아니라 자손에게까지도 미친다는 말.

55) 『中庸』 1장. 하늘이 하늘의 본성(天道)을 만물에게 부여해준 것을 본성(本性)이라고 한다.

56) 『中庸』 1장. 하늘이 명(命)을 통해 부여해 준 자신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발달시키는 것. 그것을 일컬어 도(道), 즉 자신의 길이라고 함.

57) 『中庸』 1장. 자신에게 주어진 명(命)을 파악하고 본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자신의 길을 꾸준히 다듬어 나가는 것. 그것을 일컬어 본받음(敎)이라고 함.

58) 발이 실제로 땅에 붙었다는 뜻으로, 일 처리 솜씨가 착실함을 말함. 행실이 바르고 태도가 성실함을 일컫는 말.





문화발전에 허다한 사업이 있으니 명륜학원(明倫學院)을 확장하여 총준자제(聰俊子弟)를 양성하며 각 군(郡) 향약(鄕約)을 설립하여 양풍미속을 만회(挽回)하며 순회강연을 신명(申明)하여 이륜도덕을 부식(扶植)하여 위로는 정치를 보좌하고 아래로는 민심을 개도(開道)함이 우리 유교의 책임이라 하리라.

이상 허다한 사업을 이행하려면 부득불 재력이 있어야할 터 인데 재력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우리 유교의 고유한 향교재산이라. 향교재산이 나오는 바는 혹은 유학전(儒學錢)이라 명칭하여 일향인사(一鄕人士)의 각금(釀金)도 있고 혹은 청금록(靑衿錄)에 성명 게재(揭載)키 위하여 부호(富戶)의 기부 전답(田畓)도 있어서 500년 이래에 유림중 구취(鳩聚)함이니 단순히 우리 유교의 재산이라. 고래(古來)에 춘추향사(春秋享祀)와 향교수리(鄕校修理)와 향사향음(鄕射鄕飮) 등 예를 거행하더니 법구폐생(法久弊生)하여 다년교임배(多年校任輩)의 중도지(中賭地)<sup>59)</sup>와 주식비(酒食費)로 남용이 다(多)하더니 그 후에 학교비로 편입하였다가 유림의 칭원(稱冤)이 있음으로 즉금제도(卽今制度)가 성립하니라.

즉금제도 성립할 동시에 경성강사 고(故) 여규형(呂圭亨)씨와 강원도 강사 본인을 총독부로 초대하여 향교 재산처리방법을 자문하거늘 우견(愚見)을 진술하되 군수로 전관(專管)하면 관유물(官有物)로 간주함도 불가하고 장의(掌議)로 전관하면 주식비(酒食費)로 소모(消耗)함도 불가한 고로 재산은 군청에 보관하고 향교당용처(鄕校當用處)에 의하여 지출함이 가하다하니 이를 청취(聽取)하여 제정하였으나 이 또한 폐단이 없지 않더니 명륜학원을 창설(創設)하고도 여재(餘財)가 상다(尙多)하니라. 지난번 대제학(大提學) 청구에 대하여 총독각하의 소답(所答)도 있거니와 이 재산이 유림소유로 인정함은 당연하니 모든 군자(君子)는 성응기구(聲應氣求)하여 문화발전에 규모방법을 연구지도하심을 웅망(顯望)하노라.

〈출전 : 鄭鳳時, 「心田開發に對する儒教」, 『經學院雜誌』 제40호, 1936년 8월 25일, 12~13쪽〉

## 6) 조선총독부 중추원, 『심전개발에 관한 강연집』(1936)

### (1) 최남선, 조선의 고유신앙(상·하)

조선사편수회 위원 최남선(崔南善)



오늘은 조선의 고유 신앙에 대해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시다만, 실은 이처럼 진지한 연설을 하려는 마음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어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사항도 앞뒤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논리가 맞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평소 제가 연구해 온 것에 대해 기탄 없이 이야기 하고, 그런 가운데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곳까지 이야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59) 지주에 대하여, 명의 상의 소작인이 맡은 토지를 다른 소작인에게 나누어 주는 일, 또는 그 토지.





물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또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에 따라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신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함에, 저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첫째는, 오늘날의 조선인의 심전개발(心田開發)에는 먼저 무엇부터 착수해야 할까,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

둘째는, 조선에는 과연 고유한 신앙이 있었는가?

셋째는, 만약 조선에 고유 신앙이 있었다면, 그것이 현재 및 미래의 진운(進運)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 제가 가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선인의 심전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고심해 왔습니다만, 여기서 어떠한 방면에서 그 정신을 다루는가 하면, 결국 신앙 문제를 두고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발표하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여, 더욱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신념을 갖고 연구를 진척해 온 점에는 더 할 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탄없이 말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심전개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각자의 마음 속 진심을 불러 깨달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심전개발이기도 합니다만, 조선에서는 불교든 유교든 모두 그 근저가 자기완성이라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정 자기 것으로 포섭소화 되지 못한 채, 한 때 또는 한 계급의 문식(文飾), 과습(誇習)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결국 오늘날처럼 말라비틀어진 사회를 만들어 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말해도, 장차 민속(民俗)의 실상을 통해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며, 이와 같이 정신생활의 근본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조선인의 심전개발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심전개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는 조선인에게 이를 받아들이고 또한 키울 정도의 소지(素地)를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그 본래의 교(敎)는 모두 훌륭한 것이며, 또한 이것이 조선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이루었다는 점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신앙이자 사상이 조선에 들어왔으나, 이를 조선인이 진정 소화하여 피와 살로 만들어 자신의 몸 속에 섭취해, 이를 생활의 원리로 삼지는 못한 채, 이를 그저 한 입에 삼켜 그저 그 형식만을 받아들였던 것이 오늘날 조선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초화(草花)를 만든다고 해도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충분히 갈아, 비료를 주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 훌륭한 초화를 피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땅의 지질도 좋고 그 씨앗도 좋습디만,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씨를 뿌린다면 적당한 땅이라도 좋은 종자라도 모두 그 본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유교도 불교도 그 성과와는 달리 그 결과가 오늘날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은, 요컨대 조선인이 본연





의 정신을 돌아 보지 않고 돌연히 산만하게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아니, 이 씨앗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모처럼의 가르침도 이를 받아들일 만한 힘이 부족하여, 충분히 소화해 자신의 것으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불교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외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를 잘 동화시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결국 일본적인 것으로 만들어 그 필요한 것을 취한 것입니다. 조선의 이조(李朝) 500년 동안은 오직 유교가 전성을 이룬 상황이었습디만, 이러한 것들도 조선에서는 그저 그 실질적인 측면보다도 형식적인 측면이 한층 중시되어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식(儀式)과 같은 사후의 일이 중요하게 여겨진 반면, 살아 있는 사람의 일, 살아가는 방법과 같은 일은 오히려 소홀히 여겨져, 유교 본래의 정신인 수제치평(修齊治平)이라는 대이상은 아무리 보아도 진지하게 힘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선에도 불교에, 유교에 매우 훌륭한 스승도 상당히 많습디만, 누구나 이를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디나. 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요컨대 그 소지본체(素地本體)에 충분한 주의가 없었기 때문입디나.



선(禪)처럼 고답적인 수행도 에이사이(榮西)의 흥선호국론(興禪護國論)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비근(卑近)한 세상적인 것으로서 받아 들이고, 후생안락(後生安樂)의 정토(淨土)의 가르침도 신란(親鸞)의 한 흐름처럼 왕법위본(王法爲本)과 같은 현세즉신적(現世卽身的)인 것으로 받아 들여 가치전환을 이루었으며, 불교 최고의 이론적 성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화교(法華敎)도 사이초(最澄)에서 니치렌(日蓮)까지의 발전을 보았습디만, 이것이 일본인의 불교에 대한 섭취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본의(本義)에서 볼 때 어떠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가겠습디만, 외래 문화에 대한 자기 중심적 소화력이라는 것은 이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디나. 그런데 조선은 어떠한 하면, 원효(元曉), 의상(義湘) 등 많은 석덕(碩德)들을 배출하였고 그중에는 백부논주(百部論主)라고도 불릴 만한 사람도 한 두 사람이 아닌 상황입디나, 과연 불교가 그만큼 조선인의 생활 원리로서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심전개발이라고 할 때,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심전 그 자체여야 합니다. 토양이 조성되어 비로소 종자의 선택도, 비료의 시급(施給)도, 비와 이슬의 인연(因緣)도 하나 하나 고려해 가는 것이 순서입디나. 그런데 그 연유는 차치하고 현재 조선인의 심전은 유학, 불교 등으로부터도 어떠한 윤택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지(本地)의 풍광이 그로 인해 흐려지고 거칠어져 버린 형편입디나.





따라서 오늘날 조선인의 심전개발이라는 문제는 이러한 무미건조한 심전을 먼저 정비함으로써, 바꾸어 말하면 좋은 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둘러 조선 고유 신앙을 부흥시키고 탄발력(彈發力)과 함께 섭취,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민족이라도 그 민족의 진심으로부터 귀의 또는 반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우선 먼저 각 자의 진심을 일깨워 이에 전통 정신 내지 고유 신앙의 부흥을 시켜가고자 합니다.



과거의 외래 종교의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연한 이익보다도 오히려 자기 상실의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두 임시 변통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정한 조선인의 심전개발에 필요한 그 진심을 진작하는 일에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전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진심을 일깨우는 일이 그 시작이자 또한 그 마지막이기도 해야 하므로, 밖에서 아무리 이를 주입하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감응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로 생각하고, 아무리 큰 권력으로 이를 전하고자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반발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소기의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오늘날 심전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무엇보다도 민성세정(民性世情)에 따른 근본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째로 조선인의 진심을 불러 일으킬 감응의 강도가 강한,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신앙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리소리가 들리면 혼자서도 절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결코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되이 이상(理想)으로 치닫는 것이나, 이차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나무에 대나무를 접붙이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및 내일, 조선인으로서도, 일본인으로서도, 최고 궁극적인 생활 통일 원리여야 하는 것, 즉 늘어나는 생명의 길에서 과거·현재·미래를 하나로 하는 항구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보편타당한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비로소 조선인의 심전개발을 이룰 수 있으며, 그 하나라도 결여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인의 본연 정신임과 동시에, 동방 세계의 보편 원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달리 합리화나 이상(理想)도 소용없으므로, 학자 혹은 사상가들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나, 정치가가 정치상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은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





자체에 이와 같은 고유 신앙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행히 조선에는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훌륭한 고유 신앙이 있고, 이것이 일본의 고도(古道)이자 근본적인 것, 포용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본이 서야 길이 보이듯이, 만사 출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전개발이라는 것은 요컨대 올바른 생활 원리의 파악 또는 건립이며, 이것이 근본에 오류나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발의 첫걸음, 즉 그 본원(本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경우와 달리 적당한 속임수나 얼버무리기와 같은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조선인의 마음, 즉 정신의 결함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저는 무엇보다 성실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함을 결여하고 있어 그 결과, 진지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본래의 정신을 외면한 결과, 각종 외래 사상에 쉽게 끌려 휘둘리고, 그 본래의 정신은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는 흡수되지 못하고, 결국 형식에 흐르거나 허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교도 불교도 그저 그 허위만을 받아들여, 이를 되씹어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지 못한 채, 배탈이 난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조선이 직면한 현 상황이므로, 이를 불교나 유교의 방식대로 치료하려고 한다면, 마치 식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다시 같은 음식을 주어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선인 스스로의 마음의 힘, 그 잠자고 있는 본연의 정신적 기능을 일깨우고 진작하여 스스로의 진심을 통해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뜨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인에게는 어떠한 사상적 본지(本地) 즉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고유 신앙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에는 훌륭한 고유 신앙이 있었으며, 더구나 어디에 내놓으면 주눅이 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훌륭한 계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우 복잡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며 또한 오늘은 시간도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만, 요컨대 그 결론만을 말씀드리면, 조선에는 고유 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의외라고 여길 정도로 놀라운 체계가 정비된 국민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교 혹은 불교와 같은 외래 사상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 압박당하고 오랜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들볶이면서 결국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되어 버려, 지식인으로서도 그 존재를 의심할 정도였습시다만, 이는 민족적으로 보아도 그 사적(事蹟)이 많이 남아 있으며 또한 문헌에도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진흥왕(眞興王) 37년에 ‘원화(源花)’의 원래 뜻을 소개하면서 최치원(崔致遠)의 란랑비서(鸞郎碑序)에서,

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教之源備詳仙史，寬乃包含三教，接化群生，且如入則孝於家，出則忠於國，魯司冠之旨也，虛無爲之事，行不言之教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諸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

라는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풀어보면, 대체로 여러 종류의 덕목(德目)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반도의 고교(古敎)를 전하는 중요한 문헌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처럼 800년 내지 1,500년 전의 조선에는 풍류라는 훌륭한 종교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풍류(風流)의 교(敎)는 유교·도교·불교의 주요 요소를 겸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 조선의 역사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매우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글을 일종의 선거 제도(選舉制度)를 전하기 위해 쓴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유 신앙의 편린이 여기에 한 줄기 잔광(殘光)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다른 사실을 통해서 조선에는 ‘부루’라는 종교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오랫동안 조사해 왔습시다만, 이 기사를 역시 선거 제도를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좀처럼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점차 이것이 선거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유 신앙과 관련한 문헌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발견하였다면, 오랜 동안 고민하면서 다른 사실을 조사하지 않아도 이 한 구절만으로 고유 종교의 존재를 알고 그 줄거리를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숨은 뜻을 알아채지 못한 채, 무척 먼 길을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풍류라고 하는 말은 언뜻 보아 그다지 좋은 느낌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연 종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종의 의구심과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풍류, 즉 ‘부루’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신도(神道)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류가 왜 신(神)을 말하는 의미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나와 있습니다만, 『삼국사기』의 태고에 관한 기사에 나타나는 부여(扶餘)의 고왕(古王) ‘부루(夫妻)’, 신라(新羅)의 선조 불구내(弗矩內)<sup>60)</sup> 등의 ‘부루’를 기원으로 하며, 안팎의 역사에서 그 많은 증적(證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풍류’라고 하는 글자는 아무리 봐도 중국풍이고 혹은 불교에도 보이지만, 이는 단지 그 글자만을 빌려 온 것으로,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풍류라는 전체 이름만이 아니라, 그 교의(敎義)에 대한 설명인 “入則孝於家，出則忠於國”이라는 것도 유교 계통의 표현 방식입니다만, 이른바 충효의 사

60) 혁거세(赫居世).







실적 측면은 유교 이전에도 자생적으로 갖추고 있었을 것이며, 예전에 부모나 임금에 진심을 다하도록 가르쳤다는 점은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고신도(古神道)에 비추어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언(不言)의 교(敎)라는 것도, 글자는 도교(道敎)에서 빌려 온 것입니다만, 그 사실 측면은 요컨대 일본의 만요 가인(萬葉歌人)에 의해 전해진 이른바 “신이면서 말로 할 수 없는”이라는 것도 있어, 일본도 조선도 그 고도(古道)에서는 이론이나 형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실행을 중시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 문자로 된 사실을 파악하지 않으면, 고전(古典)의 진의(眞義)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개의 문자나 언어는 간혹 빌려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으며, 이들의 교의(敎義)가 예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 문헌을 떠나 민속적으로 조사해 보아도, 언어·지명(地名)·인명(人名) 등에 숨겨진 잔담(殘譚)을 파헤쳐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의 산 중에서 이름이 있는 산에는 모두 백(白)이라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태백(太白)이라든가, 소백(小白)이라든가, 백두(白頭)라든가, 백악(白岳)이라든가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백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 서울에서도 경복궁 뒤쪽에 있는 산이 백악산,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는 산이 태백산이며,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높은 산에는 모두 백이라는 글자를 넣어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백(白)’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산은 그 지방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白)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결과, 조선의 명산(名山)에 백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조선에서는 백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는 명산도 있는데, 거기에는 약속이라든가 한 듯, 다른 두 글자가 예외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만약 백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비로봉(毘盧峯)라는 봉(峯)이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묘향산(妙香山), 혹은 강원도의 금강산(金剛山)처럼 모두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높은 봉은 백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 않은 산이라면, 비로라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로라는 글자는 불교에서 빌려온 글자이므로, 불교 수입 이후에 만들어진 이름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불교에는 산의 명칭으로 적절한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 데도, 왜 그중에서 이 글자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비로라는 글자가 없는 산에는 천주봉(天主峯)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칭은 어떠한 관계가 있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을 진행하는 데 가장 커다란 사항이 되므로, 이를 설명해 두고자 합니다. 조선의 유명한 산에는 반드시 백이라는 글자가 산 이름 속에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사용되지 않은 산 이름에는 그 산의 최고봉에 반드시 비로라





든가 혹은 천주라는 붕이 있습니다. 이는 전 조선에 공통적인 사실이며, 많은 산과 관련되어 있어 하나나 둘 정도의 예외는 있을 듯 한데도, 예외가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상하리만치 어디에 가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백(白)이나 비로(毘盧)라던가 천주(天主)라는 말의 어원(語源)은 모두 ‘부루(風流)’라는 어원과 같아, 단지 그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의 옛 언어에서는 빛(光)을 밝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어의 음운 법칙(音韻法則)에 따라 이 밝이때로는 가운데 소리인 K가 제외되어 박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 소리인 R이 제외되어 발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두 소리를 옮겨 적기 위해 종종 글자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언뜻 다른 글자처럼 보이지만 음이 같은 변화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의미는 모두 천주(天主)인 태양과, 그 신성(神性)으로 옷 입은 신(神)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로라는 글자를 빌린 것은 다만 음이 유사해 통할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가 본래 광명(光明)과 관련 있는 어구라는 점에서, 한층 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흥미로워 하는 것은 신(神)을 밝이라고 한 것은 단지 조선에서만 그런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는 일본 혹은 류큐(琉球), 그리고 북쪽으로는 만주, 몽고 내지 중서(中西) 아시아 등에서 모두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몽고에서는 조선의 단군(檀君)이 태백산(太白山)에 내려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국(建國)의 조상신이 부루간이라는 곳에 내려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어에서도 이 부루간이라는 말은 신(神), 불(佛) 내지 신인(神人)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고전(古典)에도 천손(天孫) 니니기노 미코토(瓊瓊杵尊)는 기리시마 야마(霧島山)의 다카치호노 미네(高千穗峯)에 강림하였다고 하며, 또한 다카치호노 미네는 일명 히코야마(彦山)라고도 하는데, 이 ‘히코(彦)’라는 말은 조선의 ‘백(白)’이라는 말에 상응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신화는 대체로 두 가지 계통이 있어, 즉 그 하나는 규슈(九州)의 이른바 다카치호노 미네에 강림하였다고 하는 천손계(天孫系)의 설화와, 또 하나는 이즈모(出雲) 계통의 구니노 미야즈코(國造) 설화 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황실(皇室) 중심주의로 이를 정리하여, 왜지국(倭之國) 이전의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예전에는 여러 종류의 설화가 있었다는 점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실린 많은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천손이 강림한 신산(神山)에 히코(彦)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즈모 쪽에도 ‘히루’라는 산 이름이 있습니다.

대체로 일본과 조선에 보이는 고전상(古典上)의 일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고찰과 조사를 해 갈수록 확실하게 드러나며, 건국 조상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이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진무 천황(神武天皇)은 야마토(大和)의 가시하라(橿原)라는 곳에서 즉위하였





다고 하며, 왜 이 땅을 가시하라(檣原)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일본의 학자는 시라카바(白檀) 나무가 여기에 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는 대체로 억측으로, 오늘날의 문화·과학 지식을 통해 이를 비교해 고찰해 보면, 결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에서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高句麗本紀)에, 부여의 고도(古都)가 가세후원(迦葉原)이었다고 하며, 고구려의 수도에는 개사수(蓋斯水), 예(濊)의 수도에는 하서각등(河西角等)이라는 명칭이 보이며, 일본의 신화에서도 천손 니니기노 미코토가 강림한 곳을 가사사노 미사키(笠狹崎=笠狹之御崎)라고 하며, 나중에 이를 스진 천황(崇神天皇) 대에 삼종(三種)의 신기(神器)를 건네받은 곳이 가사누이무라(笠縫邑)라고 하여, 역시 ‘가사(笠)’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제정일치(祭政一致) 시대에 권력의 중심지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사(笠) 또는 가시(檣)라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일본 열도나 조선 반도 내지 만주 방면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관념적인 것으로, 결코 토지의 상황이나 인명, 지명 등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진 천황의 동정(東征)도 역시 이보다 동쪽에 오곡이 잘 영글고 비옥한 땅이 있으므로 그곳으로 가서 도읍을 세우라는 신칙(神勅)이 있어서, 이것이 동정(東征)의 동기가 되었는데, 이들 역시 부여의 전설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와 같이 그 전설이나 내용이나 또한 명칭까지 모두 이상하리 만치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사(祭祀)나 권력에 관한 양상 및 그 명칭이 대체로 유사한 것도 깊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하나 하나 다루어 보면 그 수가 끝 없이 이어지지만, 어쨌든 조선에는 오랜 신앙이 있었으며, 더욱이 그것은 훌륭한 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단지 조선만이 아니라, 남쪽으로는 류큐, 일본, 북쪽으로는 만주와 몽고, 중서 아시아 방면까지 공통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의 심전개발은 먼저 무엇부터 착수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과,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인 조선에 과연 고유 신앙이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 다소 깊이 들어가 보았습시다만, 오늘은 이미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가 마련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상)



지난 주에는 조선인의 심전개발(心田開發)이라는 점에 대해 먼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바탕을 충분히 정비하고 나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조선에는 과연 고유 신앙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각종 문헌 혹은 현재 남아 있는 민속적 사실을 통해 조선에는 훌륭한 체계를 갖춘 고유 신앙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또한 이에 대해 명백한 증거도 있으며 오랫동안 이 방면을 연구해 온 저는 일찍부터 이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 이처럼 신라 이전에는 그 명칭이나 내용 내지 그 전설까지 일치 하였던 체계적 신앙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이는 이후의 문화 즉 외래 사상의 강한 압박 속에, 한 때 그 그림자를 잃어버렸으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어떠한 압박에도 오랫동안 민속적으로 전해준 고유 신앙은 결코 뿌리 채 뽑힐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아무리 번영을 누리고 유교가 아무리 전성기를 구가하였다고 해도, 고유 신앙이 그것들로 인해 사라지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체로 신라 시대는 불교로 인해 빛을 잃어 갔고 고려(高麗) 시대에 들어서서는 그 외영(外影)이 더욱 좁어져 그 진상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당시 문화를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문화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은 『고려사』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고려사』라는 사료가 언제 완성되었는가 하면 조선 초기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며, 그 사료에 과연 상대(上代)의 사실 그 자체를 전하고 있는지 어떤지 다소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475년간의 고려 초기에 대해서 이를 기록하던 시대에 상당히 그 원형(原形)을 잃어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소 본래의 것에서 변화를 한 모습이 실려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은 『고려사』의 사실에 기대어야 할 때 당연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려사』에는 팔관회(八關會)라는 예전(禮典)이 있어서, 이를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거행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보통은 불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은 불교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 이른바 팔관(八關)이라는 말은 승려 이외의 불교 신도에게 1년 중 며칠 간 기간을 정해 여덟 가지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기한이 주어진 계율(戒律)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분위기를 내서는 안 된다든가, 넓은 집에 살아서는 안 된다든가,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남녀가 동거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내용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고려의 팔관회의 실상을 살펴 보면, 불교의 팔관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것으로, 말을 돌리지 않고 말씀드리면, 신도적(神道的)인 축제 양상을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불교적인 이름 아래 모습을 감추고 진행된 오랜 전통적인 신사(神事)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거행되는 의식(儀式)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흥망이 갈려, 어느 시대에는 흥하였더라도 어느 시대에는 완전히 쇠퇴해 버리는, 이른바 유위전변(有爲轉變)이 있었습니다만, 이 팔관회만은 고려 전 시대에 걸쳐 항상 최대의 관심이 쏠렸으며, 때로 다소 쇠락의 기미를 보인 때에는 지엄한 왕명(王命)이 있어 즉각 이것이 부활되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 팔관회는 요컨대 ‘밖’의 구칭어(具稱語)인 ‘밖안’의 대자(對字)이며, 신라의 풍류(風流=부류)를 고려 시대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본래 민속적 행사, 특히 신앙에 관한 것은 문화 주조(主潮)의 변이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며, 또한 이에 대한 명칭과 같은 것도 크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본체(本體)·실질(實質)은 매우 강인한 것이어서 좀처럼 소멸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조선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문화가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문화 외형 내지 그 명칭이 불교식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산의 명칭인데, 불교식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마니(摩尼)·가야(伽倻)·지리(智異) 등으로 이 언어 문자는 모두 불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국왕의 이름 역시, 현재 기록에 보이는 것만 보아도 그러한 경향은 아주 많이 보이는데, 고구려 초기의 왕으로 유리명왕(瑠璃明王)이 있으며, 신라 초기의 왕으로 탈해왕(脫解王)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후대에 갈수록 그런 종류의 명칭은 더욱 많아집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각 방면에서 인정받은 부분입니다만, 명칭은 어쨌든 고유한 민속, 오랜 전통적 실상은 결국 모두 감춰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신도적(神道的) 제사(祭事)가 팔관이라는 이름으로 거행된 것은 실로 기이함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팔관회에는 만사화미(萬事華美)를 다투었고, 궁중(宮中)의 특정 장소를 무대로 하여 국왕 이하 문무백관(文武百官) 내지 일반 서민이 모두 같은 기분에 잠겨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儀式)을 거행하였으며, 나아가 가무(歌舞)·음곡(音曲)·이악(俚樂) 등을 도입한 것이며, 어느 한 종류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몇 배나 되는 야단법석한 양상을 조성한 것입니다. 중국 양(梁) 나라의 무제(武帝)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는 팔관의 불회(佛會)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본 문제에서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단적으로 말해 이것이 바로 조선의 고유 신앙에 의한 조선의 살아있는 진수(生粹)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조선에 이르러 어떻게 남겨졌는가 하면, 조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만사가 유교 보위(儒教本位)였으므로, 이 팔관 의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쇠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국가적으로 이를 거행한 남겨진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 민속적 생명은 역시 끈질기게 생명력을 보이며, 그 고의 본질(古義本質)이 오늘날에까지 완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교적 문구를 빌려 존속해 온 “부군의 당(府君의 堂)” 혹은 그 신사(神事)가 그것입니다. 이는 한일병합(韓日併合) 전까지는 도시의 어느 관청에도 부군당 시설이 있어, 관리 등이 임명되면, 먼저 이곳에 참배하고 폐백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유교에 심취한 사람들 중에는 부군당의 본의(本義)를 모른 채, 함부로 음사(淫祀)의 일종으로 보고 이를 파기하여 자랑으로 삼았으며, 종종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기도 하였을 정도입니다. 또한 관청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 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부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등에서도 그 절에 불존(佛尊)이 계시는 곳 이외의 건물에 역시 그 토지신을 모신 부군당 혹은 독성당(獨聖堂)이라는 것이 있어서, 불사(佛事)를 행할 때에도 본존(本尊)보다 먼저 이 당(堂)에 공물을 바치고 제를 올렸으며 이 의례가 끝나고 나서야 불존에게 공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는 오늘날에도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군(府君)은 고려조(高麗朝)의 팔관이 유학풍(儒學風)으로 변형한 유학적 변형어(變形語)로, 모두 고대의 ‘밖안(弗垣內)’과 그 어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간의 R이 K로 되거나, K가 R로 되는 데 불과한 일입니다. 현재 많은 지방에서는 봄과 가을 두 차례, 또는





한 차례 거행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한 차례만 거행되는 것은 가을의 수확을 끝내고 나서 이 부군당의 신사(神事)(부군 굿)를 행하였으며, 곳에 따라서 제명(祭名)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신사가 여러 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풍류(風流)·팔관(八關)·부군(府君)의 도(道)가 비록 국가적으로는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속적으로는 전혀 쇠락을 보이지 않고 오늘날까지 깊이 파고 들어 전해져 온 것은 오히려 경탄해 마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불구내(弗矩內)라는 말은 결코 조선에만 있는 말이 아니며,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고도(古都)에 '후루'라는 글자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민속 본원(本源)에서 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고시(古市)나 고전(古田)은 모두 이러한 계통입니다. 특히 저는 작년 일본의 이세(伊勢)에 있는 야마다(山田)에 참배하러 갔을 때, 나라(奈良)에서 이세까지 가는 동안의 오래된 마을에 고(古) 자가 붙은 것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모두 불구내의 부루의 유전(流轉)이 분명합니다. 또한 중국 대륙 금(金) 나라 선조의 발상지가 복한(僕漢)이기도 하고, 몽고 국조(國祖)의 천강지(天降地)가 불아한(不兒罕)이기도 하며, 그밖에 중서 아시아의 거산(巨山)에 이러한 계통의 명칭이 붙어 있는 사실을 통해서, 저는 적어도 어느 시대에는 이들이 광범위하게 공통된 신앙이 있었고, 더구나 그 신앙의 중심을 이룬 곳인 불구내의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구내는 다시 말해 신명(神明)이며, 하늘의 주된 신(神)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추상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조선의 고유 신앙은 기록을 통해서도, 민속의 실상을 통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게다가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행해져 왔던 것임을 엿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치 규범의 제사적 군주(祭司的 君主)가 종교적으로 갖가지 제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했으며, 이는 즉 단군(檀君)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조선인은 단군이라고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신이라고도 믿고 있습니다만, 일반 신앙은 어쨌든, 사실 단군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 전 시대의 신앙 계통의 제사를 관장하는 역할의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정일치(祭政一致) 시대의 이야기이므로, 제사장이자 즉 정치권의 통수권자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단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전히 이상하리만치 비과학적인 그릇된 견해가 있어서 매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인문 과학적 고찰에 따르면, 단군 중심의 신정(神政) 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이며,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이로 인해 조선이 그 문화적 출발점을 잃는 것은 물론, 동방문화의 최고(最古義)를 찾는 실마리가 무시당하는 일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단군설을 부정하는 자들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군은 고려 중엽의 승려가 기록한 문헌에만 나와 있으므로, 이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며, 또한 매우 불교적 색채가 진한, 아무래도 불전(佛典)에서 탈화(脫化)한 이름으로 보는 자와, 또 하나는 단군은 조선의 기록에는 실려 있지만 주변 국가의 기록에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의 반대설이 가진 주된 논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점에 대해 살펴보면, 본래 조선에는 고유의 문자나 기록이 없었으므로, 조선 사람이 중국 전래 문자나 기록술을 배운 것은 어느 정도 뒤의 일입니다. 따라서 조선의 문헌에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물(遺物)·유적(遺跡) 중에도 그 기록이 없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자가 없던 시대의 일이 그 기록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것만을 내세운 반대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일설(一說)인 중국의 역사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지(魏志)』라고 하는 1600년 혹은 1700년도 이전의 중국 역사에 마한(馬韓)의 풍속을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마한에는 별도(別都)가 있어, 그 곳에서는 천군(天君)이라는 자가 제사(祭祀)를 관장하였다”고 합니다. 『위지(魏志)』의 이 문장은 마한에 대해 기록한 것이므로, 기사 전부를 조선 전반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일이지만, 우선 이에 의거하여 제사(祭司)를 천군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만으로도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그리고 문화의 가장 원시(最原始)이자 가장 근본적(最根本的) 존재인 신앙, 특히 제사(祭司)의 명칭과 같은 것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천군이라는 명칭이 후세의 신어(新語)가 아니라 조선 반도의 어느 부분에서든 행해져서 될 것 같지 않은 신정(神政) 시대의 최고의 추장(最酋長)은 역시 천군이라고 불렸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군과 천군은 글자 모양이 다르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의 사물을 사음(寫音)할 때에, 다소 음형을 왜곡하면서 음과 뜻을 아우르려고 힘쓰는 예는 많이 있으며, 단군을 천군이라고 쓴 경우는 역시 제천자(祭天者)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식적 변개(意識的 變改)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기록에 단군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일본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일본이 오히려 조선보다 늦게 문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일본에 없다는 것은 물론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은 차치하고,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에 단군계의 용어는 얼마든지 있어, 야마토타케루(日本武尊)라든가, 구마소타케루(熊曾猛) 등이라든가 에서 보이는 ‘다케루’가 그것입니다. 존(尊)이나 맹(猛)이라는 글자는 일본에서 그 지방의 호족·수령(首領)과 같은 사람에게 한해 붙인 이름이었으며, 이 ‘다케루’라는 말은 조선어의 대가리(수령)와 더불어 모두 단군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단군의 어원은 당질입니다. 이 당질이라는 말은 조선의 고대어(古代語)로 말하자면 하늘(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당질의 비음(鼻音)이 사라진 것이 걸(대갈)입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비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만주어(滿洲語)나 일본어나 마찬가지로, 자주 없어집니다. 본래 대갈의 가장 오래된 의미는 위에 있는 자라는 의미로, 바꾸어 말하면, 하늘(天)도 위에 있다면 또한 인간으로 말하자면 머리(頭)도 위에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대갈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미사마(上様) 등이라는 것도 역





시 이와 마찬가지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몽고어에서는 하늘(天)을 당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구리라는 것은 하늘(天)이나 신(神)이나 불(佛)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중국 서부 지방에 천산남로(天山南路)·천산북로(天山北路)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천산도 모두 이러한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서역 지방의 어떤 것은 데카리산이라는 예도 있는데, 이 역시 비음이 빠진 어형(語形)으로 흥미로운 예이며, 또한 몽고의 선조인 흉노 민족의 문화가 『한서(漢書)』에 몇 가지 전해지고 있는데, 흉노에서는 주권자(主權者)를 ‘탱리고도(撐犁孤屠)’라고 하여, 탕리(撐犁)(당구리)는 천(天), 고도(孤屠)는 자(子)의 뜻으로, 이를 합친 천자(天子)의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더구나 현대어에도 천(天)과 신(神)과 무(巫)를 의미하는 말에 당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편 조선의 현대어에서도 무(巫)를 당구리라고 칭하는 지방도 매우 많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자료를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조선 측의 단군의 어원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며, 또한 문화권내에서 얼마나 보편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일본 혹은 몽고의 사료를 통해, 단군에 의한 정치 규범의 존재라는 것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단군이라는 존재는 고대 제사(祭祀) 관계의 직명(職名)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소나마 인류의 원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진지하게 동방 고대사에 학문적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 수준의 몇 단계도 변해버린 오늘날을 통해 살펴보면, 무격(巫覡)은 어쩌면 보기 싫은 구시대의 잔재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만, 고대 신정(神政)에서는 요컨대 무술상(巫術上)의 우월한 자에게 인도받는 생활 양상이었던 것입니다. 무격(巫覡)도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경시·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또한 현재의 민간 신앙 문제로서도, 함부로 박멸·소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중한 처리를 요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단군이 신정 시대의 무군(巫君)을 칭하였고, 이것이 원시 문화의 당연한 양상이었음을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래(古來) 단군은 신인(神人)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고대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신성(神聖)의 덕(德)이 떠받들어졌습니다만, 그 고의(古義)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른바 신성(神聖)·예지(叡智)라는 것은 결코 후세에 발전해 온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무도(巫道)·주술(呪術)에 뛰어난 상태에 대한 형용(形容)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군주의 명칭, 아울러 그 덕을 찬미한 어휘에 대해 문자학적 분석을 해 보아도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서경(書經)』 『시경(詩經)』 등에 녹아 있는 원시 문화의 사실을 검토해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역경(易經)』에 보이는 “성인신(聖人神)으로 가르침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 단적인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한 인류학적 실례는 플레이어의 저술들에 매우 풍부하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 고대에 무군(巫君)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기해 놓고 있으며, 중국 측 고문헌에 따르면 일본의 고대에도 히미코(卑彌呼)라고 불린 무군 정치(巫君政治)가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고대의 정치 중심지에 한결 같이 ‘가시하라’라는 칭호가 있었던 것도 사실 이러한 정치 규범에 따른 것이었으며, ‘가시’란 제사(祭祀)를 가리키며, ‘가시하라’란 제사(祭祀) 때의 성소(聖所)라는 의미를 나타낸 정도였습니다. 이 ‘가시’는 조선의 현대어에 굿 혹은 고사로 잔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영이(靈異)를 나타내는 ‘구시’라고 하는 말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고대의 정치가 무군(巫君)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것은 인류 공통의 사실이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표현한 '무(巫)'라는 명칭이 본래 신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단군이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단군 부인론자에게는 매우 왜곡된 시각, 사고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한 예는 단군의 단(壇) 자가 단월(檀越)의 단이라는 것을 불전(佛典)에서 탈화(脫化)한 증거라고 보고 이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전에 의거하여 설화(說話)를 조합한다면, 불전에는 국조 설화(國祖說話)로 삼기 위해 달리 듣기에도 좋은 멋진 글자가 많이 있으며, 세계 설화의 본원지라고 하는 인도이므로, 이야기의 줄거리 등도 훌륭한 것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단군 고기(古記) 이상으로 대단한 설화 만들기, 이름 붙이기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월의 단을 취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가령 단(壇)이라는 글자는 단월에서 따와 붙였든 어떻든, 여기에는 단이라는 글자를 빌려와야만 했던 본래의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당구르라는 원어(原語)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원형(原形)이 있는 이상, 마음대로 명칭을 붙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현존하는 단군 고기를 살펴보면, 이것이 불자(佛者)에 의해 채록(採錄)되면서 전혀 불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단군 고기에 한문풍(漢文風)의 수식에 의한 기교적 변개(技巧的 變改)가 더해지지 않은 점도 보기 드문 특색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문학자에게는 이른바 괴력난신담(怪力亂神談)으로 받아 들여져 두 번 다시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다시없는 행운이었던 셈입니다. 잔결소략(殘缺疏略)으로 잃는다고 해도 순진하고 소박한 원형적 모습이라는 점은 한 점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체적인 줄거리는 일본의 고전(古典)에 의해 유연 관계(類緣關係)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번잡한 인간 세계를 구할 천신(天神)이 아들을 보내 여기에 하늘의 일족이 부종(附從)합니다. 삼종(三種)의 신기(神器)가 부여됩니다. 신리반경(神籬磐境)이 운영됩니다. 보식(保食) 중심의 신정(神政)이 실시된다는 것이 모두 입이라도 맞춘 듯 한결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단군 고기(檀君古記)를 문헌학적으로 살펴보아도, 한 글자 한 구절 각각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천신의 서자(庶子)로 되어 있는데, 이 서자라는 의미를 단군 고기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몽고전(蒙古典)을 조사해 보았더니,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신화(神話)가 있으며, 더구나 여기에는 13번째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서자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들어간 글귀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체 신화(母體神話)에서 기인한 고귀한 전승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해지고 있는 글과 구절은 아주 짧은 문구하고 해도 여기에 매우 중대하면서 심원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코 경솔하게 부주의하게 단정을 내리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군 고기에 신단수(神檀樹)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만, 이것이 오늘날 일본의 신도가(神道家)에 의해 신사(神社) 형태의 복고적 한 요건으로서 주장되는 히모로기이하사카(神籬磐境) 그 자체





인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현재에도 지방의 어느 마을에도 신목(神木)이 있고 여기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단(壇) 혹은 신석(神石)을 설치하여, 연 1회 내지 수차례 마을 제사를 거행하는데, 전통의 힘이 가진 강인함에는 종종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단군이라는 것은 하여간 후대(後代)의 위조(僞造), 외래의 우상이 아니라, 민속적으로 확실한 존재였다는 점은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령 문헌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더라도 오히려 민속학적으로 강점을 가진 것이 단군의 신정(神政)인 것입니다.

요컨대 이는 고대에 '부루'라던가 '부루구네'라고 합니다. 이는 모두 마땅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훌륭한 신앙 체계가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관장하는 자가 단군이라는 역할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조선·몽고·동부아시아 등에 공통적으로 행해진 신앙 문화에서의 신격(神格)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신앙 체계 속에도 매우 다양한 신(神)이 등장하여, 다신적(多神的)이라기 보다 일종의 범신적(汎神的)인 경향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위로는 천지(天地)의 주재신(主宰神)에서부터 풍운풍전(風雲風電)의 천상신(天上神)이나, 산에는 산신(山神), 강에는 천신(川神), 물에는 수신(水神) 등 여러 신이 존재하였습니다만, 점점 신앙이 발전해 가면서 자연신들도 당연히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신이 둘 있습니다. 즉, 그 하나는 개발(開發)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토지, 문화를 개창한 신, 다시 말해 나라를 형성한 신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문화신(文化神)이며, 또 하나는 호국(護國)의 신, 다시 말해 국가 생활에 신명(身命)을 바친 신입니다. 자연신에서부터 인문신(人文神), 특히 국가 관계의 신격(神格)이 중시되는 경향을 보여 온 점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조선에서도 모든 신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 속에서, 이 두 신(神)만은 시종 변함없이 서민의 존신(尊信)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등을 살펴보면, 호국신(護國神)이라는 것이 매우 폭넓게 자리해, 국민적 영웅인 어느 왕처럼 죽어서 호국용(護國龍)이 되리라고 맹세한 예도 있습니다. 고려조에는 초기에 '육대사(六大師)', 나중에 최영(崔瑩), 정몽주(鄭夢周)처럼 국주적(國柱的) 인물이 국민 존경의 최고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최영의 경우에는 후세 무격(巫覡)을 통해 고금(古今) 최대의 혈사(血祀)를 누릴 정도였습니다. 조선조에는 육신(六臣)이라던가 삼학사(三學士)라는 이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만, 남선(南鮮)의 연해(沿海) 지방에서 이순신(李舜臣)을 신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였는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점이 있습니다. 이순신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에 갈 때마다 본지(本地)를 잘 살펴보면, 모두 구국 호세(救國護世)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살펴보아도, 안협(安峽)의 제당연(祭堂淵), 온양(溫陽) 연산(燕山)의 성황사(城隍祠), 강진(康津) 완도(莞島)의 호국신사(護國神祠)처럼 많은 실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격(巫覡) 사이에 널리 모셔지는 대표신으로 '육장군신(六將軍神)'이라





는 존재가 있어, 김운량(金雲養)도 이에 대한 영신송신사(迎神送神辭)를 지어 문집에 실어 놓았을 정도인데, 육장군(六將軍)이라는 것은 역시 최영·남이(南怡)·신립(申砮)·송상현(宋象賢)·임경업(林慶業) 등 군국(軍國)의 공로자들을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 산천(山川)의 신(神)이 존사(尊祀)되고 있습니다만, 도성진아(都城鎭衙)의 산들은 ‘호국신’으로 칭해지며, 한층 존경을 받았습니다. 경성(京城)에서도 백악(白岳)의 남산(南山), 낙산(駱山) 등 모두 태조왕(太祖王) 초에 이미 호국신에 봉해져 말기에 이르기까지도 500년 동안 변함없이 무성한 수풀로 우거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신성(神性)에 의한 것입니다. 호국신을 존경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라·고려·조선을 통해 새롭게 신이 된 존재는 모두 호국신이었으며, 그 외의 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국신(開國神)을 중시하는 것은 일본 신도(神道)와 실제로 기구가 같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또한 조선에서의 고신도(古神道)와 일본에서의 신도와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는 시간을 요하는 일이므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심전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심전개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를 받아 들이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씨앗을 뿌리는 일이나 비료를 주는 일은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제가 들은 여러분의 의견은 상당히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도 있으며, 상당히 갭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의견처럼 불교를 어떻게 할지, 유교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으며, 실례되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교를 어떻게 할지, 유교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이 오늘날 조선인의 심전개발의 근본 문제라고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요컨대 마음을 어지럽히는, 다시 말해 일종의 폭력배와 같은 자에게 어떻게 활력을 불어 넣고 마음의 탄력을 불어 넣을지 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며, 불교를 어떻게 할지 유교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인의 심전개발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정신을 일깨워 이에 활력을 갖게 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오늘날까지 조선인은 자기 자신을 잊고 불교가 번성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유교가 흥하면 거기에 기울어 늘 자신을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이 선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불교를 일으키고 사방에 절을 건립하였다고 해서 오늘날의 조선인에게 그것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고상한 교리는 본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며 비천한 형식은 미신에 빠지기 쉽고 게다가 오늘날의 승려들에게는 대부분 제도(濟度)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격(巫覡)을 미신이라고 하여 배격하는 이유와 실제 모순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불교는 근기(根機)를 중시하여 중생의 기(機)에 따라 8만 4천의 교문(教門)이 존재한다고 하여, 함개상응(函蓋相應), 침개상투(針芥相投)를 시끄러울 정도로 설법하는 종문(宗門)입니다. 이와 같은 불교의 교리를 통해 보아도 불법 부흥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또한 유교도 마찬가지로, 본래 계급성으로 가득한 유교입니다만, 그것이 조선에서 한 층 더 그러한 성능이





발휘된 상황이므로, 실제로 양반 계급·특권 옹호가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대이상은 양반 계급에서조차 커다란 효과를 보이지 못한 채 이른바 유교 문화는 사실상 서민과 물교섭적(沒交涉的)인 것, 때로는 대조적인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유교·유학이라고 하면 으레 이와 같은 것이기 마련이며, 이러한 기성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은 서원(書院)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른바 양반 계급에서는 어떤 반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일반인들은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흘러들어 그 반시대적인 무의미함을 웃음으로 날려 버릴 것입니다. 아무튼 민중의 심전개발 문제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입니다. 문제가 다른 상황과 다른 심전에 대한 것입니다. 반향(反響)과 감향(感響)을 제외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론은 어찌됐든 실재를 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정(施政) 이래 오늘날까지 25년 동안, 갖가지 시설이 강구되었습디만, 아직 확실히 자리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조선인의 마음 속 깊이까지 파고드는데 무언가 부족한 점으로 인해, 이러한 심전개발이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심적 기능에 결여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어버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방법에서는 본말(本末)의 순서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가장 좋은 민중의 심금에 감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불교나 유교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밖에 있다고 보며, 가령 불교를 부흥시킨다고 해도, 일반 민중에게는 아무런 감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선불리 매승 횡행(實僧橫行)을 조장하거나 혹은 일본 불교를 도입하여 조선 불교의 앞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을 가져 오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지, 오히려 매우 우려되는 점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조선에서의 기능 상태는 이미 시험을 마친 상태이기도 하며, 한편으로 인습적폐(因襲積弊)하여 그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여, 불교·유교를 위해서도 지금은 오히려 내성잠수(內省潛修), 삼연화합(三緣和合)을 위한 다른 날을 기약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현 단계에서의 심전개발 임무는 더욱 깊이 침투시킬 다른 신예(新銳)에게 넘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입제(注入劑)가 아닌, 안에서 자기 정신의 각성을 통해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심전개발이라는 문제는 조선에서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며, 일본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성장하는 새로운 국면에 순응할 광대한 통일 원리의 파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원웅대한 길의 발견, 세계 건립과 깊이 결합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일시적인 형편이나 혹은 일부 방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황국(皇國) 발전으로 나아가는 대도(大道) 개척이어야 합니다. 이는 조선의 오랜 길임과 동시에 일본의 대도(大道)이며, 나아가 전 동양의 통일 원리로서의 신(神)이자 고도(古道)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고유 신앙을 촉발(觸發)·제시(提撕)·선도(善導)·정화(淨化)함으로써 조선인에게 자기가 살아갈 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고도(古道)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가치를 발양(發揚)하게 함으로써 조선인을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강력하며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하지 않고 무익한 우회적 방법을 취하지 않고, 법이자연(法爾自然)의 고유한 길을 도(道)로 삼는다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물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구자존(本具自存)의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으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신(神)이기도 한 도(道)에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루의 도(道) 단군(檀君)이라는 표상(表象)에 정신의 귀취(歸趣)를 분명하게 한다면, 그 효과와 위력은 실로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조선인의 이러한 결집된 정신과 그 힘을 일본의 대도(大道)에 통괄함으로써, 고원한 이상도 무엇보다 원만하게 충족될 것입니다. 비천한 것에서 가장 고상한 점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의 정신 문제는 그저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만족스런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까지 전망을 해야만, 심전개발이라는 것도 결국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합(併合)의 대정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조선에서 일본의 정치를 실시함으로써 구제(救濟)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그 진의(眞義)여야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오늘날까지 조선에는 서양풍의 식민 정책적 통치가 실시되었는데, 제치일치(祭治一致) 신인(神人) 모두 함께 하는 일본 본래의 정치는 아직 조선에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사 이래 국가적 향사(享祀)를 올렸던 크고 작은 무수한 신령(神靈)은 병합으로 인해 모두 그 지위를 빼앗기고 하늘을 떠돌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일본의 정도(政道)를 보아 실로 우려되는 점이 많고,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기도 합니다. 일본 국체(國體)의 정화(精華)는 제정일치(祭政一致), 신인상의(神人相依)라는 점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점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조선의 현 상황은 무엇보다도 길에서 어긋나 있어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구구한 심전개발만의 문제 아닌, 중대한 일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최대 의무는 일본의 도(道)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갖가지 오류가 발목을 잡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최근 매우 소란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기관설(機關設) 문제처럼 이는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의 정도(政道)가 있고, 이 대도(大道)는 안팎으로 격이(隔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선을 진정 일본으로 삼아 조선인을 진정 일본인의 길을 걷게 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도 조선의 고신도(古神道)에 대해 매우 경건하고 엄숙하게 검토하여 인식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번 만주국에는 만주신사(滿洲神社)라는 것이 생겨, 만주의 건국신(建國神)을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의 신 발전지 정치 지침(新發展地政治指針)이 정도(正道)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조선 병합 당시와 비교하여 많이 나아진 사상적 그리고 도의적 진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당국에서 정신 방면에 신경을 쓰며 심전개발이라는 문제에 대해 중추원(中樞院)에 자문을 구하였다고 하므로, 여러분은 함부로 좌고우면(左顧右眄), 영합적(迎合的) 언사를 하지 말고 우리 조선인의 진정한 기개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또한 이 길에 협력하여 답신을 하여야 하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으





로는 이 문제를 자문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의 앞날에 관해 여러분보다 더 진일보한 의견을 갖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마음의 문제이며, 국가 사회 백천만 년 대계(大計)이므로, 애매의위(曖昧依違)하는 일시적으로 호도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마음자세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우 불손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함께 도(道)의 세계 건설에 대한 성의(誠意)의 발로(發露)로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

## (2) 이능화, 조선의 고유신앙

조선사편수회 위원 이능화(李能和)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조선의 고유 신앙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얻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선의 고유 신앙에 대해 특별히 연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직 평소에 연구하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국어'(일본어)가 서툴러 현헌(玄楹) 참의(參議)에게 통역을 부탁하였는데 지금 흔쾌히 수락해 주셨으므로, 이 점에 매우 힘을 얻었습니다.

조선의 고유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를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쉽지 않으므로, 주요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그 밖의 것은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단군(檀君)에 대해서입니다만, 『삼국유사(三國遺事)』(이는 고려(高麗) 고종(高宗) 때 일연선사(一然禪師)가 고기(古記)를 모아 작성한 것)에는 2000년 전의 『위서(魏書)』에, 2000년 전에 단군 왕검(檀君王儉)이 있어 처음으로 나라를 열어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또한 고기(古記)에는 환인(桓因)이라는 천제(天帝)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강림하여 신시(神市)를 열고 행정을 실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실시함에 곡물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이어 인생(人生), 그리고 이어 주병(主病), 주형(主刑), 주선악(主善惡)과 같이 대략 360여 일을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단군 탄생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 환웅왕이 태백산에서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자 신에게 비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은 신령한 쑥(靈艾)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곰과 호랑이에게 주어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간 동굴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였습니다만, 곰은 그 이름답게 100일째 되는 날 여자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로 변할 수 있었던 곰은 이번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기원을 하였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인물이 왕검(王儉)으로, 이 인물이 왕이 되어 정치를 펼쳤으며 그 기한은 1000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아사달산(阿斯達山)(해주)에 들어가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가 바로 단군이며, 아주 긴 시간동안 장수하였기 때문에 단군을 신인(神人)이라고도 하고 선인(仙





人)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예전부터 중국인들은 해중(海中)에 삼신산(三神山)이 있어, 그 산에 불사(不死)의 약(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는 앞에서 언급한 영애(靈艾), 마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중(海中)이란 태백산을 중국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다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선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삼신(三神)이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에서는 이 삼신을 삼위일체(三位一體)이라고도 하였으며, 또한 삼신이란 환인이라고 불리는 천제와 그의 아들인 환웅과 또 한 사람 왕검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허언(虛言)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사가(史家)들의 연구·고증에 맡기고, 다만 옛날부터 전해온 기록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어서 고려 충선왕(忠宣王) 시대에 안향(安珰)과 문성전(文成全)이라는 훌륭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만, 중국 원(元) 나라 시대에 충선왕 때 출사를 하였던 안향이 지은 시에 “塗山執玉愧夫妻”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부부(夫妻)라는 것은 단군의 아들을 말합니다. 중국의 하우씨(夏禹氏), 9년간 치수 사업(治水事業)에 종사하여, 천하의 제왕(諸王)을 모아 이에 대한 좋은 방법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백문보(白文寶)의 기록이나 권근(權近)<sup>61)</sup>이 쓴 글을 참작해 보면, 고려 말, 명(明) 나라 홍무(洪武) 19년에 사자(使者)로 갔을 때, 명태조(明太祖)<sup>62)</sup>가 권근에게 개국 동이주(開國東夷主)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도록 명령하였는데, 그 시에,

聞說鴻荒日. 檀君降樹邊. 位臨東國土. 時竝帝堯天. 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後來箕子世. 同是號朝鮮.

이라고 실려 있어, 조선의 선조는 단군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이와 동시에 단군의 조선과 기자의 조선을 구별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 말, 권근과 이첨(李詹)이라는 사람이 조명(朝命)을 받들어 『동국사략(東國史略)』을 편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에는 왕이 없었으나 단군이 태백산 단목(壇木) 아래로 내려와 비로소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고 경성(京城)에 도읍을 정해 조선국을 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6년 뒤, 권근이 중국 명나라에서 돌아와 홍무 26년에 조선의 이태조(李太祖)가 고려 공양왕(恭讓王)의 선위(禪位)를 받들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태조의 이념은 사대주의(事大主義)로, 명나라의 책봉을 받은 즉 제후(諸侯)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이태조 마음대로 국호를 정할 수가 없어 사신(使臣)을 명나라에 보내 국호를 조선으로 할지, 화령(和寧)으로 할지, 이 두 국호를 가져가 명태조(明太祖)에게 판단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명나라 왕의 명령에 따라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진 것입니다. 또한 화령이라는 것은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군(永興郡)을 말하며, 여기는 이태조의 발상지였기 때문일 것입

61) 양촌(陽村)이라고 부른다.

62) 주원장(朱元璋).





니다. 그리고 명태조는 지금까지 조선이라고 불려왔으므로 조선이라고 국호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조선이라고 칭해도 된다고 하여, 이로써 이조(李朝)의 조선이 출발한 것입니다.



이태조의 개국 즉위 원년에 단군을 첫 왕으로 받드는 제(祭)를 올렸습니다. 그 후 이 의식(儀式)은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제3대 국왕 태종(太宗) 시대에 예문제학(藝文提學) 변계량(卞季良)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 조선의 첫 국왕은 천신(天神)입니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역사를 보아도, 천하에 처음 강립한 것은 단군이므로,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하늘에 제시지내고 앞으로 이 제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제언하자, 태종은 이 상소대로 받아들여, 남산 밖에 남단(南壇)을 마련해 단군을 하늘에 제사 지냈습니다만, 그 목적은 풍작을 기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세종(世宗) 시대에, 구월산(九月山)(황해도)에 삼성(三聖)을 받드는 삼성사(三聖祠)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三聖)이란 환인(천제), 환웅(천신), 왕검(신격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명령을 내려, 구월산에서 평양의 숭령전(崇靈殿)으로 옮겨 단군을 주신으로 제사(主亨)하고 여기에 고구려 동명왕(東明王)까지도 합사(合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종(端宗) 때에, 황해도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농작물도 수확이 나빠 흉작으로 희생이 되자 일반 민중은 매우 곤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는 구월산에 있던 단군을 평양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은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종(成宗)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작황이 나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상태는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이에 황해도 시찰사(視察使) 이예(李芮)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그의 보고에 따라 구월산 삼성사(三聖祠)에서도 제를 올리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조의 정종(正宗)도 명령을 내려 항상 잊지 않고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기(祭器)를 청결히 하거나 사우(祠宇)를 수리하는 등의 일도 두 세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태조의 즉위 5년, 즉 무진년(戊辰年)의 일입니다만, 이 해는 마침 단군이 즉위하여 왕이 된 지 61년째로, 이른바 환력(還曆)에 해당하므로, 평양의 산에 있는 숭령전(崇靈殿)을 수리하고 문관(文官)을 보내 제를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모두 국가적으로 거행된 전례(典禮) 신앙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의 정족산(鼎足山)에도 정참성단(井塹城壇)(삼랑성(三郎城)이라고도 부른다)을 마련해 단군에게 제를 올렸습니다. 구월산 삼성사, 평양 숭령전, 강화도 삼랑성 등은 단군을 받드는 곳이며, 나아가 이들은 국가적으로 거행된 신앙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조선의 일반 민중의 신앙 대상으로는 종교로서 이태왕(李太王)의 광무 연간(光武年間)에, 정훈모(鄭薰謨)(생존), 유진구(俞鎭九), 이우형(李祐馨)이라는 사람들이 단군교(檀君敎)를 처음 설립하여 부내(府內)의 봉익동(鳳翼洞)에서 이해승(李海昇) 후작(侯爵)을 대교정(大敎正)으로 하여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를 경성 신사(京城神社)나 조선 신궁(朝鮮神宮)(당시에는 아직 없었습니다)의 일본인 신사와 제휴하여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형으로, 단군을 아우로 삼아 제를 올리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교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나철(羅喆)<sup>63)</sup> 오혁(吳赫)이라는 사람들이 대종교(大倂敎)를 처음 설립하여 단군을 종교적으로 받들었던 것입니다.<sup>64)</sup>

그 후 대종교가 단군교보다 번성을 누리 신자도 많아지면서 학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서적을 인쇄하여 선전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 중에는 김교헌(金敎獻), 유근(柳瑾)과 같은 학자가 있어 『단군사고(檀君事攷)』, 『삼일신고(三一神誥)』라는 서적을 저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대사교(大司敎)인 나철(羅喆)은 구월산에 들어가 자살을 하였으며, 이는 단군교를 발전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순사(殉死)한 것으로, 그 목적·동기는 조선인의 정신을 진작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철이 순사한 뒤, 김교헌이 대사교가 되었으며, 불간도(北間島) 가까이까지 가서 선교하여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신자가 있어 김교헌도 이곳에서 활동하였으나, 결국 영고탑(寧古塔)에서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수(田鑪)라는 인물이 대사교가 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단군에 대한 국가적 혹은 민중 종교적 신앙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직(社稷)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사직단(社稷壇)이라는 것은 중국의 주례(周禮) 제도에도 있습니다만, 조선에서도 고려 중엽부터 이를 채용하여 개성(開城)에 사직을 세우고, 국사(國社)·국직(國稷)은 도읍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사(國社)는 후토신(后土神)으로, 토지를 주형(主亨)하는 신입니다. 국직(國稷)은 곡물신(穀物神)입니다. 지방에는 주현사(州縣社)가 있고, 각 군청(郡廳) 소재 지에는 사직단(社稷壇)이 있어, 군수(郡守)가 연 2회 제를 올렸습니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거행된 전례(典禮) 신앙입니다.

다음은 민중의 사직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시대, 태종 13년에 충청남도 관찰사 허체(許遞)가 왕에게 상소를 올려, 옛 중국의 이사(里社) 제도를 채용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즉 이사 제도(里社制度)란, 100호(戶)가 사는 마을에는 사직을 세우고, 봄·가을 2회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두 모여 제를 올리고, 선행(善行)은 표창하고 악행(惡行)은 벌하였으며, 벌을 주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면전에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가 있어 이 제도를 채용하였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도 즉시 이를 채용하게 하여, 충청도는 잘 시행되었으므로, 자연히 정치도 잘 전개되었습니다만, 허체(許遞)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이조의 현종(顯宗)이 숙종(肅宗) 때 사람으로 허목(許穆)이라는 유학자가 있어 강원도 삼척군

63) 어렸을 때 이름은 인영(寅永).

64) 사전에 종(宗)이란 상고(上古)의 신인(神人)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수로 보내 그 관할하에 이사(里社)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허목은 직접 제문(祭文)을 지어 군의 부노(父老)에게 보내 봄·가을 2회 이를 거행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성황(城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당(唐)·송(宋)·원(元)·명(明) 시대에 이를 숭배하였습니다. 공후작(公侯爵)이라고 하여 봉작(封爵)한 일도 있습니다. 조선은 고려로부터 중국을 본떠 이를 숭배하였습니다. 이는 무슨 신을 받드는 것이었느냐 하면, 토지(土地)나 산천(山川)을 주형(主亨)하는 신이었습니다.

지방에 가 보면, 길가 산봉우리 정상에 있는 나무 아래에 돌을 쌓고 여기에 나무 조각을 만들었으며, 왕래하는 사람 중에는 여기에 돈을 놓고 여행의 안전을 빌기도 하였습니다. 속어(俗語)로는 이를 선왕당(仙王堂)이라고도 불렀으며,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제(山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제(山祭)는 조선에서 예전부터 민중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방 출신으로 지방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만, 마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을에는 진산(鎭山)이라는 것이 있어, 그곳에서 산제를 지냈습니다. 이곳에 만든 단(壇)은 산 위의 나무가 있는 청결한 곳으로, 연(年) 1회 음력 10월 수확을 마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관(祭官) 23명을 뽑아 반드시 2일 내지 3일 동안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깊은 밤에 단으로 가서 청결한 제자료(祭粢料)와 신기(新器)를 사서 준비를 해 거행하였습니다. 단의 동서남북에는 칠오삼승(七五三繩)을 쳤습니다. 일본의 칠오삼승과 같은 것으로, 곳곳에 종이조각을 달았는데, 이 역시 일본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금줄이라고 합니다. 제가 끝나면 백지를 한 장을 꺼내 마을 사람의 호주(戶主)(축호(逐戶)의 호주)의 성명을 불러 종이를 태워 이 재가 하늘로 잘 올라가면 운이 좋고, 떨어지면 운이 나쁘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산제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면, 산신(山神)의 사자가 와서 사람이나 가축을 닥치는 대로 죽인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에서 매년 산제를 성심껏 올렸던 것이며, 이것이 일반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산의 제단(祭壇)은 즉 신단(神壇), 일본의 히모로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무 천황(神武天皇)이 가구야마(天香山)에서 히모로기를 만들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모시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역시 나무가 있는 곳에 단을 만들고 사방에 칠오삼승을 쳐 놓은 점은 산신제(山神祭)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음은 무녀(巫女)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녀와 비슷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세계 각국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선의 무녀는 특히 각별하였습니다. 태고에는 모두 무녀를 신의 대상으로서 믿었으며, 기독교의 신부 혹은 목





사, 경학원(經學院)의 대제학(大提學)과 같은 격의 존재로, 사회적 지위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단군이라는 존재도 원시 시대의 무녀(무당)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 시대에도 제2대 왕 남해왕(南解王)은 차차웅(次次雄)(무녀)이라고 불렸으며, 고려 시대에 무녀는 왕의 스승으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왕까지 무녀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녀의 사사(師事)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무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고려 시대는 무녀의 풍속이 가장 번성하였던 시대이며, 중국 송나라의 서궁(徐兢)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고려인은 병이 들면 먼저 무녀의 집으로 찾아가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층민 사회는 여전히 병이 나면 무녀를 찾아가고 있어,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고려의 양반 중에도 선조에게 제를 올릴 때에 무녀의 집을 빌려 지냈으며, 이는 『고려사(高麗史)』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녀의 집에서 무녀에게 부탁해 제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나 노비를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이조 초기까지 남아 있었으며, 유교의 발달과 함께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녀는 사회에서 배척되어 지금은 최하층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조선인의 신앙은 무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받들기 위해 무녀의 집을 찾아가 제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중 심리를 방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조 시대의 단군교(檀君敎)·무녀·성황(城隍) 등을 종합해 살펴 보면, 어떻게 민중을 지도할 지에 대해, 저는 세 가지를 합쳐 하나의 신앙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이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는 각 마을에 있는 이사(里社)이며, 또 하나는 산제(山祭)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단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里社)·산제(山祭)는 사직(社稷)을 세워 이를 숭배하는 것이므로, 이사·산제만으로는 일반 민중의 신앙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천신(天神)의 자격 있는 단군을 첨가하여, 천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의 역사, 산신의 역사는 일본의 신과 마찬가지로 성질·형식을 가진 존재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문학사(文學士)로 조선어를 연구하고 있는 미야자키(宮崎道三郎) 씨는 어느 잡지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가무나미’란 신목(神木)으로, 즉 일본의 사카키(榊)입니다만, 조선어로는 감나무로 조선어의 고신(古神)을 의미할 때에는 신을 말하는데, 한자(漢字)여서 조선어로는 표현이 없으므로, 신의 원어(原語)는 ‘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서 ‘가무’가 ‘가미’로 변화한 것이라는 말은 옛 역사인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가무’가 나와 있으므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어로도 ‘감’입니다. ‘감’이란 단군의 이름 ‘왕감(王儉)’을 말합니다. 일본인이 ‘바스’라는 것을 조선인이 ‘보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일 것입니다.

또한 ‘금줄’이란 신을 위해 사용하는 칠오삼승이며, 지금의 풍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제(慵齋)(조선 성종 때), 성현성(成僉成)(조선 성종 때)이 성종왕이 왕자의 탄생을 보았을 때 방 입구에 ‘금줄’을 쳤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옛날부터 ‘금줄’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신단(神壇)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칠오삼승을 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색으로 형용(形容)하면, 백(白)은 해(日)에서 나온 것이고, 청(靑)은 풀(草), 적(赤)은 불(火), 황(黃)은 금(金), 흑(黑)은 현묘난측(玄妙難測)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한 『일본서기』를 살펴 보면, “곰의 히모로기가 있고 제단(祭壇) 한 구(一具)를 가지고 간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垂仁天皇三年春三月, 新羅王子天日槍來歸焉, 將, 來物羽大王一箇, ₂ 足高玉一箇, ₃ 鶉鹿赤石玉一箇, ₄ 出石小刀一箇, ₅ 出石鉞一枚, ₆ 日鏡一面, ₇ 熊神籬一具, 竝七物則藏于但馬之國, 常爲神物也. (후세에 이즈시 신사(出石神社)에 보관함)

이에 따라 제(祭)의 제도를 가지고 거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히모로기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디만, 가나자와(金澤庄三郎) 박사는 어느 잡지에, 히모로기란 일본어가 아니며 조선어도 연구해 보았으나 이 역시 풀 수 없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구마의 히모로기에 대해서 1907년에 도쿄(東京) 아오야마 신사(青山神社)에 가 보았습디만, 고마이누(高麗狗)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개(狗)가 아니라 곰(熊)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진구 황후(神功皇后)가 신라를 정복한 기념으로 구(狗)를 새겼다고 합디만, 진구 황후가 왔을 무렵은 신라 시대였으므로, 만약 개(狗)라고 한다면 시라기이누(新羅狗)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고마이누(高麗狗)라고 한 것은 모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마(熊)가 이누(狗)로 변화하여 고마이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의 역사와 비슷하며, 즉 신단(神壇)에 곰이 여자의 몸이 되어 아들을 낳는다. 이 곰의 히모로기가 본래의 시초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오야기(靑柳南冥) 씨가 저술한 『조선문화사』에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는 자신의 아들 이소타케루(五十猛命)를 이끌고 근국(根國)으로 건너가 소시모리(曾尸茂梨) 땅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 근국(根國)이란 즉 모국(母國)의 의미로, 소시모리 땅은 강원도 춘천이라고 하며, 또한 고사(古史)에 이소타케루의 어머니를 웅인종(熊人種)이라고 보는 점 등을 통해 일본 민족과 한민족(韓民族)이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이러한 태고사(太古史)에 따르면 더욱 명료해진다” 고 하였습니다.

히모로기라는 것은 썩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디만, 이때 곰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았다고 하여 ‘해모루기’였으며, 즉 ‘해’는 태양(日)을 말하고 ‘모루기’는 ‘알지 못한다(不知)’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증거가 없어 풀 수가 없습디만, 아마 일본의 신교(神敎)와 조선의 신교는 공통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세 가지를 합쳐 민중의 신앙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선인은 1910년 한일병합이 되었으므로, 먼저 조선신궁(朝鮮神宮)을 믿고, 후에 조선의 신을 믿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조선에서 친척 아이를 양자로 들였을 때, 그 양자가 양자로 간 그 집의 조상을 먼저 받들어 존경하고, 그리고 이어 출생한 집안의 조상을 숭배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즉, 양가(養家)·생가(生家)의 조상은 들이지만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신궁을 먼저 숭배하고 그런 다음에 단군을 숭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시어 송구스럽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3) 방한암, 불교는 실행에 있다

오대산 상원사(上院寺) 방한암(方漢巖)

먼 길 이렇게 와 주시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까부터 조선의 현존 종교 내지 신앙 문제에 대해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시다만, 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만한 소재는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는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다만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르치라고 해서 안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디를 어떤 점을 알기 어려운지, 정말 알지 못하는 곳 내지는 묻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그저 몰라서 라는 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저는 당국이 성의를 갖고 노력한다면 조선 불교는 반드시 널리 보급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 불교도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채탁동시(啐啄同時)라는 것을 계란부화(鷄卵孵化) 하려는 때에 비유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불교의 발전에 대해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원(意味深遠)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실행(實行)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이른바 심행부재구념(心行不在口念)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이 알아 실행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좌선(坐禪)을 하는 자는 좌선, 경전을 읽는 자는 경전, 염불을 외는 자는 염불을 열심히 성실히 행하면, 그 장소가 도시이건, 산중이건,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반드시 공명(共鳴)하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 불교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으로 그 신자를 늘려 가면, 불교의 융성은 그리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머지않아 진정한 불교도가 나오고, 불교는 조선 반도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모두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연설이나 강연, 선전을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불교는 융성하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성(佛性)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누구라도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불교 신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교가 발전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다만 세무(世務)에 바쁜 사람들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에 자주 잊고 마는데, 잊지만 않는다면 상주좌와(常住坐臥), 그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않고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이므로, 앞에서도 선(禪)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좀 더 말씀드리자면, 선이라고 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졸렬한 의견이나 선에 대한 설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 그 자체의 성질이 결심을 하여 실행하면, 저절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 성질상 가르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칠성각(七星閣)이나, 산신각(山神閣)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칠성각 혹은 산신각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원하거나 참배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으로, 이들을 믿고 기원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석가(釋迦)를 믿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불교는 포용성이 매우 큰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칠성각에 기원을 드리거나 산신각에 기원을 올리는 사이에 불교를 신앙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도움될 만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점은 실행에 있음을 말씀드린 데 지나지 않습니다.

#### 추기(追記)

10월 28일, 방한암 선사를 모시고 원좌(圓座)를 만들어 문답을 행한 것으로, 본고는 그때 방한암 선사가 하신 말씀의 개요를 기록한 것이다.

#### (4) 윤치호, 나와 기독교

중앙기독교청년회장 윤치호(尹致昊)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심전개발(心田開發)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미 불교에 대해서는 불교의 대가·전문가를 통해, 유교에 대해서는 유교의 권위자를 통해 각각 그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그중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린 사람이 없으므로, 저는 기독교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 또는 그 기초 내지는 그 학문적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3, 40년간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불교 혹은 유교 등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전문적인 이야기는 도저히 제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의 3, 40년간의 경험에 대해서 그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기독교를 신앙으로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본래 제가 기독교에 들어간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53년 전의 일로, 저는 당시 일본의 요코하마(橫濱)에 가서 영어를 연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요코하마에 있는 네덜란드 공사관(公使館)의 서기관(書記官)이 조선어를 연구하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서기관에게 영어를 배우고, 그 대신에 그에게 조선어를 가르쳐 주는, 이른바 교환 조건으로 3개월간 영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조선에 공사(公使)가 파견된 시기였으므로, 조선인 가운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어, 일본 전국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만, 불행히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네덜란드 공사관에서 3개월간 영어를 연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외무경(外務卿), 오늘날의 외무대신(外務大臣)의 부탁으로 미국 공사관의 통역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만, 미국 공사관에는 사이토(齋藤)라는 청년이 있어서, 이 사람은 당시 외무경의 신임이 매우 두터워 나중에 차관이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였으므로, 영어는 이 사이토 씨가 일본어로 통역하고, 그것을 내가 다시 조선어로 통역한, 당시에는 이중삼중의 통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에서의 미국 공사관에 약 1년간 있었습니다만, 그 이듬해 갑신년(甲申年), 김옥균(金玉均) 씨의 이른바 정변(政變)이 발생하여, 그 후에 제가 특히 김옥균 씨에게 총애를 받았다고 하여, 또한 제 부친이 정변 후에 형조판서(刑曹判書)라는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저는 조선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영어를 배우고 싶은 향학열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 12월에 미국 공사가 조선을 출발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를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미국 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할 계획으로 경성(京城)을 출발하였습니다만, 사실은 나가사키(長崎)까지 영사(領事)와 함께 갔고 그곳에서부터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사는 나가사키에서 곧장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와 헤어져 중국 상해(上海)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해로 갈 때에는 상해 주재 총영사 앞 소개장을 받아 갔습니다. 그 소개장이라는 것은, ‘이 청년은 학문을 위해 그곳으로 간 것이므로 부디 잘 지도해 주십시오’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해에 도착하여 미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이 소개장을 보여주자, 영사는 저를 당시 상해에 있던 기독교 선교사에게 저를 잘 지도 부탁한다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해 영사관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사에게 보내져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가 경영하는 구제원(救濟院)이라는 곳에서 이후 3년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처음 2년간은 영어를 배우고 나머지 1년간은 오로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는 기독교 선교사가 경영하는 곳이라도 제가 반드시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받은 적은 추호도 없으며, 매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드릴 중요한 점은, 그런데도 왜 제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당시 기독교 단체에서 경영하는 학교에서 2년 3년 공부하는 가운데, 혹은 자연히 그 전도(傳道) 모습을 보거나 혹은 강연을 듣거나 혹은 기독교 관계 서적을 읽거나 하면서 끊임없이 기독교 관련된 것을 듣거나 보거나 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무의식적으로도 나는 조선 출생이다, 조선 출생이라면 유교 혹은 불교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유교를 떠나고, 불교와 인연을 끊고 기독교를 무엇 위해 믿게 되었는가 하면, 줄곧 머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독교를 믿게 되기까지 불교·유교 등의 교문(敎門)에 대해서도 줄곧 연구하고 또한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당시 청나라의 관헌과 아울러 정치도 문란한 데에 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유교의 본고장으로, 2000년 동안 철저히 공자의 도(道)를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문란해졌을까? 이를 과연 유교를 통해 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도 눈을 돌려 살펴보면, 불교의 고상한 진리에 대해 반기를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상해에도 사원(寺院)이 있었고, 또한 각종 단체도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미신적인 요소만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 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해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의 기존의 모든 방법을 살펴보면, 이미 말씀드린 청나라의 정치 등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아무래도 기독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이러한 문란한 정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문란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자연히 저는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결과입니다만, 또한 지금 제가 기독교에 들어간 원인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상해에서 제가 공부를 하였을 때의 학자금 혹은 그 밖의 아끼지 않은 기독교 신자들의 친절한 도움에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다시 되돌아 갑니다만, 본래 제가 경성을 출발하였을 때에는 공사관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모은 돈이 수중에 500달러가 있었다는 것과, 여기에 출발할 때 아버지가 사금(砂金) 1구(句)를 주신 것이 제 학자금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유일한 의지처로 삼고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상해에서의 제 생활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노동자적 생활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500달러는 3년 동안에 모두 써버려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사금을 팔아 사용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조선과 상해 사이의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국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연히 조선에서 상인이나 관원 등이 올 경우도 있어,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정치범으로 받아들여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리는 듯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외에 있으면서 완전히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은 저를 자신의 아들 혹은 동생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 제가 기독교에 더 깊은 신념을 갖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교·불교 등과 신중하게 비교한 결과, 그 외관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장점을 고려한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선교사의 친절에 깊이 감화된 것입니다만, 이것이 제가 본래 기독교에 들어가 이를 믿게 된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후 마침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선교사들의 신세를 졌으며, 미국에서는 3년 동안 공부하였는데, 이 3년 동안에도 기독교가 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결국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기독교와 관련 있는 곳에만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에는 결국 5년 동안 있었으며, 또한 상해로 돌아가 처음에 신세를 졌던 구제원에서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는 마침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일어난 시기여서, 1904년 갑진년(甲辰年), 지금부터 41년 전에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 왔던 것입니다. 모국에 돌아와 저의 가세(家勢)는 의식주가 궁







항 정도는 아니었고 또한 지위(地位)도 미관미록(微官微祿)이기는 하였지만 직(職)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궁핍함은 없었으므로, 반드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일반 민중도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 후에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현상을 살펴보면, 모든 상황이 상해에 있었을 때 보았던 청나라의 상태와 완전히 동일하였습니다. 게다가 유교나 불교에 대한 관심도 새삼 생기지 않았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믿게 된 원인이 제 마음을 깊이 감화시키는 것이 있어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버릴 마음도 들지 않았으며, 결국 여전히 기독교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이 상해에서 본 청나라 상황과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이는 도저히 유교로 민심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의 종교로 자선이나 구제를 위한 시설을 갖춘 곳은 기독교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 (5) 정만조, 유교의 진수

경학원 대제학(大提學) 정만조(鄭萬朝)

유(儒)라는 글자의 뜻은 사람을 따르고 수(需)를 따르는 것으로, 수용(需用)해야 할 인재를 유(儒)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양자법언(揚子法言)에 “천지에 통하는 사람을 유라 하고 천지에 통하지 못한 사람을 기라 한다(通天地人曰儒通天地而不通人曰技)”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도리(道理)를 잘 통달한 것을 유(儒)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례(周禮)에는 “스승은 현으로써 백성을 얻고, 유는 도로써 백성을 얻는다(師以賢得民 儒以道得民)” 이라고 하였습니다. 주(周) 나라 시대에는 유(儒)라고 하는 관직명이 있어, 도의(道義)로 백성을 지도하였다는 내용이 즉 유(儒)라는 명칭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儒)라는 명칭은 공자 당시에도 자주 통용되었습니다만, 공자 자신이 직접 유(儒)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이르러 공자의 가르침을 믿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유자(儒者)라고 지칭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유교(儒教)라고 하는 것은 공자교(孔子教)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수(真髓)란, 진정한 정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 진수라는 것은 본래부터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유도(儒道)의 광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미천하고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를 다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평소 미충(微衷)한 일단(一端)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유교의 덕목은 매우 많이 있고, 유교의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만, 그 진정한 정신이 있는 곳을 한 마디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구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학(大學)에는 “明明德新民”이라고 있고, 중용(中庸)에는 “成己成物”이라고 있으며, 논어(論語)에는 “修己安人”이라고 있





어, 이는 즉 유교의 공통적인 일관된 사상으로, 이를 가지면 통괄적으로 수식적으로 한층 심원한 의미를 갖는 것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이라는 표어입니다. 이 용어의 본원(本源)은 장자(莊子) 천하 편에서, 장자가 공자의 도를 지칭한 것으로, 송나라 시대에 정명도(程明道)가 소강절(邵康節)의 학문을 찬미하는 데에 활용한 말입니다. 일반에게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디만, 진정 유교의 정신을 한 마디 말로 완전하게 표명하고자 한다면 이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교의 조리(條理)는 대학(大學)이라는 서적에 가장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 이 세 가지를 삼강령(三綱領)이라고 칭하고, 격물(格物), 치지(致知), 정심(正心), 성의(誠意),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팔조목(八條目)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격물, 치지, 정심, 성의, 수신은 명덕(明德)에 속하고 제가, 치국평천하는 신민(新民)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인격을 완전하게 수양하여 이를 인류 사회를 위해 바치는 것이 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선후본말(先後本末)을 말하면, 명덕은 본(本)이고 신민은 말(末)입니다. 또한 본은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이고, 말은 뒤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말의 의의(意義)를 잘못 해석하여 이물(二物)로 간주해서는 불가한 일입니다. 본말이라는 것은 원래 일물양단(一物兩端)을 말하며, 양자가 함께 해야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없이 말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본만 있고 말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덕신민(明德新民) 이자합일(二者合一)하여 그런 다음에 비로소 유교의 이상을 달성하게 되므로,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정심수신(正心修身)에 본(本)을 두지 않고 천하 국가를 운위(云爲)하거나 혹은 정심수신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천하 국가를 돌보지 않는 것은 모두 반신불수(半身不遂)의 상태로, 인류 사회의 막대한 결함은 이 안에서 생기 것입니다. 따라서 유교의 목적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면서 동시에 이 수기치인의 최고 이상은 내성외왕(內聖外王)에 있는 것입니다. 내성(內聖)이란 안으로 자신을 수양하여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성인(聖人)을 목표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외왕(外王)이란 밖으로 사회를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데에 왕도(王道)를 목표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인격의 단계에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만, 인간의 최고 지위는 성인(聖人)이므로, 자기 수양에서는 일예일능(一藝一能)이나 일선일장(一善一長)에 만족하지 않고 사(士)보다 군자(君子), 군자보다 현(賢), 현보다 성(聖)으로 진행한다는 순서로 인간 최고의 지위인 성인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 방면에서는 형명법술(形名法術)의 학문이나 부국강병(富國強兵)의 책략이나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패도(霸道) 및 법치(法治)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덕치주의(德治主義)가 최고인 왕도 정치를 이상(理想)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에서 가장 이상으로 여기는 것이며, 이 이상대로 완전하게 실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자의 이상인 대동태평(大同太平)의 시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다면 소강(小康)의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유교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도(道)이며 대동태평(大同太平)의 이상주의입니다. 나아가 이를 작게 구분하여 다음의 네 가지 항(項)에 걸쳐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중략)

은(殷) 나라의 이윤(伊尹)은 필부필부(匹夫匹婦)라고 해도 요순(堯舜)의 은택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를 구중(溝中)에 넣은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思天下之民匹夫匹婦有不被堯舜之澤者若己推而納諸溝中). 재상(在上)의 관리로서 인(仁)의 도리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명도(程明道)가 말하기를, 일명(一命)의 사(士)라고 해도 진심으로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에게 반드





시 베풀 것이다(一命之士苟存心於愛物於人有所濟). 아무리 하급 관리라도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을 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민중에게도 이러한 인(仁) 사상이 있다면,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도(道)를 알고,윗사람에게 친절하고 장(長)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 의(義)를 행하여, 군국(君國)을 위해서는 신명(身命)을 던지고 수족(手足)이 두목(頭目)을 보호하듯이, 자제(子弟)가 부형(父兄)을 따르듯이 할 것입니다. 대개 인애(仁愛)의 도(道)는 지성측달(至誠惻怛)의 본심으로, 물아일여(物我一如)의 관념 아래 각각 그 분(分)에 따라 권능(權能)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질적인 이기주의 증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인(仁)의 도(道)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명나라의 설경현(薛敬軒)이름은 선(瑄)이 저술한 『계자서(戒子書)』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윤리(倫理)뿐이다. 무엇을 윤(倫)이라고 하느냐,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 이 다섯 가지의 윤서(倫序)가 그것이다. 무엇을 이(理)라고 하느냐, 의(義)가 있고·친(親)이 있고·별(別)이 있고·서(序)가 있고·신(信)이 있어 이 다섯 가지의 조리(條理)가 그것이다. 이 윤리에서 분명하고 또한 힘을 다할 수 있으면 비로소 사람이라는 이름을 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만 하고 있을 뿐, 그 본질은 금수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글은 참으로 유교의 본의(本義)를 갈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 날 순(舜) 시대에 계(契)라는 사람에게 명하여 사도(司徒)라는 직(職)을 내려, 윤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오륜(五倫)의 명목(名目)은 이때 처음으로 성립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夏)·은(殷)·주(周) 세 시대에는 문화 시설이 크게 발전하여 각각 대학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그 교육의 취지는 모두 인륜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나라 말에 세상이 크게 혼란스러워져 신(臣)으로서 그 군(君)을 시해하는 자가 있고, 아들이면서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성(大聖) 공부자(孔夫子)가 이때 태어나 요순(堯舜) 이래 군성(群聖)의 대도(大道)를 집대성하여 만세 인류의 규범을 마련한 것도 이 윤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후 2400년 동안 많은 선철선현(先哲先賢)이 천언만어(千言萬語)를 구사하여 이 도(道)에 대해 밝혀낸 것도 요컨대 이 인륜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유교를 윤리의 가르침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자(君子)의 도(道)에 가장 고귀한 것은 중용(中庸)의 도입니다. 중용의 도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시중(時中)의 권(權)입니다. 시중(時中)의 권(權)이란, 예를 들면 형(衡)으로 사물의 무게를 잴 때에는 그 물체의 경중(輕重)에 따라 그 추(錘)를 잘 움직여 촌호(寸毫)의 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평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인(聖人)의 도는 이와 같은 것으로, 만사만물에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적절한 시중(時中)의 도를 도모하는 것이 성인의 도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교훈 중에도 혹은 만고불역(萬古不易)의 진리를 설파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그때에





### 한해 그 일 (중략)

이상 말씀드린 것은 개요에 불과하지만, 유교의 진수는 원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유교의 본래(本來)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도(道)로, 인(仁)을 본령(本領)으로 삼고, 윤리(倫理)를 밝히고, 시중(時中)을 공경하고, 실학(實學)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점을 종합해 살펴보면, 인류의 대본달도(大本達道)라는 것이 스스로 명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오랫동안, 유교가 변성을 누리는 가운데, 그 말로에 이르러서는 많은 폐해를 낳고 유교의 진면목을 말살하였으며, 유교의 진정한 정신을 파괴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科擧)를 보고 녹리(祿利)에만 몰두한 폐습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대이상을 망각해 버렸고, 계급주의와 당쟁의 적폐(積弊)는 인(仁)의 본령(本領)을 몰각(沒却)한 것입니다. 완고한 학자들이 구식을 묵수(墨守)함으로써 시중(時中)의 도에 배치되었으며, 성리학(性理學)의 여폐(餘弊)는 공리공론(空理空論)에 빠져, 실용(實用)의 학문과는 몰교섭(沒交涉)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교가 이처럼 쇠락한 원인을 이루는 것으로, 이 역시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교의 말엽에 보여준 폐해만을 지적하여 동양 도덕의 근간인 대본달도(大本達道)까지 경시하는 것은 분명 “근심으로 음식을 폐한다”는 어리석은 의견입니다. 가령 한 때 소화불량 증세를 앓았더라도 음식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희망은 과거의 폐습에 대해서는 쾌도양단(快刀兩斷)처럼 이를 타파하여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성인의 참된 정신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유교의 진면목을 발휘하고 충효를 근본으로 인의도덕(仁義道德)을 중시하며 예의염치(禮義廉恥)를 귀하게 여기는 미풍양속을 세워, 물질중독의 이 사회를 개조하는 일은 우리가 밤낮으로 기원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 (6) 정봉시, 조선유교 대관

경학원 부제학(副提學) 정봉시(鄭鳳時)



조선의 유교는 세계적으로 상찬(賞讚)의 대상이며, 이는 이른바 군자(君子)라면 항상 행해야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혹은 이를 일부 유생(儒生)이 말하는 것으로 간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교가 쇠락한 오늘날 이런 말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정(茂亭) 선생이 대성질호(大聲疾呼)하여 이룬 도덕(彝倫道德)을 부흥시키고자 지난 번 유교의 진수에 대해 말씀을 하였으므로, 저희가 나설 곳이 아닙니다만, 오늘 저는 『조선 유교 대관(朝鮮儒教大觀)』이라는 것에 대해 비천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르침은 하나로, 위로 가르침을 펼치면 간(簡), 아래로 가르침에 따르면 전일(專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유교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교는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공자(孔子)가 상전(相傳)하고 상행(相行)한 법(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중국에서의 성제명왕(聖帝明王)과 원성대성(元聖大聖)의 수훈(垂訓)입니다. 이것으로 유교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요순(堯舜)의 가르침을 조술(祖述)하고, 문무왕(文武王)을 헌장(憲章)으로 삼고, 백세(百世)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진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윤리 도덕을 설명하는 것이 유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르침은 고원난행(高遠難行)의 도(道)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건너는 데에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이륜도덕(彝倫道德)이며, 당연한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의 연혁(沿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高句麗)의 소수림왕(小獸林王) 2년에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子弟)를 가르치고, 백제(百濟)에서는 근초고왕(近肖古王) 29년에 비로소 박사관(博士官)을 설치하였습니다. 신라(新羅) 시대에는 진덕여왕(真德女王) 2년에 석존(釋尊)의 예(禮)를 처음으로 거행하였고 신부왕(新父王) 12년에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이 방언(方言)으로 구경의(九經義)를 풀어 후생(後生)을 훈도(訓導)하였으며, 고려(高麗) 시대 문종(文宗) 17년에 유신(儒臣) 중 입도교회자(立徒教誨者) 12명이 있어, 이 12명 중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의 문하생과 홍문공(弘文公) 정배걸(鄭倍傑)의 문하생이 가장 활발하였습니다. 공민왕(恭愍王) 때에, 충렬왕(忠烈王) 30년에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가 유교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시를 지어 말하기를, “곳곳에 분향 연등하는 것은 모두가 부처에게 바쳐지고(香燈處處皆借供(祈)佛), 집집마다 퉁소 피리부는 것은 모두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簫管家家盡賽(祀)神), 홀로 수간의 공자묘가 있지만, 봄풀만 정원에 가득하고 적막하여 사람이 없다(獨有數間夫子廟滿庭春草寂無人)”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많은 현인학자(賢人學者)가 나와, 예악문물(禮樂文物)이나 전장법도(典章法度)가 널리 전파되어 크게 갖추어져 이륜(彝倫)도 자연히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문명 정치도 이 삼대(三代)에는 번영을 누렸습디만, 그 후 공령(功令)의 문(文)과 사장(詞章)의 학(學)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자연히 멀어졌습니다. 또한 한편 당파의 분(分)과 파벌로 인해 참된 유자(儒者)를 등용하지 않아 예나 악은 말장난처럼 되어 버렸으며, 이(理)라든가 기(氣)라고 하는 것도 같은 방의 재주를 부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에 이르러, 교화(教化)는 무너지고(陵夷), 이륜(彝倫)은 섞이고 상하여(斃傷) 결국 유교는 어디로 갔는가 하는 탄식을 듣기에 이르고 만 것이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설자(說者) 중에 유교는 부패하여 배울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는 공자를 모욕하는 언사와 행동을 의기양양하게 논하는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난적(亂賊)이라고 할 만하며, 운 좋게 법률을 피해 간다고 해도 귀신의 눈은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종종 유교가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자의 곡학(曲學)에 의한 것이며, 유교 그 자체를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즉, 이들은 국을 탓하고 부추를 불거나 걱정으로 인해 음식을 폐하는 무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종교이건 아니건, 이러 것에 대해 구구하게 다투어 본 들 소용은 없습니다만, “천명(天命)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性)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하며, 도(道)를 닦는 것을 교(教)라고 한다”라는 말을 통해, 이를 종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미신이 있어서 여기에서 종교가 생겨난다고도 말합니다. 공자는 “제사를 계신 것처럼 드리고, 신을 제사할 때 신이 계신 것처럼 한다(祭如在, 祭神如神在)” 또는 “鬼神之爲德其盛乎, 齊明盛服, 以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라고 말씀하셨습디만, 이는 진정한 믿음으로, 미신(迷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유교를 배척하는 것은 모두 본심에서 그런 것인지, 혹은 신평사조(新風思潮)에 휩쓸려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것인지, 혹은 아부(阿附), 오해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공자의 가르침 중에, 태어나 자라고 입고 먹는 자이면서 공자교(孔子教)에 불복하는 것은 부자(夫子)의 도(道)로 부자(夫子)를 해하는 것이며, 실로 애통한 일입니다. 아무리 안택(安宅)의 인(仁)과 정로(正路)의 의(義)에 거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안택(安宅)을 스스로 훼손하고 정로(正路)를 스스로 파괴하려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교는 아시다시피, 윤리(倫理)의 학문이며, 이른바 오륜(五倫) 가운데, 부자형제(父子兄弟)는 천륜(天倫)이며, 군신부부붕우(君臣夫婦朋友)는 인륜(人倫)이라고 합니다. 천륜은 천성(天性)의 친일(親日)이며,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인륜은 의(義)를 합친 것으로, 일국(一國)의 군자(君子)의 신민(臣民)을 보기를 내 아이처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書)에 元后作民父母. 又子惠困窮. 民視君如父. 시(詩)에 父母孔邇. 又庶民子來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有夫婦而後有父子 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인륜의 시작입니다. 夫婦廢義. 君子以友輔仁. 朋友切切偲偲. 攝政之母, 終而許友以死. 豫讓之貌, 變而其友識之라고. 따라서 사람이 오륜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금수(禽獸)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호유조포(虎乳鳥哺)는 부자(父子)이며, 봉아의둔(蜂衙蟻屯)은 군신(君臣)이며, 關關雎鳩摯而有別이란 부부이며, 嚶嚶鳴雁, 飛必有序는 형제이며, 鳥鳴嚶嚶, 求其友生은 붕우입니다. 인간이면서 금수만도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유교는 정치의 학(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학(大學)에, 物格而後知至, 知至而後意誠, 意誠而後心正, 心正而後身修, 身修而後家齊, 家齊而後國治, 國治而後天下平 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제(齊) 나라의 경공(景公)이 어느 날 정(政)에 대해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에 대해 말하기





를, “君君臣臣父父子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以食諸”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기에 국가(國家)가 있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이륜(彝倫)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 정(政)은 선정(善政)일 것이므로, 자연 국가는 잘 다스려지고, 만약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므로,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정치도 또한 이륜(彝倫)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의 선악(善惡)과 국가의 정란(政亂)은 이륜(彝倫)이 명료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 도덕은 동양의 형이상(形而上)의 정신문화라고 할 수 있고, 기예기계(技藝器械)와 같은 것은 서양의 형이하(形而下)의 물질문명입니다. 우승열패(優勝劣敗),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이 시대에 이들 가운데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으며, 어느 하나에 편중되거나 다른 것을 폐(廢)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양 고유의 정신문화를 그 체(體)로 구성하고, 서양의 물질문명을 그 용(用)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이들을 병행시켜 가는 일이 우선입니다. 특히 동양 고유의 윤리 도덕을 배척하고 서양의 기예기계에만 현혹되어 버리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양의 서적이날로 수출되고 있고 서양 풍조가 날로 수입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발전하여 유교가 외국에까지 건너가 크게 진작·발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행히 당국에서도 동양 고유의 도덕이 공중에 떠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설립하여 동양 고유의 이륜도덕(彝倫道德) 내지는 유교의 참된 정신을 함양하고자 심전개발(心田開發)을 훈시(訓示)하여 인민이 나아갈 곳을 제시하고 2,000만 민중의 혼미한 정신을 환기시켜 일깨워 가는 현 상황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깊은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심전개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심전이란 명덕(明德)이며, 개발은 이를 명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학개원제1의(大學開卷第一義)의 명명덕(明明德)이며, 이 명명덕은 즉 유교의 제일강령(第一綱領)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유교 발전의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회(好機會)이므로, 여러분의 힘을 빌려 저 역시 그 진흥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 그리 신통치 않은 강연을 들어 주시어 뭐라 감사드려야 할 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7) 정인과, 기독교 교리의 진수

조선기독교장로회 총무 정인과(鄭仁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독교의 진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기독교회에는 연장자도 계시고, 특히 박학한 분들도 많이 계신 가운데, 나이





어린 제가, 더구나 비천한 자가 이러한 자리에 와서, 선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은, 한편으로 송구스럽기가 그지없음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매우 영광스러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실은 어제 이곳에 와서 강연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너무나 시간이 없는데다가, 2, 3일 전부터 감기에 걸려 아직 완쾌되지 않아 이렇게 서있으니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원고를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생각나는 대로 두, 세 가지 말씀드려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가 특별히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것을 원탁에서 간담을 하듯이 말씀드리므로, 이 점에 대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교리, 진수라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가운데 중요한 항목만을 말씀드리고, 또한 기독교와 지금 주창되고 있는 심전개발(心田開發)에 대해 다소 비천하나마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 종교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면, 신과 인간의 관계를 논하는 바를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과 인간 사이의 일을 논할 때에는 먼저 신과 인간의 인격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서 신과 인간의 공통성을 가진 이른바 ‘생(生)’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공간이라면, 서양이나 동양, 일본이나 조선과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시간이란,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생’에 대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처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며, 가능한 한 넓은 곳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 기간도 일생을 80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듯합니다만, 이 80년도 짧다고 하며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에는 인간처럼 공간이나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처하는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한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종교가 신의 생도 공간, 시간에 따라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제한적이라고 해석하여, 우리 인간의 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된 신격(神格)을 축소하여 ‘영생(永生)’인 신의 생을 축소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긴장하시고 계신 듯하여,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여자가 생에 불만을 느끼고 높은 산에 올라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산꼭대기에 올라 자살하려고 하자, 호우가 내리고 번개가 무섭게 내리치며 천둥이 요란하게 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결국 자살을 단념하고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던 사람이 왜 내려 왔냐고 물으니, “산 위에는 정말 폭풍우가 무섭게 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냥 그렇게 있다가는 번개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무서워서







내려왔다” 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나, 번개에 맞아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이때 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적 요구에 이끌려 죽으려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산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항상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신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현재 교육 혹은 철학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지식과 체험과 훈련에 따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뜨거운 스프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스프 안에 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에는 뜨거우니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을 때에는 손을 대지 않을 만한 곳까지 손을 가져가 뜨겁다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뜨겁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며 체험입니다. 그밖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깊은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아이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질식해 죽는다는 것을 모르므로, 그럴 때에는 아이를 물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해엄을 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체험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 위험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 깊은 곳에 들어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시킵니다. 이렇게 체험이 끝나면 그 아이는 앞으로 깊은 곳에 가 익사할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미국인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즉 체험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는 교육 방식을 널리 시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인은 큰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 한, 두 가지 실례를 인용해 말씀 드린 것은 특별히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듀이 박사의 설에 따라 인간의 지식은 고통스러운 체험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지식은 얻을 수 없다고 보는 일단(一端)을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뉴욕의 한 대학 교수인 킬베트리크라는 박사의 이야기로는, 교육이나 철학과 같은 것에 대해 인간이 지식을 얻는 것은 태평양처럼 넓은 지식에서 그 실마리 하나를 찾는 것에 불과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에 따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신의 지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10대 종교라고 불리는 것 중에는 신의 지식에 제한이 있다고 설파하는 자가 있습니다만, 이는 신의 지식이 인간의 지식과 완전히 같다는 것이므로, 만약 제한이 있다고 하면,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제한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신은 무제한의 초지식(超知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신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물리적(物理的)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물(物)의 힘(力)입니다. 그 힘이라면, 최초 물질의 분자(分子)의 진동도수에 따라 발현되어 열(熱)·광(光)·전기(電氣) 순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질상의 힘의 발휘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물질이 에너지라는 힘에 의해 발휘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心)이 가진 힘(力)의 발휘도 신의 에너지에 따르지 않으면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발휘되는 그 빛(光)은 깨끗한 광명이며 사랑(愛)의 힘(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신의 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한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힘을 인간이 받아 충분히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넷째로는 신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愛)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물질에서 전기를 발하는 것처럼, 우리 심리에도 오묘한 힘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두 인간에게는 제한이 있지만 신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난국(難局)에 직면하거나 혹은 공포를 느끼는 경우에는 신의 힘을 빌려 이를 벗어나려고 하거나 혹은 영감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래 이것이 종교가 발생한 근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큰 항목의 두 번째로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인간이 신에게서 그 영감을 받는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 표준은 어떤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진(眞)·선(善)·미(美)라는 것에 따라 다스려집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도 신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과 선과 미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신의 세계는 진과 선과 미를 법칙을 삼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진과 선과 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진(眞)이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론(異論)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수리학상(數理學上) 2에 2를 더하면 4가 된다는 원칙과 마찬가지로, 또한 공을 심으면 공이 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리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을 제시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진리를 기조로 하는 종교만이 확고불발(確固不拔)의 진리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동물계(動物界)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나비가 꽃을 좋아하고 벌이 꿀을 좋아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 진리를 마찬가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정직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신의 진리라는 것을 표준으로 삼으면, 심전개발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두 번째 선(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신의 선과, 이른바 인간의 선은 그 취하는 표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재산물을 빼앗아 어느 곳의 구제 사





업에 이를 기부하였다고 하면, 그 재물을 기부한 행위는 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물을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옛 관습 중에 여자가 길을 갈 때에는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장옷을 걸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고대의 예의범절이었습니다만, 이를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날의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예법인가 말씀드리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적절한 예법이었는지 모릅니다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선의 표준에는 공간과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이나 서양과 같은 제한도 없고, 천 년 전이든 천 년 후이든, 그런 구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간이라든가 시간이라는 제한이 없는 것이 신의 선입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유태교는 ‘여호와’ 신은 유태인에게만 축복을 내리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화를 내린다고 설파하는 자도 있습니다만, 이는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대에서도 이처럼 편협하게 해석하여,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는 기독교 신자뿐으로, 비신자에게 사랑은 없고 벌이 내려진다고 해석하는 자도 계 중에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설파하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인간의 선에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신은 무제한의 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美)입니다. 이 미라는 것은 완전무결한 미입니다. 인간의 최상의 미라는 것은 우리가 아닌 자들이 보면, 그 미 역시 아름답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미라는 것은 완전무결한 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를 보면, 누구나 이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꽃이 피면 인간은 그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서는 갖고 싶은 나머지 그 아름다움을 꺾어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강, 아름다운 산을 보고 인간은 그 아름다움에 대해 욕망을 일으키며, 이것이 노래가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합니다만, 하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움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아름다움 중에는 인간의 미를 사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모의 여인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때로 미를 사랑하는 잘못된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은 모든 미에 대해 그 미의 특징을 사모하고, 그리고 원만한 생활을 지속시키는 일을 즐깁니다. 신과 인간의 공통성이 완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진·선·미를 원칙으로 삼아 행하여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과 인간이 공통된 진·선·미 삼원칙을 기초로 하여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전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전개발의 요소는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신념(信念)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의심이라는 것이 있어, 서로 믿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신





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신념은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념을 배워 사회에 민중의 신념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신의 신념을 사회생활의 원칙으로 삼아 이를 선포해 가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가 이른바 심전개발이 되고, 심전개발에서 낙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봄에 농부가 감자의 싹을 취해 심고 나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많은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가 이미 싹을 취해버리고 난 뒤의 감자를 심어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싹은 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싹을 취한 뒤의 감자이므로 싹이 틔지 않습니다. 부모가 심은 감자에서는 싹이 나왔지만 아이들이 심은 감자에서는 싹이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며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겨 부모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이 심은 감자를 캐보면, 한 번 싹이 나온 뒤의 감자를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만, 신념이 없는 개인 혹은 사회는 싹이 없는 감자를 심은 것처럼 심전개발, 자력갱생(自力更生)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심전개발을 돕는 요소 두 번째는 희망(希望)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종교적·학리적(學理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 구미를 여행하였을 때에, 저는 런던의 박람회장에서 유리로 사방을 막아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깊이는 제 키의 두 배나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 잠수 작업을 실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수부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잠수복을 입고 다리에는 철로 만든 신발을 신고 마침내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기 위해 고무관을 코에 달고 그 관을 수면 밖으로 내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수중에 오래 들어가 있어도 지장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깥 공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기를 보낸다는 것을 희망에 비유해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종교가로서는 인간의 죄악을 설명함과 동시에,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가라도 대중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주면서 추진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치계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심전개발 요소의 세 번째는 사랑(愛)입니다.

기독교의 이른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편중된 사랑이 아니라, 신의 아래에 있는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사랑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싫어하는 폐해가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신의 사랑이라는 것은 원만무결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진정 행복한 생애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 인간은 절대 진선미인 신과 교류하여, 즉 완전한 신으로 영화(靈化)될 때에 비로소 완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에 따라 심전을 개발한 사람이 승리를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한다면, 현세의 인간은 물질적으로 비행기 등을 타고 공중을 제압하고 있으며, 또한 산에 커다란 터널을 뚫을 수도 있으며, 딱딱한 철을 자유롭게 당길 수 있는 화학적 힘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라든가 공기까지도 자유롭게 채취하여 사용하는 등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자연을 제압한 승리입니다만, 아직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 승리는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목하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하여 전쟁 중입니다만,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오래 지속될 것이므로, 그 승리를 점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칠 황색인종과 백색인종의 투쟁도, 어느 쪽이 승리할 지 지금으로서 예측은 가능하나, 저는 결국 서둘러 심전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컨대 심전을 먼저 개발하는 쪽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양에서 10여 년간 살았으므로, 서양인의 심리에 대해서도 다소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와 그들의 심리를 비교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양인의 심리는 대체로 개인적이며, 물질적 오락 내지는 권력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체로 방만합니다. 따라서 서양인은 항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 때문에 방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서양인에게서 제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양인은 사물을 깊이, 잘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인은 동양에 이전부터 있던 철학에 그들의 철학을 도입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가 동등하게 인정하듯이, 일본의 장래 발전은 동양에서 인종을 초월하여 위대한 정신을 갖고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도·중국·만주·일본처럼 동양에서의 모든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통일하여, 새로운 문명을 발휘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인종이 서로 만족할 종교운동을 진행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한층 깊은 이해와 협동을 기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는 10대 종교라고 합니다만, 이를 잘 이용하여 그간의 투쟁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교 중에서도 하나, 둘은 다소 설법 방식이 다른 종교도 있고, 또한 그 밖의 종교에도 신에 대한 신념이 깊지 않은 종교도 있습니다. 원시적으로 다신교(多神敎)를 설법하는 자도 있습니다만, 고상한 종교로 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계의 16억 인구가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서로 친밀해질까 하는 것을 연구함과 동시에, 종교도 동양 및 세계를 통해 “통일성을 가지는 신”으로 통합해 가는 것과, 또한 신이 이 세계의 과거 및 현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를 보아도, 결국은 신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선·미에서 그 표준을 찾아, 심전개발에 따라 확고불발(確固不拔)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자이며, 그런 인격자를 만들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드려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듣기 힘드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출전 : 朝鮮總督府中樞院 『心田開發に關する 講演集』, 1936년 2월 25일〉





## 2. 종교단체 연합사업

### 1) 전시하의 시국연설

〈윤치호, 개회사〉

현재 北支問題에 대한 시국이 얼마만치 위험성이 있으며 중차대한가는 제현(諸賢)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혹서(酷暑)임에도 다수히 출석하셨음으로 보아 시국 인식이 깊어 감을 窺知할 수 있습니다. 諸賢과 함께 인식하는 시국에 관하여 여섯 분의 연사가 강연하실 텐데 못조록 謹聽하여 주십시오.

#### (1) 이돈화, 동양평화의 근본책

천도교 중앙총리원 헌법사상무(玄法師常務) 이돈화(李敦化)

저 일청, 일로 양전역은 일본국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동양평화를 유지키 위하여 만주 광야에서 선혈을 흘렸음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이외다. 일본 제국의 동양평화에 대한 근본책은 금일에 새삼스러히 니러난 문제가 아니고 멀리 명치유신 이래 대방책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동양의 평화 수립에는 동문동족인 지나 민족을 남부계 함이 아니외다. 아등도 옛날에 그 문화를 형수함이 컸든 것입니다. 금일에 있어는 지나 정부 당국의 위정자를 그르다 함이외다. 민중의 지도자인 위정자를 슬퍼어함이외다.

금회의 복지사변은 동양 평화 행복의 창조이니 특히 동양의 중심지대인 조선 내에서는 이번 사변이 영원한 평화 행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과거의 전역을 돌아보건대 일청전쟁은 맹목 존대의 중국인에게 반성적 응징을 여하여 피등의 각성을 촉진한 효 다대합니다. 일로전쟁은 서양 대 동양의 세를 균형하게 하고 백인종 대 황인종의 지위를 평등히 한 점에서 제국의 동양보장적 책임과 역사적으로 중대합니다.

제국의 동양보장적 책임은 과거에뿐 중대할 뿐 외라 장래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백인의 호시탐탐한 세력과 가장 중국의 배후에 있는 적로의 신세력은 일의 동양 교란을 음모하고 있는 점에서 제국의 동양 평화 보장적 사명을 일층 중대하게 하였습니다.

지나는 세계적 대민족입니다. 지나의 안위는 즉 동양의 안위외다. 그런데 지나는 완성 국가가 아님으로 제일 동양에서 일본 제국의 세력을 제거한다면 지나는 구미인의 시장화할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나인은 이 광명정대한 사실을 이해치 못하고 완술 또는 우치하게도 제국의 동양 지도적 정의를 무시합니다. 이는 지나가 자멸을 자청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동양의 위기를 증대시키는 맹목적 행





위입니다. 고로 진정한 동양 평화는 제국의 정의적 사명인 동양 보장적 실력을 표현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행복이자 동양의 평화 행복입니다. 조선은 동양에서 중추지대임으로 아등은 조선인으로서 금일의 복지사변을 정확히 인식하고 내선일체의 대의를 발휘하여 동양의 영구적 복지를 창조하는 일본자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등은 총을 메고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나 정신적, 물질적 방면에 있어 국민 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 (2) 권상로, 시국각성의 필요성

불교전문학교 교수 권상로(權相老)

우리는 무얼하든지 먼저 자기의 각성을 요한다. 만일 <6> 각성을 정당히 안 한다면 결국 착오 오해로 말미암아 도저히 시대에 적응할 수 없을 뿐 외라 생존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등은 무한히 공간우는 시간적으로 혹종의 일점을 점령하고 있다. 그럼으로 공간적으로 자아의 입장을 동서남북, 시간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에 이르기까지 주도한 관찰이 있어야만 이것을 비로소 정당한 각성이라 한다. 말하면 1일 중의 주야, 1년 중의 사계 등은 언제나 동일한 순서, 동일한 궤도에 의하여 순환함과 같이 아등의 경과도 항상 과거를 되풀이하여 작일의 방식 그대로를 금일에, 거년의 양식 그대로를 금년에 명일도 금일과 같이 래년도 금년과 같이 함과 갖지마는 아등은 그날, 그 해의 경우 사정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일동일정, 일언일묵을 통하여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는 바이지 결코 과거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계절이 변하고 주야가 변하는 때에 있어서라. 다시 말하면 낮에는 낮에 대한 각성, 밤에는 밤에 대한 각성, 봄에는 봄, 여름에는 여름,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는 겨울, 때에 딸아 거기 적당한 각성을 요하며 때에 따라 준비와 경륜이 순조로 진행되는데 절효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낮을 밤으로, 겨울을 여름으로 아는 등의 착각이 있다면 언제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존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럼으로 아등은 금일의 시대에는 꼭 금일의 시대에 상응할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일은 비상시국으로 가장 위기일발에 직면하여 있는 가운데 다시 복지사변이 발발한 것이다. 그 동기우는 기점의 경우는 새삼스리 설명을 요치 않거니와 지금이야말로 대륙의 풍운은 첨미에 돌고 130도의 혹서하에 령□군이 대기하고 있는 데까지 상도하면 아등은 거국적으로 수충고용하는 □금할 수 없다. 이 시국에 있어 각성이 없다면 적기심과 응징책은 없을 것이다. 금일의 시국적 각성을 촉하기 위하여 과거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나 민족은 고래 괴악한 인습으로 항상 자비자대하는 버릇이 있다. 무릇 여하한 사람이던 자존자소라 하기 시려하거니와 5천년의 역사와 4억 7천만의 인구 1,100만 평방천의 면적을 가지고 자랑하는 지나는 과연 우대한 대국이 아님이 아니다. 고사에 준하여 은의 오복주의 구주가 다 락양으로 중심으로 하여 4만 2천 5백리 직경 5천리 밖에 아니 되는 그것으로 자이위천하해내중하라 하고 그 이외에는 다 양이용적이라 하여 인류도 인류라 하지 않고 국가도 국가시하지 않고 왔다. 현재의 30도를 볼지라도, 중앙 2, 3성을 제하고 각 성은 다 자기 등의 주창하는 양이용적의 고토라 한다. 그렇게 자존자대의 악습은 지나인의 전성적 정신림비가 되어 언제나 각성의 념이 없다. 과거에 있어는





쇄국 시대였음으로 지나는 자기의 지나, 일본은 자기의 일본이라 해도 무방했는지나 동아가 서로 교통하고 만국 상접하는 현대에 있어 아직 그 풍습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가 가장 심하다 하겠다. 환언하면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이 되어야 할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을 영원히 동양인의 수중으로부터 이탈시킬 수 없음을 각성할 것이다.

지나는 당연 동양 평화를 위하여 동양 유지를 위하여 일본 제국과 결탁치 않으면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시국을 양함 같음은 너무나 심한 지나의 착각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사료한다. 동양 평화를 영원히 유지할 맹주는 일본이나 지나이나 그 문제는 지나인자체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대답을 주저치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박수) 함에도 불구하고 손소 위기를 양함은 지나인 자체가 멸망을 초치할 뿐 아니라 결국 동양 평화를 파괴함이다. 동양 평화가 파괴된다면 진치보차의 관계에 있는 아 일본 제국도 안위가 좌우된다. 여사한 시국에 감하여 일본 제국은 당연 적개심을 발하여 응징책을 써서 피등의 각성을 촉하게 되는 것이다. 피등의 각성을 환기시키려면 아등은 먼저 거국일치로 시대를 각성치 않으면 아니 된다. 오직 무장을 하고 전지에 출정하는 군인만이 필요한 각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밭 가는 농부, 공장에서 노동하는 직공, 점포에서 물품을 파는 상공업자, 부역에서 밥 짓는 주부, 책보를 들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 로유남녀를 불문하고 동양인의 동양이 되게끔 스스로 각성하여 피등을 각성시키는 것이今日的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사진은 연설회 장인 종로청년회관)

### (3) 양주삼, 오인(吾人)이 취할 태도

여는 수일전 병상에 있었으나 금야에 시국 강연을 요구받아 비상시국인 만치 사퇴할 수도 없고 하여 출석한 것이다. 북중의 사변으로 이 같은 염천하에 황군은 불득기 출전하게 되어 로고하는 양 참으로 유감이다. 그런데 최근의 신문 보도에서 보면 문제는 일단락을 고한 듯한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도하는 예수교의 목사로서 정치라든지 시국에 대한 강연이라든지에 자격은 없다. 다만 금일에 있어 제국 신민으로서 취할 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약간 말하려 하는 바이다.

1. 절대 지지하는 태도 거국일치한 표어하에 금일에 처한 일본 신민은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당국의 방침대로 절대 대세를 각성하는 태도, 세계적 행복을 득하려면 평화를 확보함에 있다. 세계 평화의 대부분은 동양 평화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으로 동양 평화는 동양으로서 일반적으로 희망하고, 동양 평화는 일본이 맹주가 되어 범사를 지도함에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맹주권을 방해하면 일본 제국으로서 용사할 수 없음은 사실로서 일청전쟁 시에 서양인 모씨가 이등 수상에게 지나를 여하히 이기느냐고 문하였을 때 이등 수상은 일본은 4천만 인구 일심단결하고 지나는 4억만 인구 각자가 상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박수)

(중략)

3. 만족하고 근청할 것.

일전에 어떤 부인의 말이 옛날에 자기가 리화학교 재학 당시 일로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선생인 선교







사가 말하기를 일본이 승리하면 자기 등이 선내에서 선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만일 로국이 승리하면 자기 등의 사업을 철거하여 귀국치 않을 수 없으므로 학생 등은 일본군이 승하도록 기도하라 하여 기도한 일이 있다고. 그때야말로 위기일탈의 시기였음을 알겠다. 만일 그때 로서아가 승리하였다면 동양 인종은 멸망하고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나 천행히도 일본이 승리했던 것이다. 또한 만주국이 설립됨으로 인하여 치안이 유지되고 제국 신민이 만족하게 살 토지가 되어 얼마나 행복하냐. 일본은 세계 5대 강국의 한아이고 3대 해군국 중의 한아이다. 그러므로 근신자중하여 대국민의 체면을 계지하기에 노력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4) 이종린, 금일 우리의 임무

이제 풍운요기(風雲搖起) 하는 가운데 있는 만치 금야 시국에 대하여 약간 말하려 생각한다. 여사한 자리에 나오기는 금일이 처음이다. 최근 병으로 시달리어 충분한 말은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내가 병이 있다 하나 총을 잡고 전장에 있는 용사의 일을 생각하면 실로 사소한 일이며 주저할 때가 아니다. 아등이 이구동성으로 절규해 온 그 비상시국은 드디어 아등의 안전에서 복지풍운을 전개시킴에 이르렀다. 돌아보면 일청, 일로 량대전쟁의 역사를 장식한 일본 제국으로서 금회의 복지사변은 문제로서 감히 생각할 것도 없으나 연이나 여기에는 언어로써 표현할 수 없는 시국의 중대성이 복재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제국에서는 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치 않으면 장래에 <7> 여하한 사태를 야기시킬지도 모름으로 불득기 정의의 칼을 발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백면서생인 아등의 추단 우는 억측이 아니고 사변 당시 루루 성명한 바와 같이 3대 인식 즉,

1.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라.
2. 제국의 동양에 있어서의 지도적 지위를 인식하라.
3. 지나의 전모를 정확히 인식하라는 총독의 문고기 이를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하거니와 금회 복지사변은 불원하여 아등의 이상대로 해결되리라고 신한다. 하고나 하면 맹자왈 천시지리는 불여인화라고 칭하였다. 이에 다음 하여 손무자 시계편에 경지이오사라 하여 있다. 그 오사 내에 일은 가로데 도라고 했것니와 그 도는 군민상하가 생사존망을 공히 심리동일함으로 위험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도를 득한 자 기전필승한다 하였다. 금일 아등에게야말로 상하 내외, 호말도 외위하는 자 1인도 없다.
2. 오자(吳子) 왈 백성개시오국이 비린국칙전기승의라 하였다. 금일 아등에게는 과연 내선 거국일치하여 제국의 차방침을 깨끗까지 시라 안 할 자는 1인도 없을 것이다.
3. 노자(老子) 왈 진자 군자 불득기이용지라 하였다. 고로 오불취위 주이객불감 진행이퇴천시소위 불쟁지덕이라 하는 것이다. 사변 발생 이래 금일까지 아군의 은인자중하는 그 태도야말로 진하는 사를 주로 안 하는 군자의 전이다. 또 손자의 소위 국을 보지하는 선한 전술이다. 이상 3항목만으로써 복지 문제는 아등의 이상대로 해결될 것을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등의 호말도 경적의 관념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백전백승의 승산이 있을수록 아등의 임무는 가장 중대한 것이다.





오재(吳子) 왈 전승은 역수승난이라고 칭하였다. 전승할지라도 아등의 임무는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 금후 충후에 있는 아등의 임무는 도리어 출정 장사보다 복잡하고 중대함을 인식치 않으면 안 된다. 출정 장사의 임무는 중대하나 단순하다. 환언하면 진두에 임한 장사는 이사보국이외에 그 임무가 없으나 출정 군인으로 하여금 만사에 후고의 우가 없도록 그 가족을 안전 보장하고 부상자를 구료위안시켜 출정 장사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개선부대를 찬양하며 군수 공급의 민속 원활을 기도하며 내외 국론의 통일 병 긴밀 연락을 하며 류어 비어의 근절, 방호 경비 등을 비롯하여 국내 치안의 확보 기타 모든 것이 아등이 부담할 임무이다. (박수) 이 임무야말로 얼마나 중대하고 복잡한가는 명료한 사실이다. 고로 일언 진술할 것을 금차 복지사변은 만만적 호호적인 전통적 국민성화하려 하는 피등을 상대로 하느니 만치 아등도 거게 상당한 준비가 없으면 아니 된다. (박수) 만일 시변이 장구에 선하여 출정 장사가 피로할 시는 아등이 직접 총을 메고 나가 출정 군인과 교대하여 줄 만한 각오를 가져야 할 줄 생각한다.

#### (5) 안인식, 시국과 오인(吾人)의 각성

세계의 대세를 고찰하건대 구라파는 구라파인의 손에 의하여 통치되고 아미리가는 벌써 아미리가몬 로주의를 창하여 아미리가인의 손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양아세아는 당연 동양문로주의에 의하여 우리 동양인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다스리게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이론은 확실불동의 이론이라 할 것이다. 이 이론은 그렇다 하고 이 원대한 이상을 실제로 행하는 우에 있어서는 공고한 용기와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아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할 것인가. 인도는 일즉 멸하고 교지 그렇다. 아프리카스탄, 샴 등은 풍편 잔년 엄엄한 기식이다.

홀로 우리 일본은 건국의 역사가 임의 오래고 상에는 세계 무비의 국체를 봉재하고 하로는 충효의 결정에 의한 무사도의 정신을 수하여 환언하면 동양 특유의 정신문화를 기초로 하여서 서양의 물질문명을 수입하여 육일승천의 세로 외연히 아세아 전체의 장래 운명을 등에 지고 있는 것이다. 동양의 건설에 책임을 가짐에는 우리 일본 외에는 타에 구할 수 없다. 우리 일본 제국은 일즉이 이런 의미에서 동양 평화를 위하여 수다의 희생을 하였음은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일로전쟁도 이 때문이요 만주의 독립도 이 때문이다.

정의의 앞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일즉 국제연맹의 총반대를 받았을 때에도 단연 연맹을 탈퇴하기까지 소지를 관철한 것이다.

이 즉 신동양주의의 대정신하에 동지를 구하여 구라파인의 마수로부터 구출치 않으면 안 된다는 대결심에 기초한 것이다. 지나는 동문동종의 관계가 있고 동양의 옛 역사가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정말 동지가 되어 동심협력하여 나갈 것 같으면 일도 하기 쉬울 뿐 외라 당연 같은 행복을 받을 것이다. 동일한 경우에 있고 동일한 목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지나가 언제나 형제 口에 口하는 극단의 미련을 되풀이하여 협력치 않을 뿐 외라 도리어 대리상 실행상에 큰 방해를 하여 온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는 세계의 구적이요 인류의 맹적이다. 동양의 정신과는 아무래다 양립할 것으로 최근 서안사건 이래





장개석의 정권은 무능력을 폭로함과 공히 지나는 그 중독에 걸려 친선치 않으면 안 될 일본에 향하여 도리어 모일, 항일, 배일의 선동을 맘대로 한다. 이를 방임하여 두면 동양 건설의 신운동에 방해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익익 지나는 그 마수로부터 구출할 방법은 전연 무망할 것이다. 여기에는 단연 응징을 가하여 그 미몽을 각성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제 지나가 잘 깨달으면 동양의 행복일 것이다. 요컨대 이 전쟁의 확대 불확대는 오로지 지나인이 하기에 있거니와 더욱 여상의 이상을 실행하는 데는 이번 지나 문제 뿐 아니라 여하한 것이라도 이 대리상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결코 좌시치 못할 것이다.

오인의 각오는 여하히 할 것인가. 이때는 내선을 구분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에 말할 것은 주로 조선 민중의 취할 각오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내선융화는 일단락을 답과하여 이제는 벌써 내선일체의 경우에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각오로 여상한 동양 건설의 대정신을 이해하고 이것을 달성함에는 여하한 로고도 로잘 고라 안하고 참된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일이까지 각오치 않으면 앞뒤겠거니와 여사한 대이상은 지식이 보급 못된 금일에 있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므로 가장 적절한 예를 들어 일언하련다. 옛날부터 중류우풍파호월동심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동주자는 사활의 운명을 공히 하는 고로 평소 일남 일북 떨어졌든 자까지도 일치단결치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말함이다. 동일 경우에 있는 사정으로 호월일지라도 동심치 않을 수 없다. 하물며 내선일체가 된 우리에게랴.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징병의 의무를 행하기까지 이르지 못했으므로 흑혈을 휘하고 적혈을 류하는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성심성의 각각 자기의 업무에 면려하며 충후의 후원을 앗하면 아니된다.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전능력을 다하여 이 국난에 상당한 각오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 (6) 전필순, 태양은 창공에 높이 드날린다

기독신보사장 전필순(全弼淳)

나는 여섯 분 연사 중에 가장 마지막임으로 시국에 대한 말은 별로 드릴 것이 없으므로 태양의 위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태양의 위권이라면 로유남녀를 불문하고 다 아는 바와 같이 태양은 이 지평선에서 나와 이 우주를 유지하는 위권을 갖고 있다. 태양이 창공에 오르면 천지 광명을 보고 태양이 지평선하에 몰하면 우주는 암흑화 하는 것이다. 태양이 창공에 드날릴 때에는 삼라만상은 다 기뻐하고 은위함이 절무하게 된다. 태양이 광을 발휘하여 난서량한을 조절하고 춘하추동의 사계를 조화하는 것이다. 고로 태양은 아등이 서식하는 지구를 유지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생활을 도모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즉 태양이 우주를 지시하는 위권이다. 태양은 여사히 다방면에 선하여 역할을 다하고 있다. 태양은 암흑을 방축하고 광명을 유도하는 것이다. 조광을 일조하면 암흑의 상를 감초고 일시 광명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즉 태양이 전 우주를 조명하는 후덕을 갖인 소이다.

태양 광선을 받아 발아하는 초목을 보아라. 태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성장이 없다. 태양이 암흑을 방축하고 광명을 유도하여 생명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자연 도태 작용을 행하는 것이다. 즉 태양 광선이 생명을 성장시킴에는 이를 방해하는 것에 전부 도태를 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제반의 병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고로 일본 국기에는 태양이 드러있다. 이것은 여하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학자의 학설이라든지 또는 사가들의 설명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나의 독단적 설명이다. 태양이 자연계에 있어 우주 생명을 유지함에 유일한 위권을 가졌음과같이 인간 사회에 일본 제국이 우주적 위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인간 생활에 환희를 <8> 급여한다는 것이다. 또 인간 사회에 조화를 주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행복을 주려고 지적 개발에 있어서나 덕적 향상에 있어서나 암흑을 방축하고 광명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 생명을 성장시키려는 것이요 또 인류 문화의 진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여사한 역할을 함에는 아무래도 인류 진화상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사상 혹은 제도에 대한 도태 작용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하여 목숨을 구출하려 함에 거약생신을 도모함과 같이 도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 시에 대상물은 국가 혹은 민중 혹은 그것이 여하한 것일지라도 조금도 주저치 않는다.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질지라도 생명을 보존하고자 할진대 아무래도 제거함에 있다. 이것이 국내에서는 사법 우는 행정이 되고, 국외에 있는 사변 우는 문제 혹은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일본과 태양과를 상징적으로 본 실제 현상이다. 오인이 태양의 위권을 론하고 우는 그 역할을 설명하여 일본의 국기에 태양을 그린 것은 태양이 자연적으로 유일한 위권을 가졌음과 같이 일본이 인간 사회에서 유일한 위권을 보하고 인간 사회에 광명을 주며 진보를 촉진하며 도태 작용을 행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적 정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일지도 모르므로 구체적으로 론답하려 한다. 보라 그 태양을 그린 일본 국기가 어떤 국기보다도 제일 먼저 보이고 분명히 보이는 것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그린 것이 아니냐. 그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열국이 언명하는 바이다. 최근의 예를 인용하여 드러보면 백림대학 교수 수푸랑켄 박사가 멀니 경성에 왔을 때 일독 제후의 관계도 여사한 순서이다. 이 일례가 일본의 국기적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 태양에 아무 침범자도 없음과 같이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여사한 것이다. 지상에는 고가철, 평면철, 지하철, 모든 자동차, 해상의 시설 우는 공중적 시설 등의 『스파-트』의 동작이 잘 실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구미의 열국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인간 사회에 광명을 과거에 있어서 또는 지금도 주고 있다. 인간 사회에 광명을 주고 생명을 성장시킴에는 반듯이 이에 반한 그것들이 전부 도태를 당하게 된다고 임의 말하였거니와 일본이 임의 행하고 왔으며 지금도 행하며 있는 것이다. 고대의 역사는 성략하고 근세사에 있어 일청, 일로전쟁이 있었고 최근에 지하어는 세계대전 시의 연합군과 공동히 하여 일독전쟁이 있었다. 극최근에는 만주사변, 상해사변이 또 있었다. 다시 금일의 북지사변이 돌발하고 있거니와 청국, 로국, 독일(세계대전) 등의 국의 행위가 인류를 암흑으로 유도하여 태양을 국기에 그리고 있는 일본이 기등을 용납할 수 없음과 같이 만주사변, 상해사변, 금일의 북지문제가 전부 동양 평화를 파괴하고 인류의 행복을 찰탈하려 하는 데에 일본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음은 근위 내각의 성명에 의하여도 랑득될 것이다. 국제 정의를 보아 용인 안 된다. 하자가 전쟁을 조야할가. 동양 평화를 위하여 또는 인류 행복을 위하여는 일본은 찬성을 하면서 싸울 것이다. 이것은 일본으로서 정당방위이다. 광의로 선택하면 국제 정의를 위하여 또는 동양 평화를 위하여 인류 행복을 위하여 대아세아주의, 대동양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지 못하고 일병도 사치안코 분기하게 된 것이다. 이 책임은 중국에 있느냐 장개석에게 있느냐. 피등의 무모불당한 만용으로 말미암아 받는 일본의 □는 매겨할 수 없다. 이것들은 인간 사회를 위하여





거약생신지사 차에 지하면 이것을 정치가들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우는 군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거국일치하여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시키며 또한 금반의 사변에 있어 일본의 태도의 정당성 널리 알리우고 외교 군력 등으로써 실력 행사를 함과 동시에 국민은 이어나 붓, 입, 돈, 몸 등의 힘에 의하여 사변이 급속히 종결되게 하고 일본이 참 동양 평화 때문에 대아세아주의자 등의 실현을 위한 본의를 관철함과 동시에 중국의 인식 착오를 교정시키고 동아의 풍운을 본격적으로 해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시시로 알니우는 각 신문 호외는 오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지 않느냐. 120도 넘는 북지에서 동양평화국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맹전하는 황군을 동정하자.

〈출전 : 『戰時下の時局演說』, 『三千里』 제9권 제5호, 1937년 10월 1일〉

## 2) 종교단체연합집회 상황 보고

경중경고비(京鍾警高秘) 제4203호

1938년 4월 30일

경성종로경찰서장

경기도경찰부장 귀하

부내 각 경찰서장 귀하

집회감독보고(통보) 대(對) 4월 27일 본호

- 집회일시 : 4월 28일 오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 장소 : 경성부 종로 2정목 9 중앙기독교청년회 내(內)
- 주최자 : 경성 각 종교단체연합 주최
- 집회목적 :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고 강조주간 시국강연회
- 사회자 : 윤치호(尹致昊)
- 주요 집회자 : 정광조(鄭廣朝) 김우현(金禹鉉) 구자옥(具滋玉)
- 집회인원 : 남자 270명, 여자 30명, 계 300명
- 연제(演題)와 연사
  1. 장기비상시국과 장기비상결심 …… 천도교신파(新派) 이돈화(李敦化)
  2. 시국 재인식의 필요(경학원) …… 안인식(安寅植)
  3. 총동원의 정신(감리회) …… 박연서(朴淵緒)
  4. 보국(報國)정신(불교전문교강사) …… 박윤진(朴允進)
  5. 관념에서 실천으로(천도교구파) …… 이종린(李種麟)
- 개최상황

본 계획은 천도교 대종사장 이종린 등이 지난 4월 26일부터 실사 중인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 강





조주간 하나의 행사로서 계획한 것이다. 집회장 정면의 양쪽에는 ‘거국일치’, ‘자원절약 근로저축’ 이라고 크게 쓴 슬로건을 걸고 정면에는 히노마루 국기<sup>65)</sup>를 게양하여 삼엄한 설비 아래서 엄숙하게 개최되었다.

- 임석감독(臨監)경찰관 관직 · 성명  
경기도경부보 齊賀七郎, 경기도 순사 김의수(金義洙), 박응환(朴應煥), 이익용(李益用), 황유갑(黃裕甲), 박수봉(朴秀鳳), 二瓶謙鐵, 加瀬良司
- 경찰감독상황 : 별지(別紙)와 같음
- 강연요지 : 별지와 같음
- 청중의 감상 : 별지와 같음
- 개회사 : 윤치호

오늘 저녁 강연회는 장기비상시국에 직면하여 ‘총후’(銃後)에서<sup>66)</sup> 우리들은 총동원으로 총후보국을 완수하고 시국의 인식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으니,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돈화, 장기비상시국과 장기비상결심

천도교 신파(新派) 이돈화

총후보국이란 ‘북지사변(北支事變)<sup>67)</sup> 발발 이후 우리들이 성심성의로 황국을 위하여 일하고 실제로 행해야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총후보국이라고 한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비상시국에 직면한 우리들은 개인적인 입장을 돌아보지 않고 국가적으로 심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시국에서뿐만 아니라 동양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상시국이다. 지나라는 국가는 실로 내정(內情)을 보아도 외국에서의 야심적인 정세를 보아도 형편없는 나라이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중국을 구하는 일은 일본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일지사변 발발 후 지나(支那)<sup>68)</sup> 각 중요지는 전부 함락된 상황이므로 사변은 곧 바로 끝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연전연승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토는 광막할 뿐만 아니라 지나인의 성질은 대륙성인 관계로 이들을 타개하는 데에는 상당히 장기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협성을 지니고 있는 이웃 즉 소련이 있다. 영·미·불 각국은 군비확장에 주력하고 있고, 또한 중국을 동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관찰된다. 우리들은 일지사변을 세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세계적 관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 비상시국이 언제 끝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비상시국은 단기간에는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총후의 우리들은 어떠한 난국에 맞이하더라도 건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비상시

65) 일본 국기.

66) ‘전시 후방에서’.

67) 1937년 7월 시작된 중일전쟁.

68) 중국.





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일을 당하는 경우 마음이 누그러지는 결점이 있다. ‘일지사변’(日支事變)<sup>69)</sup>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장기시국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이러한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조석으로 식사할 때도, 담배를 피울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비상시라는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평소에는 국민이 있으므로 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비상시국에 있어서는 국가가 있으므로 국민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병이 없을 때는 신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부상을 입었을 때는 신체의 통증을 느낀다. 동양이 있고 일본이 있는 것인지 일본이 있고 동양이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 없으면 동양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충후에 있는 우리들은 각자 적합한 방법으로 남녀를 묻지 않고 절약·저축하여 충후보국을 염두에 두고 종이 한 장, 연료 한 묶음이라도 1억 국민이 절약하면 1억장이며 1억 국민이 1엔씩 절약하면 1억 엔이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우리 국민은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국가적인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우리들이 이 시험에서 낙제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장래 자손의 생활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험인 것이다.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마주친다고 하더라도 희생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국가적인 시험에서 낙제하는 일 없이 5년 혹은 10년 동안 시종일관 비상시국을 타개해야 한다.

(이상)

## (2) 안인식, 시국 재인식의 필요

경학원 간부 안인식

시국의 중대성에는 국민 모두가 철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각자의 생활문제에 영향을 준다. ‘일지사변’ 발생 후 20일 만에 본 회관에서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제국의 동양에서의 대사명 등의 내용에 관하여 강연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시국의 재인식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무적인 우리의 육해공군은 질풍迅雷(疾風迅雷)의 기세로 사변 후 2개월 만에 ‘북지나’를 점령하고, 4개월 만에 상해를 공격하였으며, 6개월 만에 남경을 함락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사업을 이룬 것은 물론 황군(皇軍)의 위력(威力)에 의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충후’에서 국민의 거국일치가 일대요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황군이 연전연승 탓에 낙관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고 또한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낙관적인 태도로 나오는 자가 있다면 실로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경공략(南京攻略) 후 1개월 만에 전쟁은 지금부터 라는 중대성명을 발표하고, 3월에 이르러 국민총동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춰 우리는 이번 천장절(天長節)<sup>70)</sup>을 기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충후보국 강조주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관적 태도로 나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시국의 재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에 중히

69) 중일전쟁.

70) 천황의 생일.





여겨 계속 반복함으로써 진실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시국인식에 대한 복습을 하고 실천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장기적이라는 것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장기간에 걸친 원인을 말하자면 중국의 현 상황은 마치 술 취한 자처럼 제외국인의 마취약에 마취되어 있어 배일교육과 광대한 면적, 다수의 인구 등과 상승작용을 하여, 대륙성을 가진 그들과의 관계는 당연히 장기간에 걸치게 된다. 장(蔣)의 남은 세력은 미구에 쉽지 않을 것이며, 예전 명나라 시대에 남경을 점령하였지만, 광대한 각지를 전전하다가 물러나 15년간 그 여 명을 이어간 것처럼 장 정권이 일개 지방 정권처럼 각지를 전전하면서 산간벽지를 이용하여 혹은 외국인의 후원 등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살아남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또한 점령지역의 치안, 철도회복, 패잔병의 정리, 중국인의 독특한 게릴라 전술 및 중국을 동정한다는 미명 아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소련, 영국의 엄청난 자금, 미국의 동양진출, 프랑스도 그러하며 이들 어부지리를 얻고자 하는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기간에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문제해결이 급선무가 된다. 즉 자원절약 근로저축이 급선무가 된다. 총후 국민이 오래도록 참아내며 자원절약과 근로저축을 실시한다면 황군의 정신과 어울려 어떠한 장기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려할 것이 없다. 개인의 신체 일부에 고장이 났을 때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국가에 대한 영향은 우리들의 신체 일부에 고장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황군의 일선에 선 것과 같은 자세로 총후에서 장기의 경제전에서 분전하여 동양평화의 대사명에 매진해야 한다.

(이상)

### (3) 박연서, 총동원의 정신

감리와 목사 박연서

‘지나사변’ 이후 제국의 권위는 전세계에 선양하였다. 이는 필경 일본제국신민이 총동원하여 제1선에 출동하여 장수와 병졸 모두가 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도 던져버리며 용감하게 선전한 덕분이다. 생각건대 이번 전쟁은 단순히 일본과 중국과의 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본제국이 맹주가 되어 동양의 평화를 확립시켜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의 사변은 성전(聖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작년 7월 사변이 발발한 이래 황군 장사(將士)의 용감한 선전에 힘입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북지나의 5성(省)은 평정되고 중남 중국의 일부를 점령하여 북지나 5성의 면적은 7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고 중남 중국에서도 약 8만 8천 평방킬로미터로 합계는 우리 일본전국의 지역을 훨씬 초과한다. 이처럼 점령한 지역에 대하여 우리 정부당국이 항상 자주 성명한 것과 같이 영토적 야심은 추호도 없다. 이들 점령 지역에는 각각 우리 정부의 지도·원조에 따라 몽고 자치정부, 북지나 임시정부와 중지나 신정부의 3개의 정권이 탄생하였으며, 제국의 보호 아래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총후’의 전국민은 거국일치하여 국민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총후’의 용사가 되어 견인지구(堅引持久)한 정신으로 열렬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일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정신의 해이해







지고, 승전으로 인한 교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시국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국민정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미 국민정신을 강조하고 국민정신총동원주간을 실시하였지만 이번에 다시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 강조주간’을 실시하게 된 것은 단순한 교화선전운동에 그치지 않고 총동원정신을 강조하여 일상생활에 매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동양평화를 확립할 때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례를 들자면 ‘프랑스’가 패전국인 독일의 흥륭(興隆)을 보면서 전율하고 그 위협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프랑스가 승리를 얻고 독일이 패망하였지만 오히려 프랑스는 독일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국민전체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국민이 교만하여 상하 불일치를 초래함으로써 정신총동원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했어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치 결속하여 모든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패전 후 불과 20년이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국력을 회복하여 유럽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크게 분발하여 총동원의 정신을 다시금 검토하고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시국의 항구적으로 중대화하고 있는 이때에 일상생활에서 절약할 것을 절약하고, 이용할 것을 이용하고, 애호할 것을 애호해야 한다.

첫째로 절약해야 할 것으로 특히 군수품인 연료, 목면, 철, 종이 등을 우선 절약해야 한다. 다음으로 폐품 이용에서 우리는 일상의 소비품을 버릴 때는 다시금 국가적·보국적 견지에서 이용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원애호에서 우리는 모든 자원을 보호하고 생산을 조장해야 한다. 영국은 1914년 전쟁에 참가하여 다음 해인 1915년에는 의회에서 국가방호법안을 제안하여 찬성을 얻은 후 대전에서 일어난 폭풍 같은 공황을 충분히 극복했다. 국민경제생활을 극단으로 제한한 결과 평상시에 자유인 생활을 한 그들에게는 다소의 불안은 있었지만 대전이 끝난 4년째인 1922년에는 그 법률을 폐지하기까지에 이른다. 우리는 이 정신을 강조하여 거국일치하여 간난신고(艱難辛苦)를 타개·극복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는 정의와 희망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정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그들 출정 군인의 유족에게는 뒤돌아 볼 환안이 없도록 하여 보국의 정신에 따라 일상생활에 임하여 제국신민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이다.

#### (4) 박윤진, 보국정신(報國精神)

박윤진(불교 측)

오늘은 총후보국 강조주간 제3일째로 보국정신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 7월 북지나사변 발발 이래 동아시아는 일대 위험한 국면을 맞이하여 사변은 점차 장기 전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총후의 국민으로서 보국정신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국민이든 보국정신은 모두가 품고 있는 것으로 즉 보국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고찰





할 때 (다음과 같다.)

(1) 기원전 490년대경 그리스 대 페르시아 전쟁 당시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가 전승한 것을 그리스 병사 아무개가 자국에 보고하기 위하여 마라톤으로 아테네까지 26마일을 단숨에 질주하여 보고한 후 바로 사망하였는데 이것도 보국정신이 강하였기 때문으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세계올림픽대회의 마라톤 등은 즉 보국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서기 1854년경 러시아 대 터키 전쟁 당시 영·불은 터키를 응원하였는데 당시 영국 여자 나이팅게일은 여자 30명을 인솔하여 전장에 나아가 부상병의 간호에 종사하였고 그 후 1864년경 이를 기초로 하여 만국적십자동맹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것도 여자의 보국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3)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측의 이탈리아는 대단히 사상자가 다수(전사 50만, 전상 50만) 발생하여 이탈리아는 점점 위국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소년병을 징병한 일이 있는데 당시 이탈리아의 노인 단눈치오는 당시 65세의 나이로 출정을 희망하여 제1선에 출정하여 왼쪽 눈을 실명하면서 큰 무훈을 세웠다. 이것도 보국정신에서 용감하게 출정한 결과이다. 나는 수개월 전 북중국에서 황군을 실지 위문한 바 있는데 당시는 엄동설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은 하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용기왕성하게 전투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것도 일사보국의 정신이다. 우리들 총후국민은 거국일치하여 보국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 (5) 이종린, 관념에서 실천으로

천도교구과 대종사장 천도교구과 대표 이종린

전사(戰事)의 진전은 예측하기 힘들며 이미 장기전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더욱더 사변에 대한 대책으로써 관념에서 실천으로 이행할 각오를 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중순 이 자리에서 사변 발발에 대한 강연회를 했는데 당시의 형세로서는 다시 같은 장소에서 시국강연을 해야 하는 장기전을 상상하지 못 했는데, 이번 다시금 황군의 성전(聖戰)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전의 원인 중 중요한 것으로서

1. 점령지역의 광대함 2. 상해봉쇄선의 광범위함 3. 공산당의 완강한 지원 4. 배일사상의 완고함
5. 만주사변과의 질적 차이 6. 적병력의 실력 과신 7. 제3국과의 관계

등 관계가 있지만, 모두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변 이래 우리들은 총후의 국민으로서 관념적 후원에 그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장기전에 돌입한 앞으로는 관념적인 것에서 실천적 자세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옛날부터 한 사람의 실천은 만인의 관념보다도 강대하다고 했다. 전쟁의 승패는 군의 강약에 있으며 군의 강약은 총후 국민의 후원, 보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유약한 약졸(弱卒)도 총후의 보국적 열의에 의해 강병(強兵)이 되고, 보국의 열의가 부족하면 검을 내던지는 약졸이 된다. 보라 하늘과 바다를 진동하는 군함, 비행기, 대포 등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들 총후 국민인 농민의 호미, 상인의 저울, 우리 종교의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총후의 신민이라면 시종일관 실천적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실천행위의 순서로서 우선 무용물을 이용하고 근검저축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옛 말에 고대광실(高大廣室)이 불타더라도 그 타고 남은 못을 주워 모아 그 집을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근명성이 있다고 하는 조선민중만도 2천 3백 만을 헤아리는데, 각인 1인 1일에 폐지 1매를씩을 절약하면 1주간 16여 만에 이르고 각 1인이 매일 성냥개비 1개를 절약하면 1년간 2백 6십억 개를 절약할 수 있다. 그 금액은 3백여만에 이르고 숫자로 폐물이용 · 근검저축의 총계를 표시하면 거대한 액수가 된다. 전 일본을 통하여 이러한 절약근검을 실시하면 어떠한 장기전이라고 하더라도 여유 있게 극복할 수 있다. 일만중부(日滿中部)로 자랑하는 우리 반도의 위치는 대기선의 중요 심장기계에 상당하며 만일 그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하면 전체가 침몰하기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지리적 · 역사적 관계로 살펴보면 내지동포와 생사를 함께 해야 할 운명에 있고, 내선일체(內鮮一體), 선만일여(鮮滿一如)의 기치 아래 실천적 보국을 해야 한다.

(이상)

#### 1, 경찰감독(단속) 상황

연사들은 모두가 장기전에 걸친 비상시국을 인식하고 국가주의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자로 생각되지만, 부주의하여 단편적 탈선 언행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워 개최 전에 책임자로 하여금 강연 원고를 제출받아 일단 주의를 주었다.

#### 1, 청중의 감상

회중은 정숙한 가운데 경청하면서 종래의 야유적인 태도를 버리고 각 연사에게 시종 박수를 보냄으로써 찬동의 뜻을 표시하고 현재의 비상시 장기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강연이라고 말하고 있다.

#### 1, 기타 참고사항

‘국민정신총동원 총후보국 강조주간’에 대하여는 관민이 일치하여 그 행사실시에 매진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사상단체 및 주의자간에는 특별한 행사 없이 항등 개의치 않고 방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동정에 주의하고 있지만 (종교경찰서) 관내 천도교구파 이종린은 수일 동안 해당 주간행사의 하나로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천도교 신파 이외에 기독교, 불교, 유교 등 경성에 있는 종교단체간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각종교 단체연합시국강연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강연관계자 윤치호를 비롯하여 모두가 조선 측의 대표적 유지로서 전에 쟁쟁한 민족운동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도 있고 일반 민중에게 두터운 신망 얻은 자로서 이들 인물들의 전향적 시국강연은 민중지도상 타당한 지침을 주는 결과가 되었고 도움이 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 \* \* \* \*

#### 〈윤치호, 폐회사〉

여러분께서는 시종 해이함이 없이 경청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동양평화의 확립을 바라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총후보국의 인식을 강화하여 이렇게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 우



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의 강연은 몇 명의 시국강연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식에 돌아갈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전 반도인(半島人)의 희망하는 바이다. 마지막 이종린(李鍾麟) 씨의 말씀은 특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므로 오늘 저녁 강연은 어느 것이나 헛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상)

〈출전 : 「京種警高秘 제4203호 集會取締狀況報告(通報)」,  
『思想二 關スル 情報(9)』, 1938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찾아보기

### 【ㄱ】

- 가정보국운동 443  
 가토(加藤直士) 128  
 가토(加藤喜造) 84  
 감리교총회(the General Methodist Conference) 262  
 갑신정변 635  
 강대련(姜大蓮) 320, 321, 322, 323  
 江草鎮憲 211  
 강필성 158  
 개일 130, 131  
 겐모치(劍特生) 79, 80  
 겐소(Genso) 238  
 경방단 179  
 경성교구연맹 303, 304, 305, 307, 309, 310  
 경성기독교청년회 196  
 계연집(桂淵集) 546  
 고시진전(古市進殿) 169  
 高原 憲 211  
 고지(郷司槌爾) 286  
 공민왕 701  
 공자 611, 612, 618, 665, 673, 697, 698, 700, 701, 702  
 광법경 사건 323  
 광주영(郭周永) 99  
 광진근(牧野道雄) 183  
 관광산업위원회 260  
 광전중옥(廣田鍾郁) 371, 373, 374, 376, 386, 401, 402, 415, 417, 419, 428  
 구미명선(龜尾明宣) 562, 581  
 구자옥 717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61, 185, 267, 270, 443, 454, 479, 535, 536, 537, 539, 541, 549, 552, 561, 563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544, 553  
 국민징용원호회 219  
 국민총력조선연맹 180, 192, 193, 194, 215, 216, 277, 307, 309, 315, 395, 403, 409, 577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303, 307, 311  
 국민총력장로회연맹 183  
 국민총력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186, 193  
 국민총력천도교연맹 562, 572, 581  
 국민총력추진대 179  
 국제문화진흥회(Kokusai Bunka Shinkokai) 260  
 국제친화회(國際親和會) 60  
 군종리원연맹(郡宗理院聯盟) 544  
 궁전장(宮田藏) 562, 581  
 권근 689  
 권동진(權東鎭) 56  
 권상로 338, 711  
 그린 115, 117  
 근초고왕 701  
 金島萬植 211  
 金村成烈 211  
 金海靈淳 211  
 금전실(金田實) 562  
 금환강사(金丸剛士) 395  
 기독교동신회 156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 184

기타무라 류키치(北村留吉) 285  
 길보륜(吉寶倫) 156  
 길선주(吉善宙) 89, 97  
 길윤기(吉允箕) 523, 524, 527, 528, 539  
 김광섭(金光永燮) 211  
 김교현 689  
 김구하(金九河) 322, 323  
 김길창(Kil Chang Kim) 256  
 김대우 159  
 김덕연(金德淵) 566  
 김동수(金東洙) 546  
 김득모(金得模) 562  
 김린(金麟) 130, 131  
 김명희(金明熿) 523, 524, 539  
 김병제(金秉濟, 金岡秉濟) 515, 523, 524, 527,  
 528, 539, 542, 546, 557, 559, 567, 581  
 김병준(金秉濬) 546  
 김보운(金寶雲) 322  
 김산후 303  
 김삼도 350  
 김석원 303  
 김세환(金世煥) 57  
 김숙(金淑) 562  
 김시권 160  
 김옥균 695  
 김우현(金禹鉉) 161, 163, 717  
 김운량 683  
 김유신(金庾信) 325  
 김윤식(金允植) 57  
 김응순(金應珣) 168, 195  
 김의수 718  
 김이소(金履素) 53  
 김장호(金庄鎬) 155, 157  
 김중우(金鍾宇) 167  
 김중현(金宗炫) 543, 546, 556, 557

김진수(金城珍珠) 217  
 김진팔(金鎭八) 546, 562  
 김태흡 326, 627  
 김활란 160

【ㄴ】

나가카와 겐조(永川源藏) 173  
 나일봉(羅一鳳) 99  
 나철 689  
 나카라이 기요시(半井 清) 51  
 나폴레옹 126  
 남이(南怡) 683  
 남종삼(南鍾三) 53  
 노구교(蘆溝橋)사건 312, 347, 435  
 노자 713  
 노현용(盧憲容) 57  
 노회상치위원회(老會常置委員會) 217  
 니니기노 미코토 674  
 니시우치 덴코(西内天行) 101  
 니시하라(西原) 429  
 니와 세이지로(丹羽清次郎) 60, 130, 131, 161, 196  
 니이타(新田義正) 126  
 니치렌(日蓮) 604

【ㄷ】

다무라(田村直臣) 84  
 다운스(Downs) 246  
 다카세(高瀨經德) 85  
 다카야마(貴山幸次郎) 82  
 다카하시(高橋直巖) 89  
 단군(檀君) 678, 685, 686  
 단종 688  
 달마(達摩) 408  
 대림준모(大林俊模) 562, 567, 568, 581  
 大山慶云 211

대신순홍(大山淳弘) 395  
 대원덕중(大原德重) 562  
 대정익찬운동 480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481, 508  
 덕산종식(德山種植) 562  
 덕전실(德田實) 562  
 덕천인과(德川仁果) 193, 194  
 도미나가(富永德磨) 90  
 도미타 미치루(富田) 286  
 도이(土井庸太郎) 84  
 도즈(J. L. Dodds) 230, 231, 236, 240, 264  
 동방삭 615

**【ㄹ】**

라이지(坂木雷次) 170  
 래드(George T. Ladd) 80, 81  
 레버 236, 240, 250, 251, 264  
 로스 스티븐슨 박사(J. Ross Stevenson) 236  
 로저스(Rogers) 228  
 로즈(H.A. Rodes) 223, 233, 243, 245, 249, 253  
 루즈벨트 485, 498, 499, 501  
 리건영 168  
 리영태(李榮泰) 168  
 리차드 93

**【ㄴ】**

마기상(馬驥賞) 562  
 마우리(E. M. Mowry) 234, 235  
 마츠모토(松本雅太郎) 94  
 마츠이(松井) 124  
 마펫(Moffett) 231  
 만보산사건 635  
 맥그리거(R. G. McGregor) 251  
 맥아피 224, 252  
 맥카트니(Macartney) 246

맥컨키(McConkey) 246  
 맥케이(Mackay) 246  
 메클레이 155  
 모리(森重作) 131  
 모토다 나가오(元田永夫) 198  
 모토다 나가자네 599  
 모트(John R. Mott) 80, 132  
 몽강연합위원회 448  
 무나카타(宗像鴨四郎) 94, 97  
 무라기시(村岸清彦) 196  
 무라카미(村上唯吉) 95, 147  
 茂元明德 211  
 문성전 687  
 문천상(文天祥) 151, 152  
 미나미 지로(南次郎) 183, 188, 330, 395, 659  
 미노베(美濃部) 60  
 미야가와(宮川經輝) 109, 111  
 미이파(美以派) 95  
 미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161  
 민석현(閔奭鉉) 562, 582  
 밀러(Miller) 253

**【ㄷ】**

바돌리오 496  
 바울 136, 137  
 박대영 303  
 박병래 303  
 박석홍(朴錫洪) 557, 561  
 박성산(朴聖山) 157  
 박수봉 718  
 박연서 717, 720  
 박영효(朴泳孝) 57  
 박완(朴浣) 474  
 박용완(朴用玩) 542  
 박윤진 364, 717, 721

- 박응환 718  
 박인호(朴寅浩) 57  
 박희도(朴熙道) 57  
 반정청 322  
 방응모 162  
 방한암 693, 694  
 방효유(方孝孺) 151, 152  
 백관수 162  
 백문보 687  
 백산일웅(白山一熊) 562, 566, 581  
 백중빈(白重彬) 439, 523, 524, 539, 541  
 백천풍조(白川豊造) 567  
 白川學信 211  
 베르뇌 54  
 베어드 97  
 보어 143  
 보제(菩提) 408  
 복산근섭(木山根燮) 562  
 본뢰차 168  
 북평광안문불의타사건 652  
 불교옹호회(佛敎擁護會) 324  
 브라우닝 604  
 브라이언 113  
 브루스 헌트(Bruce Hunt) 221  
 블레어 221, 236, 249  
 비스마르크 102  
 B. W. 빌링스(Bliss W. Billings) 79
- 【스】**  
 사마광 612  
 사메지마 모리타카(鮫島盛隆) 162  
 사찰친화회(寺刹親和會) 430  
 사카모토 라이지(坂木雷次) 170, 172, 215  
 사쿠라이(櫻井乾一郎) 196  
 사토(佐藤繁彦) 147
- 산천중원(山川重遠) 428  
 상룽기(上瀧基) 169  
 상해사변 716  
 서안사건 714  
 서우회(西友會) 82  
 서원정자(瑞原貞子) 562  
 선교지부 교육위원회(The station Educational Committee) 239  
 신우순 99  
 설경현 699  
 설보덕 167  
 설총 701  
 성락철 169  
 성종 688  
 세종 688  
 세토 미치카즈(瀬戸道一) 285  
 소강절(邵康節) 698  
 소수림왕 701  
 소크라테스의 독배 604  
 손광화 535, 540, 553  
 손병희(孫秉熙) 56, 57  
 손재기(孫在基) 557, 561  
 손탁(Sontag, 孫擇) 80  
 솔트(T.S. Soltau) 228, 235, 236, 237, 238, 240, 252  
 송본봉행(松本朋幸) 562, 568  
 松本聖柱 211  
 송본정자(松本政子) 562  
 송본학자(松本鶴子) 562  
 송상현 683  
 송운(松雲) 324  
 송원순도(松園淳道) 395  
 송진옥(宋鎭玉) 322  
 송진우(宋鎭禹) 56  
 송철원(宋哲元) 475, 635  
 송태용(宋台用) 157



쇼펜하우어 364  
수병사건 658  
수원사건 90, 152  
수푸랑켄 716  
숙종 689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壽南) 185, 190  
스코트(Scott) 238  
스크랜튼 81, 155  
스티븐슨 239, 246  
스피노자 102  
스피어 65, 66  
시게무라(茂村健) 196  
시드니 L. 굴릭(Sidney L. Gulick) 93  
C. H. 쉐릴(Charles H. Sherrill) 65, 66  
신남소백(申南素伯) 581  
신란(親鸞) 604  
신립 683  
신민회(新民會) 448  
신수(神秀) 409  
신승우(辛承祐) 168  
신용구(申鏞九) 523, 524, 526, 529, 531, 532, 534, 535, 536, 539, 541, 546  
신흥식(申洪植) 57  
신흥우 277  
싯다르타 364

**【ㅇ】**

아난(阿難) 408, 619, 624, 632  
아리스토텔레스 293  
아마야(天谷熊太) 95, 98  
아취볼트 맥밀란(ARCHIBALD M McMILLIAN) 271  
아키모토 시게오(秋元茂雄) 156  
아펜젤러 155  
아편전쟁 634  
안상덕(安商惠) 562

안세환(安世桓) 57  
안순환(安淳煥) 131  
안유 701  
안인식 714, 717, 719  
안자(顔子) 618  
安田熙哲 211  
安川明浩 211  
안향 687  
알렌 155  
암곡이랑(岩谷二郎) 303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96, 180, 181  
애보트(Abbot) 228  
애육회(恩賜財團愛育會) 181  
야마구치(山口重太郎) 196  
야마다(山田兵助) 82  
야마카와 주켄 376  
양두환(梁斗煥) 562  
양재기(梁在璣) 157  
양주삼(梁柱三) 156, 279, 712  
양홍지(梁鴻志) 448  
어드만(Erdman) 245  
언더우드(H·H·アンダーウット) 89, 130, 155, 163, 228, 237, 249, 250, 252, 255  
에드워드 아담스(Edward Adams) 229  
에몬스(Emmons) 246  
에비나(海老名) 95, 96, 118  
에비사와 아키라(海老澤亮) 163  
A. F. 암스트롱 92  
F. H. 스미스(Frank H. Smith) 65  
여명회(黎明會) 91  
염원시삼랑(鹽原時三郎) 167  
오궁선 164, 283  
오기선(吳基善) 57  
오문환(松浦文雄) 183, 284  
오벽(吳璧) 156

- 오상준(吳尙俊) 557, 562, 581  
 오세창(吳世昌) 56  
 오세호(吳世皐) 168  
 오창희(吳昌熙) 211  
 오츠키(大塚素) 127  
 오키다(岡田榮) 106  
 오키히라(大河平) 129  
 오타니(大谷尊寶) 83  
 오혁 689  
 오화영(吳華英) 57  
 와타세 쓰네키치(渡瀬常吉) 95, 96, 97, 98, 106,  
 107, 119, 124, 130, 131  
 요코가와 쇼쥬(横川省三) 198  
 용치한(漕治漢) 635  
 우루가 마사미(宇留賀政實) 196  
 우봉룡(禹鳳龍) 99  
 우사미(宇佐美) 130  
 우에다(上田義雄) 84  
 우에다(上田龍雄) 214  
 우좌언태랑(宇佐彦太郎) 322  
 워너메이커 93  
 워터 웰케이 116  
 워터루전쟁 126  
 원곡(元穀) 622  
 원광(圓光) 325  
 원세개 635  
 원효 669  
 윌리엄 I. 하벤(Wm. I. Haven) 93  
 웨벨 495  
 웰버른 130  
 웰스 130  
 웰치(Herbert Welch) 67, 263  
 위일선(魏一善) 156  
 윌리엄 부스 169  
 윌리엄 블레어(William Blair) 221  
 율슨 56, 113, 171  
 유근(柳瑾) 689  
 유리명왕 677  
 유병준(劉秉俊) 567  
 유성준(俞星濬) 93  
 유일선(柳一宣) 98, 107, 119, 155  
 유전 176  
 유정식(俞廷植) 168  
 유진구 688  
 유형기 165  
 육수부(陸秀夫) 151, 152  
 윤용구(尹容求) 57  
 윤치소 165  
 윤치오(允致伍) 121  
 윤치호(尹致昊) 93, 94, 165, 288, 694, 710, 717  
 의상 669  
 의암성사(義菴聖師) 451  
 이갑성 57  
 이강환(李康寬) 52  
 이군오(李君五) 546  
 이근배(李根培) 546  
 이근섭(李根燮) 539, 543, 546, 556, 559  
 이기태(李基台) 211  
 이나바(稻葉好正) 128  
 이노우에(井上毅) 198  
 이노우에(井上良民) 88, 126, 128  
 이단(李團) 543, 546, 556, 557  
 이돈화(李敦化) 435, 534, 546, 557, 558, 710, 718  
 이두용(李斗鎔) 562  
 이만집(李萬集) 158  
 이문규(李文圭) 286  
 이문주(李文主) 156, 166, 169  
 이승길(李承吉) 287  
 이승훈(李昇薰) 57  
 이신달(李身達) 53, 54

이연숙(李演鶴) 557  
 이예(李芮) 688  
 이완용(李完用) 94  
 이우영(李宇英) 543, 546, 557  
 이우형 688  
 이원궁(李源兢) 130  
 이은덕(李殷德) 98  
 이익용 718  
 이인범(李寅範) 157  
 이인숙(李仁淑) 542, 543, 545, 546, 547, 550, 551, 556, 557  
 이인환(李寅煥) 57  
 이임보 630  
 이종린(李鍾麟, 瑞原鐘麟) 470, 557, 559, 713, 717, 722, 724  
 이종만 240  
 이종식(李宗植) 557  
 이종태(李鍾泰) 323  
 이창건(伊倉健) 168  
 이침 687  
 이춘섭 240  
 이태왕(李太王) 67, 139, 155, 688  
 이해승 688  
 이해환(李惠寔) 52  
 이호빈(李浩彬) 157  
 이훈성 322  
 이회광(李晦光) 317, 320, 321, 322  
 일본기독교청년회(日本基督青年會) 81  
 일본기독교연맹 288  
 일소중립조약 307  
 일진회(一進會) 144  
 임경업 683  
 임문호(林文虎) 523, 524, 539, 562  
 임시정부주비위원회(臨時政府籌備委員會) 448  
 임오군란 635

임원길(林原吉) 367, 408  
 임해봉(任海峯) 323

【ㄹ】

자강회(自強會) 82  
 장 자크 루소 117  
 장개석(蔣介石) 185, 189, 310, 454, 475, 476, 495, 498, 635, 636, 648, 657, 658  
 장경일(張敬一) 53  
 장기형(長田基衡) 211  
 장로회총회연맹 182, 183, 185, 186, 187, 188, 189, 190  
 장면 303  
 장산리(長山理)사건 284, 285, 287  
 장자 698  
 장작림 635  
 장학량(張學良) 475  
 전도실연맹(傳道室聯盟) 544  
 전선기독교연합회(全鮮基督教聯合會) 160  
 전시보국회(戰時報國會) 213, 521  
 전의찬(全義贊) 523, 524, 539, 542, 546, 556, 557  
 전재풍(全在豐) 168  
 전필순 715  
 정광조(鄭廣朝) 546, 557, 717  
 정남규 303  
 정명도 698  
 정목일랑(正木一郎) 322, 323  
 정배걸 701  
 정봉시 665, 700  
 정약용(丁若鏞) 52  
 정용증(鄭用增) 557, 562  
 정인과 703  
 정중 688  
 정춘수(禾谷春洙) 210, 211, 212, 266, 289  
 정환석(鄭煥奭) 566

정훈모 688  
 제갈량 348  
 제임스 로저스(James B. Rogers) 230  
 제임스 후퍼 256  
 젠소 242  
 조기간(趙基堧) 457, 523, 524, 539, 542, 546, 556  
 조선기독교연합회 162, 271  
 조선불교보국대 421, 422, 425  
 조선불교부흥회(朝鮮佛教復興會) 323  
 조선불교임제종연합회(朝鮮佛教臨濟宗聯合會)  
 323  
 조선불교협회 382  
 조선선교부 243, 244, 254, 274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연맹 190  
 조종국 303  
 조종오(趙鍾潁) 546  
 존 메케이 271  
 존스 81  
 종교단체법률위원회(Board of Law Governing  
 Religious Bodies) 259  
 종무원 317  
 종무타합회 380, 381  
 좌등신오랑(佐藤新五郎) 169  
 죠오지 윈 여사(Mrs. George H. Winn) 254  
 주공 700  
 주자(朱子) 324  
 중산가백(中山家伯) 562  
 중앙기독교청년회 55  
 중앙상치위원회 192  
 중앙총회 427, 428, 429  
 중추원(中樞院) 69, 588  
 진덕여왕 701  
 진시황 615, 618

【\*】

차상찬(車相瓚) 562  
 찰스 레버(Charles T. Leber) 230  
 찰스 어드만 256  
 창무주장(倉茂周藏) 199  
 천림명도(川林明道) 581  
 채필근(蔡弼近) 287, 290  
 천곡정(天谷正) 557, 558, 561, 581  
 천본석홍(天本錫洪) 561, 568, 582  
 천상광자(川上廣子) 562  
 천상광조(川上廣朝) 562, 568, 578, 579, 580, 581  
 천손재기(天孫在基) 581  
 천안의명(天安義明) 562, 582  
 천전우영(天田宇英) 562, 581  
 천주교경성교구연맹 303, 306  
 청년단 총력추진부 179  
 청산양신(靑山陽信) 562  
 청일전쟁 65, 696  
 청허(淸虛) 324  
 최남선(崔南善) 56, 667  
 최단봉(崔丹鳳) 546, 562  
 최린(崔麟) 56, 57, 450  
 최석련(崔碩連) 534  
 최시형(崔時亨) 58  
 최안국(崔安國) 502, 542, 546, 556, 557  
 최영 683  
 최인식(崔蘭植) 562  
 최제우(崔濟愚) 58  
 최준모(崔俊模) 557  
 최충 701  
 최치원 672  
 최태용(崔泰鎔) 158  
 추축동맹(樞軸同盟) 477  
 추항(籌項) 325  
 충렬왕 701

충선왕 687  
츠나시마(綱嶋一山) 123  
츠보카와(坪川寅次郎) 95

【ㄱ】

카사야(笠谷保太郎) 196  
코엔(R. C. Coen) 247, 249  
쿠라시게 슈조(倉茂周藏) 185  
쿠르스(來栖) 498  
쿠퍼(具世實) 157  
쿤스(E.W. Koons) 238  
크로더스(John Y. Grothers) 249, 253, 254, 255  
클리랜드 맥아피(Cleland B. McAfee) 238  
킬베트릭 705

【ㄴ】

탈해왕 677  
테니스 603  
테일러(Taylor) 97, 246  
토머스 윌슨 169  
토미다 스스무(富田萬) 275, 276  
통주사건 658

【ㅇ】

팽조(彭祖) 615, 618  
페르디난도 라셀 102  
페르시아 전쟁 722  
평강동수(平岡東洙) 562, 582  
평북노회(平北老會) 217  
平松錫源 211  
平津正 211  
평천군오(平川君五) 562, 581  
폴 애보트(Paul R. Abbot) 230  
豊川鎮一 211  
프란시스 킨슬러(Francis Kinsler) 221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201  
프랑스 천주교 경성 지구 유지재단(維持財團) 61  
플라톤 293  
플레처(Fletcher) 264  
피에르 모방 53, 155

【ㅎ】

하상태(河相台) 562, 582  
하이네 102  
학량 635  
학천완(鶴川浣) 557, 559, 561, 567, 568, 581  
한규설(韓圭洙) 57  
한길수(Kilsoo K. Haan, 韓吉洙) 264  
한무제 618  
한상룡(韓相龍) 305  
한순회(韓順會) 582  
한인보 240  
한중국민동맹(韓中國民同盟) 264  
함태영(咸台永) 57  
해리스(Marriman C. Harris) 55, 80  
해외선교부 224, 225, 227, 228, 229, 231, 233, 234, 235, 236,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3, 254, 262, 263, 264, 271, 272  
해외선교위원회(the Foreign Mission's Board) 262  
해원(海原) 398  
헨터슨 252, 254  
향천법룡(香川法龍) 424  
허근 169  
허권만 168  
허목 689  
허백(虛白) 324  
허버트 웰치(Herbert Welch) 67, 257  
허체 689  
힐 498

헤이그 밀사 파견(密使派遣) 사건 99  
헨더슨(H. H Henderson) 239  
현상윤(玄相允) 56  
현순(玄楯) 57, 122, 131  
현종 689  
혜가(慧可) 408  
혜능(慧能) 409  
호넨(法然) 604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238  
홀드크로프트 234, 235, 237, 248, 255, 264  
홍률설삼(弘律說三) 317  
홍병선(洪秉璇) 98, 130, 131  
홍봉주(洪鳳周) 53, 54  
홍인(弘忍) 408  
홍진혁(洪鎭赫) 546  
황사영(黃嗣永) 53  
황유갑 718  
황종률 167, 168, 172  
후우다(後宇多) 215  
후지(厚池) 407  
후지타(藤田嗣章) 124  
후퍼(Hooper) 249  
홀코스(Fouilkos) 246  
휘종 628  
휴 밀러(Hugh Miller) 79  
휴정대사(休靜大師·四溟大師) 365  
히다카 젠이치(日高善一) 166, 286  
히라노(平野武吉) 95  
히사키 신지로(久木辰次郎) 99  
히와라 마사요시(檜原正義) 170